



심청가 바디별전집 4

정응민 바디 (윤진철 창)

Jeong Eung-min Version
Simcheongga
(Sung by Yun Jin-cheol)



심청가 바디별전집 4

2008년 12월 10일 인쇄

2008년 12월 15일 펴냄

지은이 || 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Thomas Christopher Cummings,
Sumi Hong

발 행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Tel. 02-3704-9119
전 라 북 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Tel. 063-280-2114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512-2 04810
978-89-5925-508-5 (전4권)

한영
대역

심청가

바디벌전집 4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작년에는 첫 번째로 〈춘향가〉 다섯 바탕을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심청가〉 여섯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심청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된 것이다. 작년에 〈춘향가〉 자막 프로그램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그 칭찬과 격려가 올해 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성과물은 총 네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심청가〉, 2권은 〈박동실 바디 정순임 창 심청가〉와 〈김소희 바디 김소희 창 심청가〉, 3권은 〈정웅민 바디 성우향 창 심청가〉와 〈정웅민 바디 성장순 창 심청가〉, 4권은 〈정웅민 바디 윤진철 창 심청가〉로 되어 있다. 이 정도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심청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소리의 번역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판소리 사설에 인용되고 있는 시, 소설, 역사, 고사 등은 엄청난 양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말 주석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판소리 사설은 또한 우리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예술성까지를 살리는 번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번역자가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우리가 나섰다. 우선은 예술성을 살리는 것보다도 의미전달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이 번역을 보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다만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올해는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판소리가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만 했지, 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이제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성과물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예쁜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의 귀한 관심과 애정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앞당길 것으로 믿는다.

2008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차 례

■ 책머리에 • 4

* 윤진철 창

1. 심봉사 내력	12
2. 곽씨부인 품팔이	12
3. 기자 치성	16
4. 심청 출생	20
5. 남녀 확인	22
6. 삼신 축원	24
7. 곽씨부인 유언	28
8. 곽씨부인 죽음	34
9. 상여소리	38
10. 평토제	44
11. 심봉사 통곡	44
12.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랠	46
13. 젖동냥	50
14. 심봉사 동냥	56
15. 심청 부친 봉양	58
16. 심청 걸식	60
17. 시비 따라	64

18. 심청 수양딸 거절	66
19. 심봉사 물에 빠짐	70
20. 심봉사 구출	72
21. 공양미 시주 약속	76
22. 심청 위로	82
23. 심청 치성	86
24. 남경선인	88
25. 행선 전야	92
26. 심봉사 만류	96
27. 장승상부인 작별	104
28. 선인 따라	108
29. 범피중류	112
30. 원혼 만남	116
31. 인당수 투신	122
32. 선인 탄식	128
33. 심청 용궁행	130
34. 모친 상봉	134
35. 심청 환생	138
36. 화초타령	142
37. 천자 심청 발견	146
38. 추월만정	148
39. 맹인 잔치 마련	150
40. 심봉사 딸 생각	152
41. 뽕덕이네 생김새와 행실	154
42. 뽕덕이네 가산 탕진	158

43. 뽕덕이네 도망	162
44. 심봉사 탄식	166
45. 심봉사 목욕	168
46. 방아 찧는 부인들	174
47. 방아타령	176
48. 안 씨 맹인	182
49. 심황후 탄식	186
50. 부녀 상봉	188
51. 심봉사 개안	192
52. 모든 맹인이 눈을 뜸	194
53. 심봉사 환호	196
54. 황봉사	200
55. 후일담	202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윤진철 창

Sung by Yun Jin-cheol

1. (심봉사 내력) 심학규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스무 살 이후에 봉사가 되었다.

[아니리] 송나라¹⁾ 원풍²⁾ 말년에 황주 도화동³⁾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사는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누대명문거족⁴⁾으로 명성⁵⁾이 자자터니,
가운⁶⁾이 불행하여 이십 이후⁷⁾ 안맹하니,⁸⁾
낙수청운에 발자취 끊어지고⁹⁾
강근현¹⁰⁾ 친척 없어
뉘라서¹¹⁾ 받드리오?
그러나 그 아내 곽씨부인이 있으되,
현철¹²⁾하고 암전하사¹³⁾
주남,¹⁴⁾ 소남,¹⁵⁾ 관저시¹⁶⁾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가감¹⁷⁾이라.
그 봉사 가장¹⁸⁾을 꼭 품¹⁹⁾을 팔아 받들 적에,

2. (곽씨부인 품팔이) 곽씨부인이 품을 팔아 가장을 보살핀다.

[자진모리] 샅바느질, 관대,²⁰⁾ 도복,²¹⁾ 행의,²²⁾ 창의,²³⁾ 직령²⁴⁾이며,
섬수,²⁵⁾ 쾌자,²⁶⁾ 중치막²⁷⁾과 남녀 의복의 잔누비질,²⁸⁾
상침질,²⁹⁾ 껌음질³⁰⁾과
외울뜨기,³¹⁾ 패담³²⁾이며,

1. (Mr. Sim's Personal History) Mr. Sim is a descendent of a fallen high class family. He became blind after the age of twenty.

[Aniri]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lind man in Peach Blossom Village.

His last name was Sim, and his first name was Hak-gyu.

His family once was eminent and powerful.

But all that changed and he became blind at twenty.

He can't serve in the government.

He did not have a close relative.

Who would respect him?

But he had a wife, Mrs. Gwak.

She is wise and graceful.

She has a good understanding of classic books.

She can handle things.

She supports her husband by working as a day laborer.

2. (Mrs. Gwak Works as a Day Laborer) Mrs. Gwak takes care of her husband by working as a day laborer.

[Jajinmori] Mrs. Gwak does needlework on an official's, a Toist's, a scholar's, causal, and military clothes.

She quilts military clothes, and male and female clothes.

She sews the edges of clothing with a needle.

She makes a headband and a bag.

고두누비,³³⁾
 솔오리기,³⁴⁾ 망건³⁵⁾ 꾸며
 갓끈 집기, 배자,³⁶⁾
 토수,³⁷⁾ 보선,³⁸⁾ 행전,³⁹⁾ 포대,⁴⁰⁾ 허리띠, 대님,⁴¹⁾
 줍치,⁴²⁾ 싹지,⁴³⁾ 약낭⁴⁴⁾에 필낭,⁴⁵⁾
 휘항,⁴⁶⁾ 불치,⁴⁷⁾ 복건,⁴⁸⁾ 풍차⁴⁹⁾이며,
 천의,⁵⁰⁾ 주의,⁵¹⁾ 갓인⁵²⁾ 금침,⁵³⁾
 베갯모⁵⁴⁾ 쌍원앙⁵⁵⁾ 수도 놓고,
 오색 모사,⁵⁶⁾ 각대,⁵⁷⁾
 흉배⁵⁸⁾ 학 그리기,⁵⁹⁾
 궁초,⁶⁰⁾ 공단,⁶¹⁾ 서주,⁶²⁾
 선주,⁶³⁾ 낙룡,⁶⁴⁾ 갑사,⁶⁵⁾
 운문,⁶⁶⁾ 토주,⁶⁷⁾
 갑주,⁶⁸⁾ 분주,⁶⁹⁾
 표주,⁷⁰⁾ 명주,⁷¹⁾
 생초,⁷²⁾ 통견,⁷³⁾ 조포,⁷⁴⁾ 북포,⁷⁵⁾
 황저포,⁷⁶⁾ 춘포,⁷⁷⁾ 문포,⁷⁸⁾ 제추리⁷⁹⁾며,
 삼배, 백저,⁸⁰⁾ 극상세목⁸¹⁾ 샅을 받고 말어 짜기,
 청 · 황 · 적 · 백⁸²⁾ · 침향,⁸³⁾ 회색 각색으로다⁸⁴⁾ 염색허기,
 초상난 집의 원삼,⁸⁵⁾ 제복,⁸⁶⁾
 혼장대사⁸⁷⁾ 음식 숙정,⁸⁸⁾
 갓은⁸⁹⁾ 증편,⁹⁰⁾ 중계,⁹¹⁾ 약과,⁹²⁾
 박산,⁹³⁾ 과자에 다식,⁹⁴⁾ 정과,⁹⁵⁾ 냉면,
 화채⁹⁶⁾에 신선로,⁹⁷⁾ 각각 찬수,⁹⁸⁾ 약주 빚기,
 수과련,⁹⁹⁾ 봉오림¹⁰⁰⁾과
 배상하기,¹⁰¹⁾ 고임질¹⁰²⁾을

She does fine needlework up and down.
She patches and embroiders a headband.
She works on a string of cylindrical hat, a female vest,
wristlets, socks, leggings, a ramie band, a belt, ankle bands,
a bag, a tobacco pouch, a money pouch, a brush pouch,
a long headgear, a muff, a cloth headgear, a furred headgear,
a small quilt, a topcoat, a quilt, a pillow,
a pillow end, a pair of mandarin ducks,
colorful woolen yarns, and a belt.
She embroiders nobilities' clothing with a crane.
She weaves a thin silk, a thick silk, a silk of high quality,
cloths, a silk for summer clothe,
a silk having a cloud figure, a silk cloth,
a fancy silk, a silk from a region,
a silk with five colors, a silk without a figure,
a raw silk, a coarse silk, a narrow ramie cloth, a fine ramie cloth,
ramie cloths from different regions,
a white ramie cloth, and a fine cotton cloth to make money.
She dyes them with blue, yellow, red, white, yellowish brown,
and gray colors.
She makes a clothe for a funeral and a uniform.
For a big event, such as marriage, she makes food:
a rice cake, an oily cake, a honey cake,
a thin candy, a kind of candy, fruit, a noodle,
a flower drink in a bowl, side dishes, and wine.
She prepares lotus flowers and flowery decorations.
She places food on a food table.

잠시도 놀지 않고, 수족¹⁰³⁾이 다 진토록¹⁰⁴⁾ 품 팔아 모일 제,
 푼¹⁰⁵⁾ 모아 돈¹⁰⁶⁾ 짓고, 돈 모아 양¹⁰⁷⁾ 만들어, 양을 지어서 관돈¹⁰⁸⁾
 되니,
 일수,¹⁰⁹⁾ 체계,¹¹⁰⁾ 장리변¹¹¹⁾으로 이웃집 사람들에게 착실한 곳 빛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추시향¹¹²⁾의 봉제사,¹¹³⁾
 앞 못 보는 가장 공경 시종이 여일허니,¹¹⁴⁾
 상하인리¹¹⁵⁾의 사람들,

3. (기자 치성) 광씨부인이 자식을 낳기 위하여 공을 드리 다가, 어느 날 선녀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다.

[아니리] 뉘 아니 칭찬하랴?
 하루난 심봉사 먼 눈을 번쩍이며,
 “여보, 마누라.
 전생에 무삼¹¹⁶⁾ 인연으로 이생¹¹⁷⁾에 나를 만나,
 어린아이 받들 듯이 나를 이렇듯 공대¹¹⁸⁾허니,
 나는 편타¹¹⁹⁾하려니와,
 마누라 고생살이¹²⁰⁾ 도리어 불안허오.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되,
 마누라에게 극히 지원¹²¹⁾할 말이 있소.
 우리 연당사십이나¹²²⁾
 슬하¹²³⁾ 일점혈육¹²⁴⁾이 없어
 선영¹²⁵⁾ 향화¹²⁶⁾ 끊게 되고,
 우리 사후¹²⁷⁾ 신세라도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뉘라서 받드리오?

Without taking a rest, she works hard as a day laborer.
She earns money little by little and the amount of money
gradually increases.
She lends the money to good neighbors and takes it back along
with interest.
She holds a ritual to her husband's ancestors.
She consistently takes good care of her blind husband.
People in neighboring villages praise her.

**3. (Praying for a Child) Mrs. Gwak prays to gods for
a child. One day a goddess comes into her bosom
in her dream.**

[Aniri] Who wouldn't praise Mr. Gwak?
One day Mr. Sim blinks his blind eyes rapidly as he speaks.
"Hello, honey.
Your fate is bad to have met me in this life.
You take good care of me like you would do a child.
My life is easy.
But I am worried that your life is tough.
From now on, don't work hard.
I have something that I really want to say to you.
We are in our 40s now.
Yet we don't have a child.
Nobody will hold a ritual for my ancestors.
Nobody will hold a ritual for us after we die.

허니, 명산대찰¹²⁸⁾ 신공¹²⁹⁾이라도 드러 사십 후¹³⁰⁾라도 자녀간에¹³¹⁾
 하나만 보았으면,
 평생 한을 풀겠구만.”
 괘씨부인 이 말 듣고 공손히 여짜오되,¹³²⁾
 “불효삼천에 무후위대¹³³⁾라 허였으니,
 뼈가 못도록¹³⁴⁾ 품을 판들 무슨 일을 못 하리까?”
 “거 지성껏¹³⁵⁾ 공을 한번 드러보오.”
[중모레] 괘씨부인 그날부터 품 팔아 모은 재물, 원갓¹³⁶⁾ 공을 다 드릴 제,
 명산대찰,¹³⁷⁾ 영신당¹³⁸⁾과
 고묘,¹³⁹⁾ 충사,¹⁴⁰⁾ 석왕사¹⁴¹⁾며,
 석불,¹⁴²⁾ 미륵¹⁴³⁾ 서 계신 데 허유허유¹⁴⁴⁾ 다니시며,
 가사시주,¹⁴⁵⁾ 인등시주,¹⁴⁶⁾ 창호시주,¹⁴⁷⁾
 시왕불공,¹⁴⁸⁾ 칠성불공,¹⁴⁹⁾ 나한불공,¹⁵⁰⁾ 가지가지 다 드리니,
 공 든 답이 무너지며, 심든¹⁵¹⁾ 남기¹⁵²⁾ 꺾어지랴?
 갑자 사월 초과일야¹⁵³⁾ 한 꿈을 얻은지라.
 서기 반공¹⁵⁴⁾허고,
 오채¹⁵⁵⁾가 영롱하니,
 하늘의 선녀 하나 옥경¹⁵⁶⁾으로 내려올 제,
 머리 위에 화관¹⁵⁷⁾이요, 몸에는 원삼¹⁵⁸⁾이라.
 계화가지¹⁵⁹⁾ 손에 들고
 부인 전 배례¹⁶⁰⁾하고, 곁에 와 앉는 거동
 뚜렷한 달 정신¹⁶¹⁾이 산상에¹⁶²⁾ 솟아난 듯,
 남해 관음¹⁶³⁾이 해중에¹⁶⁴⁾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의 고운 태도, 호치¹⁶⁵⁾를 반개하여¹⁶⁶⁾
 왜옥성¹⁶⁷⁾으로 말을 한다.

So please pray to gods in good places that we will have a child,
a boy or a girl, even after forty.

Then, my lifelong wish will be fulfilled.”

Mrs. Gwak responds politely,

“The worst thing that a child does to its parents is not to have
a child.

I will make efforts to the degree that my bones wear out.”

“Please pray as best as you can.”

[Jungmori] Mrs. Gwak spends the properties she earned as a day
laborer to pray to gods.

She prays in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on famous
mountains.

She prays in shrines and buddhist temples.

She travels to many places to pray to the statues of Buddha.

She donates clothes, lamp oil, and papers to buddhist monks.

She prays to the Ten Judges, the Ursa Major, and a Buddha’s
disciple.

Inevitably, her hard efforts pay off.

She has a dream at night in April.

The air is filled with favorable energy.

The colorful air is bright.

A goddess from the capital city of heaven comes down.

She wears a flowery hat and silky clothes.

She holds a cinnamon branch on her hand.

She gives a big bow to Mrs. Gwak and sits down next to her.

It looks as if the moon soared above a mountain,

and as i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rose up from the sea.

Mrs. Gwak is in raptures and can’t calm herself down.

The elegant goddess exposes a half of her white teeth.

She speaks with beautiful voice.

“소녀는 서왕모¹⁶⁸) 딸일러니,
 반도¹⁶⁹) 진상¹⁷⁰) 가는 길에,
 옥진비자¹⁷¹) 잠깐 만나 수어¹⁷²) 수작¹⁷³)을 허옇다가,
 시각이 조끔¹⁷⁴) 늦은 고로¹⁷⁵) 상제¹⁷⁶)께 득죄하여,¹⁷⁷)
 인간¹⁷⁸)에 내치시매¹⁷⁹)
 갈 바를 몰랐더니,
 태상노군,¹⁸⁰) 후토부인,¹⁸¹) 제불보살,¹⁸²) 석가님이 댁으로 지시하여
 이리 찾아왔사오니,
 어여뻐 여기소서.”
 품 안으로 달려들어,
 놀래어 깨달으니 남가일몽¹⁸³)이라.

4. (심청 출생) 곽씨부인이 태기가 있어 열 달 동안 조심하 며 지내다가 딸을 낳는다.

[아니리] 양주¹⁸⁴) 몽사¹⁸⁵) 의논하니 꿈이 꼭 같은지라,
 그 날부터 태기¹⁸⁶)가 있는디,
 [중중모리] 석부정부좌,¹⁸⁷) 할부정불식,¹⁸⁸) 이불청음성¹⁸⁹) 목불시악
 색¹⁹⁰) 좌불중석,¹⁹¹)
 십삭일¹⁹²)이 찬 연후에,¹⁹³) 하루는 해복¹⁹⁴) 기미가 있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심봉사 거동을 보소.
 일편은¹⁹⁵) 반갑고, 일편은 겁을 내어,
 밖으로 우루루 나가더니,
 짚 한 주먹을 쭉쭉 추려¹⁹⁶)

"I am a daughter of a goddess.
I was on my way to offer a divine peach.
I talked briefly with another goddess on my way back.
I was a little late, which amounted to a crime to the King of Heaven.
He expelled me to the world of humans.
I was at a loss where to go.
Lao-tzu, a goddess, Buddha, and saints recommended that I go to you.
So I am here.
Please accept me."
The goddess runs into Mrs. Gwak's bosom.
Mrs. Gwak is petrified and wakes up from the dream.

**4. (The Birth of Sim Cheong) Mrs. Gwak gets pregnant.
She takes good care of herself for ten months and
gives birth to a daughter.**

[Aniri] The husband and wife realize that they had the same dream.
From that day on, Mrs. Gwak shows the sign of pregnancy.
[Jungjungmori] Mrs. Gwak avoids bad seats, bad-looking food, obscene language, bad colors, and the middle seat.
After ten months passed, one day she shows the signs of labor.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Behold Mr. Sim.
He is delighted on the one hand and scared on the other.
He runs out of the house.
He picks a handful of straws.

정화수¹⁹⁷⁾ 새 소반¹⁹⁸⁾에 받쳐놓고,
좌불안석¹⁹⁹⁾ 급한 마음 순산²⁰⁰⁾허기를 기다릴 제,
향취²⁰¹⁾가 진동허고, 채운²⁰²⁾이 두르더니,
혼미 중²⁰³⁾ 탄생허니, 선인옥녀²⁰⁴⁾ 딸이라.

5. (남녀 확인) 심봉사가 아이를 더듬어 보고 딸인 것을 확인하자, 꼭씨부인이 섭섭해 한다.

[아니래 심봉사가 눈 있는 사람 같으면 애기 낳 때 남녀 분간을 하련
만은,²⁰⁵⁾

눈 없는 맹인이라 보아 알 수 있나?

남녀 분간하려고 위에서부터 더듬어 내려가는데,

꼭 유장꾼²⁰⁶⁾ 좀장²⁰⁷⁾ 줄라 내려가듯 허것다.

“가만 있거라.

아이고, 이놈이 머리가 이렇게 크니,

두대왈장군²⁰⁸⁾이지.

어허, 이놈이 앞가슴이 떡 벌어졌으니

장군 될 놈이 틀림없고,

이놈이 배가 이렇게 부르니,

부자될 놈이 틀림없지.

네가 여기서 거침이 있어야 망정이지,

만일 미끈덩²⁰⁹⁾하게 그냥 내려가면 내 신세는 탈이다.

가만 있거라. 아차!”

미끈허게 내려가니,

“아마, 마누라같은 사람 낳았나 보오”

They puts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Mr. Sim is not at ease, and hopes that she has an easy birth.
Fragrance lingers, and clouds of diverse colors drift around.
In this faint atmosphere, a girl is born as beautiful as a goddess.

**5. (Checking the Gender) Mr. Sim touches the baby
and learns that she is a girl. Mrs. Gwak gets
disappointed.**

[Aniri] If Mr. Sim were sighted, he would know whether the
baby is a boy or a girl.

Since he is blind, he can't tell.

To check the gender, his hand goes down from the top.

His hand stops in some places as it goes down.

"Let me see.

Gee, this baby has a large head.

It will become a military general later.

Gee, this rascal has a broad chest.

It will surely become a general later.

Gee, this rascal has a large belly.

It must become rich later.

There should be a hinderance here.

If my hand goes down without any resistance, my fate will have
a hitch.

Let me see. Goodness!"

His hand slides down.

"It appears you gave birth to a baby like you."

곱씨부인 서운하여,
 “만득²¹⁰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허오.”
 심봉사도 속으로는 안되었으나 곱씨를 위로하더니,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선영²¹¹할 것이요,
 딸이라도 잘 두면 못난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의범절²¹² 잘 가르쳐, 군자호구²¹³ 좋은 배필,
 수부귀다남²¹⁴하게 되면, 외손봉사²¹⁵는 할 수 없간디?²¹⁶
 삼신²¹⁷ 제왕님²¹⁸이 듣고 화²¹⁹ 내실라고?
 당최²²⁰ 그런 말 마오.”
 첫국밥²²¹ 얼른 지어 삼신상²²²에 받쳐놓고 빌라는디,
 “거, 귀덕어미가 좀 빌어주소.”
 “내가 언제 빌어봤소?
 심봉사님이 비췌.”²²³
 “내 생전 처음 일인디.
 그래, 내가 한 번 빌어 볼까?”
 심봉사가 빌랴 할 제,
 딸을 낳았으니 속으로는 덜 좋은 데다가,
 봉사는 매양²²⁴ 껍성²²⁵이라,
 삼신²²⁶ 제왕님네²²⁷가 삼천구만리²²⁸나 도망허게 빌것다.

6. (삼신 축원) 심봉사가 삼신님께 딸의 복을 빈다.

[자진모리] “삼십삼천²²⁹ 도솔천²³⁰ 삼신 제왕님네,

Mrs. Gwak is disappointed.
 "To my chagrin, the child is a girl."
 Mr. Sim feels disappointed but consoles Mrs. Gwak.
 "Hello honey. Don't say that.
 A bad son can be a disgrace even to ancestors.
 A good daughter is even better than a bad son.
 Let's raise this girl well.
 Let's teach her etiquette and find a good man for her.
 If she lives happily with many children, her sons may hold a
 ritual for us.
 You might anger God of Birth who sent this girl to us."
 So don't say that again."
 He cooks rice and soup for the gods and prays to them.
 "Mrs. Gwideok, please pray on behalf of us."
 "I have never prayed before.
 You pray, Mr. Sim."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pray.
 Okay. Let me pray."
 Mr. Sim is about to pray.
 He feels a little disappointed because the baby is a daughter.
 Besides, being blind, he is petulant.
 He prays so loudly that the gods might run away from him.

6. (Pray to God of Birth) Mr. Sim prays to gods for the well-being of his daughter.

[Jajinmori] "All gods in all heavens!

화위동심²³¹)하여 다 굽어보옵소서.
 사십 후에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맺어,²³²⁾
 석 달에 피 어리고,²³³⁾
 녁 달에 인형²³⁴⁾ 삼겨,²³⁵⁾
 다섯 달 오포²³⁶⁾ 낳고,²³⁷⁾
 여섯 달에 육경²³⁸⁾ 삼겨,
 일곱 달에 칠규²³⁹⁾ 열려,
 여덟 달에 사만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에 구규²⁴⁰⁾ 열려,
 열 달만에 찬 짐 받아,²⁴¹⁾
 금강문,²⁴²⁾ 하달문²⁴³⁾ 고이 열어서
 순산하니,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난망²⁴⁴⁾ 잊으리까?
 다만 독녀²⁴⁵⁾ 딸이오나,
 동방삭²⁴⁶⁾의 명을 주고
 태임²⁴⁷⁾의 덕행이며,
 대순,²⁴⁸⁾ 증자,²⁴⁹⁾ 효행이며,
 길량의 처²⁵⁰⁾ 절행이며,
 반희²⁵¹⁾의 재질²⁵²⁾이며,
 석숭²⁵³⁾의 복을 주어
 외 분듯,²⁵⁴⁾ 달 분듯²⁵⁵⁾ 잔병²⁵⁶⁾ 없이 잘 자라나
 일취월장²⁵⁷⁾하게 허옵소서.”

Please form a union and listen to me!
I had a child after forty.
In the first and the second months, dewdrops got together.
In the third month, a lump of blood was created.
In the fourth month, she acquired the shape of a human being.
In the fifth month, she obtained the five internal organs.
In the sixth month, she came by all the six emotions.
In the seventh month, she got all the seven holes in the head.
In the eighth month, a hair began to grow.
In the ninth month, all the nine holes opened.
In the tenth month, she received a cold energy.
The firm door was opened beautifully.
It was an easy birth.
I am eternally grateful to God of Birth for her virtuous work.
She is an only daughter.
Please help her live long.
May she be a good wife!
May she be a good child!
May she be virtuous!
May she be intelligent!
May she be rich!
May she grow up well without being sick!
May she progress everyday!"

7. (곽씨부인 유언) 산후별증이 나서 죽게 될 줄을 안 곽씨 부인이 유언을 한다.

[아니리] “이만하면 되었지.”

다순²⁵⁸ 국 떠 산모²⁵⁹를 먹인 후에,
그때에 곽씨부인은 산후²⁶⁰ 손대²⁶¹ 없어
찬물로 빨래허기, 온갖 일에 과로²⁶²를 너무 하여노니,
뜻밖에 산후별증²⁶³이 일어나,
사대삭신²⁶⁴ 육천 마디 아니 아픈 데가 전혀 없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진양조] 가군²⁶⁵의 손길 잡고 유언하고 죽드니라.

“여보시오, 가군님,²⁶⁶

내 평생 먹은 마음, 앞 못 보는 가장님을 해로백년²⁶⁷ 봉양타가,
불행 망세²⁶⁸ 당허오면 초종장사²⁶⁹ 마친 후에 뒤를 쫓아 죽았더니,²⁷⁰
천명²⁷¹이 이뿐인가,
인연이 끊쳤는지²⁷²
하릴없이²⁷³ 죽게 되니,
눈을 어이 감고 가며,
앞 어두신²⁷⁴ 우리 가장 험 옷 뉘랴²⁷⁵ 지어주며,
조석공대²⁷⁶ 뉘랴 허리?
사고무친²⁷⁷ 혈혈단신²⁷⁸ 의탁²⁷⁹할 곳 바이없어,²⁸⁰
지팽막대²⁸¹를 홀어 짚고²⁸² 더듬더듬 다니시다,
굴형²⁸³에도 떨어지고,
돌에 채여 넘어져서
신세자탄²⁸⁴ 우는 모양 내 눈으로 본 듯허고,
기한²⁸⁵을 못 이기어 가가문전²⁸⁶ 다니시며,

7. (Mrs. Gwak's Last Words) Mrs. Gwak says her last words, knowing that she will die of a childbirth complication.

[아니리] "This should be enough."

Mr. Sim makes a hot soup for Mrs. Gwak.

There is nobody to serve Mrs. Gwak after childbirth.

She washes clothes in cold water, working too hard on all sorts of things.

Unexpectedly, she has a childbirth complication.

All of her muscles and joints ache.

She realizes that she can't live anymore.

[Jinyangjo] Mrs. Gwak holds her husband's hands and says her last words.

"Oh, my darling!

I was determined to take good care of my blind husband until he dies.

If you die, I wanted to follow you after I finish the funeral service.

But my life stops here.

Our relationship ends here.

I can't help from dying.

How can I close my eyes on you?

Who would make old clothes for my blind husband?

Who would serve you with meals?

You have no relative and nobody to count on.

You will travel aroun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a cane.

You will fall into a pit.

You will fall over because of a stone.

I can see you cry and blame your fate.

You will beg around to overcome hunger and the cold.

‘밥 좀 주오.’

슬픈 소리 귀에 쟁쟁 들리난 듯,

나 죽은 혼백²⁸⁷⁾인들 차마 어이 듣고 보리?

명산대찰²⁸⁸⁾ 신공²⁸⁹⁾ 들어

사십 이후 낳은 자식,

젓 한 번도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모르고, 죽단 말이 웬 일이오?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멀고먼 황천길을 눈물겨워 어이 가며, 앞이 막혀 어이 가리?

여보시오, 가군님.

뒷마을 귀덕어미 정친하게²⁹⁰⁾ 지냈으니,

이 자식을 안고 가서 젓 좀 먹여 달라하면 팔시²⁹¹⁾ 아니 허오리다.

이 자식이 죽지 않고 제 발로 걷거들랑,²⁹²⁾ 앞을 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묘 앞을 찾아와서,

‘악아,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분묘²⁹³⁾로다.’

가르쳐 모녀상면²⁹⁴⁾을 하게 허오.

헐 말은 무궁²⁹⁵⁾허나,

숨이 가빠서²⁹⁶⁾ 못 하겠소.”

[중모리] “아차 아차, 내 잊었소,

저 아이 이름일랑 청이라고 불러주오.

저 주랴고²⁹⁷⁾ 지은 굴레,²⁹⁸⁾ 오색 비단

금자²⁹⁹⁾ 박어,

진옥판³⁰⁰⁾ 홍사³⁰¹⁾ 수실³⁰²⁾

진주느림³⁰³⁾ 부전³⁰⁴⁾ 달아

신행함³⁰⁵⁾에 넣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Please give me some food.'
 I feel like I hear your plaintive voice.
 It will be hard for my soul to watch you.
 I prayed in buddhist temples on famous mountains.
 I had a child after forty.
 I didn't even give her milk.
 I can't believe I am dying without even seeing her face.
 Many things occur in my mind.
 Tears prevent me from going to the distant world of the dead.
 Hello, husband!
 I got along with Mrs. Gwideok in the neighboring village.
 She would not decline if you ask her to give some milk to this
 baby.
 If this child survives and walks on her own, please visit my tomb
 with her.
 'Dear, this is the tomb of your mom.'
 Let the mother and the daughter see each other.
 I have many things to say.
 But I feel short of breath."

[Jungmori] "Oh, there is one thing I nearly forgot.
 Please call this child Cheong.
 I made a hat for her with the colorful silk.
 A golden letter is embroidered on it.
 A jade plate with a red silky thread is on it.
 A pearl ornament hangs on it.
 It is in a marriage box.
 Please put the hat on her.

나라에서 하사허신³⁰⁶ 크나큰 은돈 한 푼,
 수복강녕³⁰⁷ 태평안락³⁰⁸ 양편에³⁰⁹ 새겼기로,
 고운 홍전³¹⁰ 괴불쭈치³¹¹ 끈을 달아 넣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나 찌던³¹² 옥지환³¹³이 손에 적어 못 찌기로
 농 안에 두었으니,
 그것도 끼워주오.”
 한숨쉬고 돌아누워,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낮을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내 새끼야.
 천지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허다.
 내가 진즉³¹⁴ 삼기거나,³¹⁵
 내가 조끔³¹⁶ 더 살거나.
 너 낳자 나 죽으니,
 가이없은³¹⁷ 궁천지통³¹⁸을 일로³¹⁹ 허여 품게 되니,
 죽난³²⁰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에³²¹ 무삼³²² 죄냐?
 내 젓 망종³²³ 많이 먹어라.”
 손길을 스르르 놓고,
 한숨 겨워³²⁴ 부는 바람 삼삼비풍³²⁵ 되어 불고,
 눈물 맺혀 오는 비는 소소세우³²⁶가 되었어라.
 비계질³²⁷ 두세 번에 숨이 덜컹³²⁸ 지는구나.

I was once awarded a silver coin from the government.
On both sides are figures representing longevity, health, peace,
and happiness.
I made a bag with red woolen cloth to carry the coin in.
Please put the bag on her.
The jade ring I used to wear became small for me.
I kept it in the wardrobe.
Please put the ring on her too.”
Mrs. Gwak sighs and turns over.
She hugs her baby and rubs her face.
“Oh my baby.
Heaven is cruel to us.
Gods are heartless to us.
You should have been born earlier.
Or I should live longer.
I die right after you are born.
So our limitless sorrow rise up to heaven.
The dying mother and the living child are pitiful.
Eat my last milk as much as you can.”
She slowly releases her baby.
A wind mourning her death becomes a plaintive wind.
A tearful rain becomes a drizzling rain.
After a few hiccups, she does not breathe anymore.

8. (곽씨부인 죽음) 심봉사가 곽씨부인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한다.

[아니리] 심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인명은 재천인디,³²⁹⁾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까?

내 의가³³⁰⁾에 가 약 지어 올 것이니

부대³³¹⁾ 안심허오.”

심봉사 급한 마음 약을 지어가지고 속히³³²⁾ 돌아와,

수일승전반복³³³⁾에 얼른 달여 짜 들고 들어와,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자시오.³³⁴⁾

이 약 잡수시면, 즉효³³⁵⁾한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이 있으리오?

‘어허, 식음³³⁶⁾을 전폐터니³³⁷⁾

기허³³⁸⁾하여 이러나?’

일으키려 만져보니,

허리는 뻗뻗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궁기³³⁹⁾ 찬 짐³⁴⁰⁾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심봉사가 미치는데,

설움이란 게 어지간하여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설움이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³⁴¹⁾ 울도³⁴²⁾ 못하고, 뛰고 미치는 것이 었다.

[중중모리] 심봉사 기가막혀, 뺏다 절컹³⁴³⁾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을 방바닥에다 미다치며,³⁴⁴⁾

8. (The Death of Mrs. Gwak) Mr. Sim bewails, after realizing that his wife has died.

[Aniri] Meanwhile, Mr. Sim does not know anything.

“Hello, sweetheart.

A human life depends on heaven.

Not all sick people die.

I will go get medicine from a doctor.

You will be all right.”

Mr. Sim hurriedly goes to a pharmacy and comes back with a medicine.

He boils the medicine quickly and comes into the room.

“Honey, sit up and take this medicine.

It will have an immediate effect.”

No matter how hard he calls, she doesn’t answer.

‘Gosh, you did not eat or drink at all.

Are you silent because you are weak?’

He touches her to sit her up.

Her waist is stiff.

Her limbs are loose.

There is no breath in her nostrils.

He now realizes that she is dead.

He goes crazy.

A moderate sorrow would produce cries and tears.

Too much sorrow would make a person not cry but go wild and crazy.

[Jungjungmori] Mr. Sim, dumfounded, stands up and slumps down.

He throws the medicine dish on the floor.

“허허, 허허!

약 지리³⁴⁵) 잤다오니 그 새에³⁴⁶) 죽었네.

병불능살인³⁴⁷)이요,

약능활인³⁴⁸)이라더니,

약이 되려³⁴⁹) 원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 지리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어, 서천서역³⁵⁰) 연화세계³⁵¹) 환생차로³⁵²) 진언³⁵³)

외고, 염불이나 허여 줄 길.

절통허고 분허여라.”

가삼³⁵⁴) 광광 두다려,³⁵⁵)

목제비질³⁵⁶)을 덜컹,

내리궁굴³⁵⁷) 치둥굴³⁵⁸)며,

“아이고 마누라!

저걸 두고 죽단 말이오?

동지 선달 설한풍³⁵⁹)에 무얼 입혀 길러내며,

뉘 젓 먹여 길러낼까?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해도 졌다 돌건마는,

마누라 한번 가면 어느 년,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오려나?

삼천벽도³⁶⁰) 요지연³⁶¹)의 서왕모³⁶²)를 따라가?

황릉묘³⁶³) 이비³⁶⁴)한테 회포말³⁶⁵)을 하러 가?

천상의³⁶⁶) 죄를 짓고, 공을 닦으려³⁶⁷) 올라가?

나는 뉘를 따라 갈거나!”

밖으로 우루루 나가더니 그 자리에 었드려져,³⁶⁸)

“아이구, 동네 사람들.

차소위³⁶⁹) 계집 추는³⁷⁰) 놈은 미친 놈이라 허였으나,

“Oh, my god!
 You died while I was away for medicine.
 They say that illness can’t kill a person,
 and medicine can save a person.
 But I would blame medicine.
 If I had known you were dying, I should not have gone for
 the medicine.
 I should have stayed with you and prayed that you are reborn
 in heaven.
 I feel sad and angry.”
 He hits his chest hard with his fists.
 His head falls down fast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tumbles over up and down.
 “Hey honey!
 How can you die on the baby?
 What should I put on her in cold winter?
 Whose milk should I give to her?
 A flower falls down and comes back.
 The sun sets and rises back.
 But if my wife goes now, when does she come back?
 Did she go to the goddess having a peach party near a pond?
 Did she go to the two ancient queens to tell her deep story?
 Did she go to heaven to repay her wrongdoing?
 To whom should I go?”
 He goes out and falls over on the yard.
 “Hey, villagers!
 A man praising his wife is said to be crazy.

현철³⁷¹)허고 얌전한 우리 곱씨가 죽었소!”
 방으로 더듬더듬 들어가,
 마누라 목을 덜컹³⁷²) 안고, 낫을 대고 문지르며,
 “여보시오, 마누라!
 재담³⁷³)으로 이러제?³⁷⁴)
 농담으로 이러나?
 실담³⁷⁵)으로 이러는가?
 이 지경이 웬일이여?
 내 신세를 어찌라고,
 이 죽음이 웬 일이여?”

9. (상여소리) 동네사람들이 곱씨부인의 상여소리를 하며 상여를 메고 나간다.

[아니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현철허신 곱씨부인 세상을 떠났으니,
 매호³⁷⁶)에 추렴³⁷⁷)이라도 허여 곱씨 시체나 안장³⁷⁸)함이 어떠허오?”
 공론³⁷⁹)이 일구여출³⁸⁰)이어늘,
 곱씨 시체 소방상³⁸¹) 대뜰³⁸²) 위에 덩그렇게³⁸³) 올려놓고,
 명정,³⁸⁴) 공포³⁸⁵) 삼선³⁸⁶) 등물³⁸⁷) 좌우로 갈라 세우고
 거리제³⁸⁸)를 지내는데,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³⁸⁹)
 관음보살!”³⁹⁰)
 상여 나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
 그러나 망노이가³⁹¹)라 하였으니,

But my wise and courteous wife has died!"
He runs into the room,
He hugs her neck swiftly and rubs her face,
"Oh my dear!
Is this a witty remark?
Is this a joke?
Is this a mistaken remark?
I can't believe this.
What will become of my fate?
I can't believe you died."

**9. (The Bier Song) Villagers sing the bier song as they
carry Mrs. Gwak's bier forward.**

[Aniri] Villagers get together.
"Mr. Gwak, who was wise, has died.
Let's collect money from each family to prepare for her funeral."
Opinions from many mouths are in an agreement.
Mrs. Gwak's body is in a small coffin in front of the room.
A banner with her name, a hemp towel, and planks are on the
left and right.
They hold a ritual outside of the house.
"The soul is on the bier to a tomb.
We say with respect good-bye for good.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Would there be a song when a bier moves forward?
But there is a song that helps to forget the pain.

상부소리³⁹²⁾를 맞아가며³⁹³⁾ 나가는디,
 [중모리] 요령³⁹⁴⁾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넘차 너화넘.”³⁹⁵⁾
 “북망산천³⁹⁶⁾이 어디메냐?
 저 건너 안산³⁹⁷⁾이 북망이로다.”
 “어넘차 너화넘.”
 “인제 가면 언제나 오시랴오?
 오마는³⁹⁸⁾ 날이나 일러 주오.”
 “어넘차 너화넘.”
 “춘초³⁹⁹⁾는 연년록⁴⁰⁰⁾이나
 왕손⁴⁰¹⁾도 귀불귀⁴⁰²⁾로구나.”
 “어너 어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넘.”
 심봉사 더욱 통곡허니
 재치 있는 선소리꾼⁴⁰³⁾ 슬쩍 돌려 탄 말로 메기는구나.⁴⁰⁴⁾
 “물가 가재는 뒷걸음질 치고,
 다람쥐 앉아서 밤을 줍는디,
 원산⁴⁰⁵⁾ 호랑이 술주정을 허는구나.”
 “어넘차 너화넘.”
 “인정⁴⁰⁶⁾ 치고 파루⁴⁰⁷⁾를 치니,
 각 댕 하님⁴⁰⁸⁾이 개문⁴⁰⁹⁾을 허네그려.”
 “어넘차 너화넘.”
 “새벽 종달이⁴¹⁰⁾ 쇠길⁴¹¹⁾ 떠
 서천⁴¹²⁾의 명월⁴¹³⁾이 밝아온다.”
 “어넘차 너화넘. 어너 어너 어너 어허넘자.
 어이 가리 넘자 너화넘.”
 그때여 심봉사는 어린 아이를 강보⁴¹⁴⁾에 싸

They interact in the bier song as they move forward.
[Jungmori] A bell rings: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Where is the mountain of the dead?
 It is that mountain in front of us.”
 “Yo-ho! Yo-ho!”
 “If you go now, when are you coming back?
 Tell me when you are coming back.”
 “Yo-ho! Yo-ho!”
 “Spring grass is green.
 But even royal descendants can’t revive from death.”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Mr. Sim wails harder.
 The clever head singer changes the subjects in the song.
 “A crayfish walks back in water.
 A squirrel picks up chestnuts.
 A tiger on a distant mountain is drunken.”
 “Yo-ho! Yo-ho!”
 “A large bell rings, announcing the lift of curfew.
 A maid opens a gate in each house.”
 “Yo-ho! Yo-ho!”
 “A skylark flies high in the morning sky.
 A bright moon rises in the west sky.”
 “Yo-ho!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Meanwhile, Mr. Sim wraps the baby with a small blanket.

귀덕어미에게 맡겨두고,
 꼭 죽어도 굴관⁴¹⁵⁾ 제복⁴¹⁶⁾ 얻어 입고,
 상부⁴¹⁷⁾ 뒤택⁴¹⁸⁾를 검쳐잡고,⁴¹⁹⁾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오?
 나하고 가세, 나하고 가세.
 산첩첩노망망⁴²⁰⁾에
 다리 아퍼서 어이 가며,
 일침침운명명⁴²¹⁾에
 주점⁴²²⁾이 없어서 어이 가리?
 부창부수⁴²³⁾ 우리 정분⁴²⁴⁾
 날과⁴²⁵⁾ 함께 가사이다.”⁴²⁶⁾
 상여는 그대로 나가며,
 “어념차 너화념.”
[중중모리] “어너, 어허너, 어이 가리, 녀차 너화념.”
 “여보소, 벗님네,
 이 내 한 말을 들어보소.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요,
 내가 죽어도 이 길이로다.”
 “어념차 너화념.”
 “현철허신 꺾씨 부인, 불쌍하게도 떠나셨네.”
 “어념차 너화념. 어너 어너 어너 어허념차.
 어이 가리, 녀차 너화념.”

He leaves her in the care of Mrs. Gwideok.
He wears a funeral uniform he borrowed.
He grabs the end of the bier.
“Oh my dear,
Where are you going, leaving me behind?
Let me go with you.
We have a long journey over mountains.
How will we go when our legs hurt?
The sun sets, and it is dark on the road.
How can we go when there is no inn?
A wife is to follow her husband.
Let’s go with me.”
The bier moves forward.
“Yo-ho! Yo-ho!”

[Jungjungmori]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Hello, my friends!
Please listen to me.
If you die, you go this way.
If I die, I go this way too.”
“Yo-ho! Yo-ho!”
“Mrs. Gwak, who was wise, died sadly.”
“Yo-ho! Yo-ho!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10. (평토제) 심봉사가 평토제 제문을 지어 읽는다.

[아니리] 산천에 올라가
고이 안장⁴²⁷현 연후
평토제⁴²⁸를 모시는데,
봉사가 무슨 축⁴²⁹이 있으리오마는,
이십 후의 안맹이라
그 전에 배운 것이 있어,
독축⁴³⁰으로 신세자탄을 허는데,
“차호 부인,⁴³¹ 차호 부인,
요차요조숙녀혜여.⁴³²
행불구혜고인이라.⁴³³
기백년이해로⁴³⁴터니,
홀연몰혜언귀오?⁴³⁵
유치자이영서허니,⁴³⁶
이걸 어이 길러내며,
누산산이첨금혜여,⁴³⁷
지는⁴³⁸ 눈물 피가 되고,
심경경이소혼혜여,⁴³⁹
살 길이 전혀 없네.”

11. (심봉사 통곡) 심봉사가 무덤 앞에서 통곡한다.

[진양조] “주과포혜⁴⁴⁰ 박전이나⁴⁴¹

10. (Burial Ritual) Mr. Sim composes and reads a burial ode.

[Aniri] They move up on a mountain.
The coffin is carefully buried.
The burial ritual is held.
Being blind, Mr. Sim can't read a written prayer.
But he became blind after twenty.
He learned something before that.
He reads the ode, lamenting over his lot.
"Woe to me, my wife!
You were a good wife.
Your virtue is equal to that of ancient people.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You suddenly died. How can you come back?
You left a little child behind forever.
I don't know how I will raise her.
Tears scatter down, soaking my clothes.
My falling tears become blood.
I became insane due to ceaseless worries.
.I don't know how to live on."

11. (The Wail of Mr. Sim) Mr. Sim wails in front of the grave.

[Jinyangjo] "The food is not good.

만사⁴⁴²)를 모두 잊고, 많이 먹고 돌아가오.”
 무덤을 검쳐⁴⁴³) 잡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오?
 마누라는 나를 잊고, 북망산천⁴⁴⁴) 들어가
 송죽⁴⁴⁵)으로 울⁴⁴⁶)을 삼고,
 두견⁴⁴⁷)이 벼를 삼아
 나를 잊고 누웠으나,
 내 신세를 어이 허리?
 노이무처환부라니⁴⁴⁸)
 사궁⁴⁴⁹) 중에 첫머리요,
 아들 없고, 앞 못 보니,
 몇 가지 궁이 되단 말가?⁴⁵⁰)
 아이고, 마누라!
 나만 살아서 무엇을 할그나?
 나도 가지. 따리를 가지.”

12.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램) 집으로 돌아온 심봉사가 밤 새 우는 딸을 달래며 슬퍼한다.

[아니리]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여,
 “사자는 불가부생이라,⁴⁵¹)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쩔라고 이러시오?
 그만 진정허고 어서 어서 가옵시다.”
 하릴없이⁴⁵²) 동인들⁴⁵³)께 붙들리어,

But forget all the trouble and help yourself, before you go back.”
He hugs the tomb.
“Hello, my wife!
Where did you go?
You left me and entered the world of the dead.
For you, pines and bamboos are a fence.
A cuckoo is your friend.
You lied down, having forgotten me.
What will become of my fate?
I am old and don’t have a wife.
I have the first of the four miseries.
Besides, I don’t have a son, and I am blind.
How many miseries do I have?
Oh, my darling!
What would be the use of my living?
I should follow you.”

**12. (Mr. Sim Soothes his Crying Daughter) Mr. Sim
back home laments while soothing his crying
daughter all night.**

[Aniri] Villagers calm Mr. Sim down.
“A dead person cannot come back to life.
What would become of the little child if you follow the dead
person?
Calm down, and let’s go back home.”
Villagers help him to go back home.

[중모레]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엌은 적막허고,

방 안은 행 비었는디,

심봉사 실성발광⁴⁵⁴) 미치는디,

얼싸덜싸⁴⁵⁵)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지팽막대⁴⁵⁶) 홀어 짚고⁴⁵⁷) 이웃집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혹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종적⁴⁵⁸)이 바이없네.⁴⁵⁹⁾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을 곱어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

방으로 들어와서 쑥내 향내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통곡으로 울음을 우니,

강보⁴⁶⁰)에 싸인 자식은 배가 고파 울음을 우니,

아해를 안고 앓어,

“악아, 우지 마라.

너의 모친 먼 데 갔다.

낙양동춘⁴⁶¹) 이화정에 숙낭자⁴⁶²)를 보러 갔다.

죽상지루⁴⁶³) 오신 혼백 이비⁴⁶⁴) 부인을 보러 갔다.

가는 날은 있다마는, 오마는⁴⁶⁵) 날은 모르겠다.

너도 너의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목수생⁴⁶⁶)이지야.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우지 마라, 내 새끼야.”

아무리 달래어도 아이는 그저 우짖듯이, “응아, 응아, 아앙!” 울음 우니,

[Jungmori] Mr. Sim is back home.
 The kitchen is quiet.
 The room is empty.
 He goes wild and crazy.
 He dances and laughs as if he were out of his mind.
 Mr. Sim goes to the neighboring house with the help of his cane.
 “Hello lady! Is my wife here by any chance?”
 He calls his wife around.
 But there is not a trace of her.
 He comes back home and checks the kitchen.
 “Hello, darling! Darling!”
 He goes back into the room and turns on the mugwort incense.
 He calls his wife and bewails loudly.
 The baby in the small blanket cries from hunger.
 He holds the baby in his arms.
 “Honey, don’t cry.
 Your mother went away.
 She went to see an ancient virtuous woman.
 She went to see the souls of two ancient queens.
 There is a day of going, but I have no idea about the day of coming back.
 Are you crying because you know your mother died?
 Are you crying because you are hungry?
 Water doesn’t come out of a dry tree.
 Am I holding milk back from you?”
 Don’t cry, my baby.”
 No matter how hard he soothes the baby, she continues to cry.

심봉사 화가 나서 안았던 아이를 방바닥에다 메다치며,⁴⁶⁷⁾

“죽어라! 썩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칠⁴⁶⁸⁾ 안에 어미를 잃어야?⁴⁶⁹⁾

너 죽어도 나 못 살고,

나 죽어도 너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우지 마라, 내 새끼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 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13. (젓동냥) 날이 밝자 심봉사가 우물가에 가서 젖을 얻어 먹인 후, 좋아한다.

[중중모리] 우물가 두레박⁴⁷⁰⁾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팡이 홀어 짚고,⁴⁷¹⁾

더듬더듬 나갈 적에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 애 젖 좀 먹여 주오.

초칠 안에 어미 잃고

기허⁴⁷²⁾허여 죽게 되니,

이 애 젖 좀 먹여 주오.”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⁴⁷³⁾인들 아니 주며, 도척⁴⁷⁴⁾인들 아니 주랴.

젖을 많이 먹여 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Mr. Sim gets angry and throws the baby on the floor.
“Die! Die quickly!
How good your fate is to kill your mom seven days after birth!
If you die, I can’t live.
If I die, you can’t live.”
He holds the baby in his arms again.
“Don’t cry, my baby.
If the day breaks, I will beg some milk for you.
Don’t cry, my baby.”

13. (Begging Milk) After the day breaks, Mr. Sim is delighted, getting milk from women around a well.

[Jungjungmori] Mr. Sim goes out quickly after hearing the sounds of picking up water from the well.
He holds the baby with one hand and a cane loosely with the other hand.
He moves forward unsteadily to the well.
“Hello ladies!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This baby lost her mom seven days after she was born.
She is hungry and weak.
Please give her some milk.”
The women around the well would give milk, even if they were a stone or a burglar.
They give a lot of milk.
“Hello, Mr. Sim.”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려이⁴⁷⁵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못 먹인들
차마 그 애 굶기리까?”

심봉사 좋아라고,

“허허 감사허오.”

이집 저집 다닐 적에,
삼배 질쌈⁴⁷⁶ 허노라고 ‘히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오뉴월 피약별⁴⁷⁷에 김매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 애 젓 좀 먹여주오.”

백석청탄⁴⁷⁸ 시냇물에 빨래하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서,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젓 있는 부인들은 젓을 많이 먹여 주고,

젓 없는 부인들은 돈 돈씩⁴⁷⁹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 되씩⁴⁸⁰ 떠서 주며,

“맘쌀⁴⁸¹이나 허여주오.”

심봉사 좋아라고,

“허허, 고맙소. 만수무강⁴⁸²허옵소서.”

젓을 많이 얻어 먹여 집으로 돌아올 제,

어덕⁴⁸³ 밑에 꾸그려 앉어 아이를 어른다.⁴⁸⁴

“아이고, 내 딸 배 부르다.

이 자식이 배가 뽕뽕허구나.

“Yes.”

“This family has a baby.

That family has a baby too.

Go and ask for milk often without hesitation.

Their babies might be hungry.

But would they let your baby go hungry?”

Mr. Sim is joyful.

“Thanks a lot.”

He visits this and that house.

He hears the laughs of women weaving ramie and goes quickly to them.

“Hello, ladies.

I know it’s rude, but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He manages to find the women resting after removing weeds in the scorching sunshine.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He finds his way to the women washing clothes in the beautiful stream.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Women having milk give a lot of milk.

Women having no milk give some money.

Women having no money give some rice.

“Make rice soup for the baby.”

Mr. Sim is happy.

“Thanks a lot. May you be happy and live long!”

After feeding the baby a lot, he comes back home.

He sits down in front of his poor house and dandles the baby.

“Good! My daughter is full.

Her belly is tight.

거, 날마다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등등등 내 딸이야.

어허, 등등 내 딸.

이 덕이 뉘 덕이냐?

동리 부인 덕이로다.

어허 등등, 내 딸이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귀다남⁴⁸⁵한다더라.

너도 어서어서 자라나서

너의 모친 닮아서 현철하고 얹전하여,

아비 귀염⁴⁸⁶을 보여라.

등등, 내 딸이야.

백미 닷섬의 뉘 하나,⁴⁸⁷ 열 소경 한 막대⁴⁸⁸로구나.

어허 등등, 내 딸.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 준들 너를 사랴?

언덕 밑에 귀남이⁴⁸⁹ 아니냐?

슬슬슬 기어라, 어허 등등, 내 딸이야.”

[자진모리] “어허 등등, 내 딸.

어허 등등, 내 딸.

어허 등등, 내 딸.

달 가운데는 옥토끼,⁴⁹⁰

땡기 끝에 준주시,⁴⁹¹

옷고름에 밀화불수.⁴⁹²

쥐얹쥐얹,⁴⁹³

잘깡잘깡,⁴⁹⁴

엄마 아빠

도리도리,⁴⁹⁵

I wish you are full like this everyday.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To whom do we owe this?
We owe this to the ladies in this village.
Oh, my lovely daughter.
Painful childhood bears future success.
Please grow up quickly.
Like your mom, please be wise, intelligent, and graceful.
Your father will love you.
Oh, my daughter.
You are precious to me as a cane is to the blind.
Oh, my lovely daughter.”
Would I be able to buy you with gold or jade?
Aren't you my precious child?
Crawl, baby! Oh, my lovely daughter.”

[Jajinmori]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You are the cute hare on the moon.
You are a pearl at the end of a pigtail ribbon.
You are a jewel on the coat string.
Fold and unfold your fingers.
Go to sleep.
Say mom and daddy.
Shake your head.

어허 둥둥, 내 딸.
 서울 가, 서울 가 밤 하나 얻어다
 두름박⁴⁹⁶⁾ 속에 넣었더니,
 머리 검은 새앙쥐가 들랑달랑⁴⁹⁷⁾
 다 까먹고 다만 한 쪽이 남았기로,
 한 쪽은 내가 먹고,
 한 쪽은 너를 주마.
 어르르르⁴⁹⁸⁾ 둥둥 두우웅둥,
 어허 둥둥, 내 딸.”

14. (심봉사 동냥) 심봉사가 동냥으로 심청을 기른다.

[아니리] 아이 안고 돌아와
 포단⁴⁹⁹⁾ 덮어 뉘어놓고,
 이제는 동냥차로⁵⁰⁰⁾ 나가는데,
[중중모리] 삼베 전대⁵⁰¹⁾ 외동지어⁵⁰²⁾ 윈 어깨 드러메고⁵⁰³⁾
 동냥차로 나간다.
 여름에는 보리 동냥,
 가을이면 나락⁵⁰⁴⁾ 동냥,
 어린 아이 맘죽차로⁵⁰⁵⁾ 감을 사고,
 쌀을 얻어 허유허유⁵⁰⁶⁾ 돌아올 제,
 그 때여 심청이는 하늘의 도움이라 일취월장⁵⁰⁷⁾ 자라날 적,
 세월이 여류하여,⁵⁰⁸⁾
 십여 세가 되어가니,
 모친의 기제사⁵⁰⁹⁾를 아니 잊고 혈 줄 알고,

Oh, my daughter.
I got a handful of chestnuts from Seoul.
I kept them in a gourd bucket.
A mouse with a black head came in and went out.
It ate all the chestnuts except one.
I will eat the first half.
I will give you the second half.
Look at me, baby.
Oh, my daughter.”

14. (Mr. Sim's Begging) Mr. Sim raises Sim Cheong by begging around.

[Aniri] Mr. Sim comes back with the baby in his arms.
He lays the baby and covers her with a small blanket.
He now goes out to beg.
[Jungjungmori] Mr. Sim carries a ramie bag on his left shoulder.
He goes out to beg.
In summer he begs for barley.
In fall he begs for rice.
He gets rice and buys persimmons to make rice soup for the baby.
He comes back home in a hurry.
Sim Cheong grows up fast with the help of heaven.
Time flows like a river.
She becomes a teenager.
She holds a ritual for her mother without forgetting it.

부친의 공양사⁵¹⁰)를 의법⁵¹¹) 하여 가니,
무정세월⁵¹²)이 이 아니냐.

**15. (심청 부친 봉양) 하루는 심청이 아버지께 자신이 밥을
빌어 봉양을 하겠다고 말한다.**

[아니레] 심청이 하루는 부친전 단정히 앉아,

“아버지.”

“오야.”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지지 마옵시고 집에 앉아 계옵시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⁵¹³) 하겠내다.”⁵¹⁴)

심봉사 깜짝 놀래,

“원, 이 자식아.

내 아무리 곤궁⁵¹⁵)헌들, 무남독녀⁵¹⁶) 너를 내보내어 밥을 빈단 말이
될 말이나?

어라,⁵¹⁷) 어라, 그런 소리는 다시는 말어라.”

[중모레] “아버지, 듣조시오.”⁵¹⁸)

자로⁵¹⁹)는 현인⁵²⁰)으로 백리를 부미하고,⁵²¹)

순우의⁵²²) 딸 제영⁵²³)이는 낙양⁵²⁴) 옥에 갇힌 아비⁵²⁵) 몸을 팔아 속
죄⁵²⁶)하고,

말 못허는 가마귀도 공림의⁵²⁷) 저문 날에 반포은⁵²⁸)을 혈 줄 아니,
하물며 사람이야 비금⁵²⁹)만 못허리까?

다 큰 자식 집에 두고 아버지가 밥을 빌면 남이 욕도 할 것이요,
바람 불고 날 치운⁵³⁰) 날 천방지축⁵³¹) 다니시다 치위 병이 날까 염려
오니,

She serves her father with meals properly.
Time passes fast.

15.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One day Sim Cheong says to her father that she wants to support him by begging.

[Aniri] One day Sim Cheong sits in front of her father in a solemn manner.

“Father.”

“Yes.”

“From today on, stay at home without going anywhere.

I will go out, beg for food, and serve you meals.”

Mr. Sim is surprised.

“Oh, my dear.

No matter how poor I am, how would I let you, my only child, beg for food?

No way! Please don’t say that again.”

[Jungmori] “Please hear me out, father.

A virtuous student of Confucius carried a rice bag for hundreds of miles to feed his father.

A daughter in ancient times became a slave for the government to amend for his father’s crime.

Even a speechless crow feeds its old parents in an empty grove at sunset.

How can a human being be worse than an animal?

Others will blame me if you beg around when I have grown up.

I am afraid that you might get sick while begging around on a windy and cold day.

그런 말씀은 마옵소서.”

[아니리] 심봉사 좋아라고,

“원, 이 자식아, 그런 말은 어디서 다 들었느냐?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죄다⁵³²⁾ 배워가지고 나왔구나.

네 효성이 정녕 그럴진대 한 두어 집만 다녀오너라.”

16. (심청 결식) 심청이 밥을 빌어 아버지를 봉양한다.

[중모리] 심청이 거동 보아라.

밥을 빌러 나갈 적에

헌 베 중우⁵³³⁾ 대님⁵³⁴⁾ 매고,

청목⁵³⁵⁾ 휘양⁵³⁶⁾ 눌러 쓰고,

말⁵³⁷⁾만 남은 헌 초마⁵³⁸⁾에

깃⁵³⁹⁾ 없는 헌 저고리,

목만⁵⁴⁰⁾ 남은 길보신⁵⁴¹⁾에 갚신,

단발⁵⁴²⁾ 정히⁵⁴³⁾ 허고,

바가치⁵⁴⁴⁾ 옆에 끼고,

바람 맞은 병신처럼 옆걸음쳐 건너갈 적,

원산⁵⁴⁵⁾에 해 비치고,

건넌 마을 연기 일 제,

추적추적⁵⁴⁶⁾ 건너가 부엌 문전 당도하여,

애궁히⁵⁴⁷⁾ 비는 말이,

“우리 모친 나를 낳고 초칠⁵⁴⁸⁾ 안에 죽은 후에,

앞 못 보신 늙은 아비 나를 안고 다니시며 동냥젖 얻어 먹여

이만큼이나 자랐으나,

Don't say that, father."

[Aniri] Mr. Sim is delighted.

"My daughter! Where did you learn those scholarly words?
You must have learned all of them in your mother's womb.
If you insist as a good daughter, travel only to a couple of
houses."

16. (Sim Cheong's Begging)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by begging for food.

[Jungmori] Behold Sim Cheong!

She goes out to beg for food.

She wears old hemp trousers tied by ankle bands.

She jams a blue cotton headgear on.

Only the top of her skirt remains.

The old jacket doesn't have a collar.

She wears straw shoes and socks whose bottoms are gone.

Her hair is short and tidy.

She carries a bucket on her flank.

She walks on the side as if she were crippled in wind.

The sun is on the distant mountain.

A smoke rises up from a neighboring village.

Walking wretchedly, she arrives in front of a kitchen.

She begs in a pathetic voice.

"My mom died seven days after she gave birth to me.

My blind old father held me in his arms and begged around
for milk.

I grew up this much.

앞 어두신 우리 부친 구환⁵⁴⁹⁾할 길 전혀 없어
 밥을 빌러 왔사오니,
 한 술⁵⁵⁰⁾씩 덜 잡수고 십시일반⁵⁵¹⁾ 주옵시면,
 치운⁵⁵²⁾ 방 우리 부친 구환을 허겼내다.”⁵⁵³⁾
 듣고 보는 부인들이 뉘 아니 칭찬허랴!
 그릇밥,⁵⁵⁴⁾ 김치, 장⁵⁵⁵⁾을 아끼잖고 후히⁵⁵⁶⁾ 주며,
 혹은 먹고 가라 허니,
 심청이 대답허되, “치운 방 우리 부친 저 오기만 기다린다,⁵⁵⁷⁾
 저 혼자 먹사리까?⁵⁵⁸⁾
 부친전에 가 먹겼내다.”
 한두 집이 죽한지라.⁵⁵⁹⁾
 밥을 빌어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심청이 허는 말이,
 “아까 내가 나올 때는 먼 산에 해가 아니 비쳤더니,
 벌써 해가 등실 떠
 그 새 반일⁵⁶⁰⁾이 되었구나.”
[자진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이고, 아버지. 칩긴들⁵⁶¹⁾ 오직허며, 시장킨들⁵⁶²⁾ 안 허리까?
 다순⁵⁶³⁾ 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 밥이요,
 저것은 팔밥이요.
 미역튀각,⁵⁶⁴⁾
 갈치, 자반,⁵⁶⁵⁾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드리라 허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찮게 잡수시오.”
 심봉사 기가 막혀,

I have no other way to serve my blind father.
I am here to beg for food.
Please eat a little less and give me some food.
Then, I can save my father in the cold room.”
After hearing her, ladies praise her.
They generously give her a bowl of rice, kimchi, and sauces.
Some ask her to eat with them.
Sim Cheong replies, “My father looks forward to me in the cold room.
How can I eat here?
I will go and eat with my father.”
She gets enough food from a couple of houses.
She speaks to herself, as she comes back home with food on her hands.
“When I left home, the sun was not on the distant mountain.
The sun is already in the sky.
The half of the day is already gone.”

[Jajinmori] Sim Cheong comes in.
She goes through the gate.
“Father, you must feel cold and hungry here.
I got a hot meal for you.
This is white rice.
That is rice mixed with red bean.
This is seaweed.
This is a hairtail.
A friend of mom gave me this food to bring it to you.
Please help yourself.”
Mr. Sim is dumfounded.

딸의 손을 끌어 입에 넣고 후후 불며,
“아이고, 내 딸 칩다⁵⁶⁶ 불 쪼어라.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내가 이 지경이 웬 일이냐?
너의 모친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17. (시비 따라) 무릉춘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을 부르자, 심청이 시비를 따라 건너간다.

[아니리] 그렇저렇 심청 나이 십오 세가 되어가니,
얼굴이 국색⁵⁶⁷이요,
효행⁵⁶⁸이 출천⁵⁶⁹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⁵⁷⁰ 낭자⁵⁷¹하니,
그때여 무릉춘 승상부인⁵⁷²이 시비⁵⁷³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것다.
심청이 부친전⁵⁷⁴ 여짜오되⁵⁷⁵
“아버지!”
“오야!”
“무릉춘 승상부인이 저를 다녀가라 하옵시니
어찌 하오리까?”
“아차, 잊었다.
그 댁 부인은 일국의 재상의 부인이시다.
너의 어머니 살아 생전에 참 별친⁵⁷⁶허게 지내셨는데,
내가 진즉⁵⁷⁷ 찾아가 뵈올 것을,
이제 찾도록 잊었구나.
네 오늘 건너가 아미⁵⁷⁸를 단정히 숙이고,

He pulls her hands to his mouth and blows on them.
“Daughter! Warm yourself up here.”
My life is cruel to go on.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 you.
We wouldn’t be like this if your mother were alive.”

17. (Following a Maid)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invites Sim Cheong. She follows a maid over to the village.

[Aniri] Somehow, Sim Cheong becomes fifteen.
She is the most beautiful in the country.
Her filial piety is great.
Words about her spread here and there.
One day,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ds a maid to invite Sim Cheong.
Sim Cheong asks her father.
“Father!”
“Yes!”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as invited me.
What should I do?”
“Oh, I forgot.
She was the wife of a minister in this country.
Your mom got along with her when she was alive.
I should have called on her.
I didn’t until she invited you now.
Go over and be courteous to her.”

묻는 말만 대답하고,
수이⁵⁷⁹⁾ 다너오렸다.”

[진양조] 시비 따라 건너간다.

무릉춘을 당도하여 승상택을 찾아가니,
좌편은 청송⁵⁸⁰⁾이요,
우편 녹죽⁵⁸¹⁾이라.

정하⁵⁸²⁾에 섰는 반송⁵⁸³⁾

광풍⁵⁸⁴⁾이 건듯⁵⁸⁵⁾ 불면 노룡⁵⁸⁶⁾이 굽니난 듯,⁵⁸⁷⁾

뜰 지키는 백두루미 사람 자취에⁵⁸⁸⁾ 일어나서

나래⁵⁸⁹⁾를 땅에다 지르르르르르르르 끝며, 뚜루루루루루 깎록,
징검징검⁵⁹⁰⁾ 알연성⁵⁹¹⁾이 기이허구나.⁵⁹²⁾

18. (심청 수양딸 거절) 장승상택 부인이 심청에게 수양딸 이 되어 줄 것을 청하지만, 심청은 거절한다.

[중중모리] 계상⁵⁹³⁾에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히여,⁵⁹⁴⁾

심청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좌⁵⁹⁵⁾를 주어 앉힌 후에,

“네가 분명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은지라.

무릉에⁵⁹⁶⁾ 내가 있고,

도화동 네가 나니,

무릉에 봄이 들어

도화동 개화⁵⁹⁷⁾로다.

Answer her questions politely.

And come back quickly.”

[Jinyang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They arrive in Paradise Village and in the noble lady's house.

On the left are pine trees.

On the right are green bamboos.

A low pine tree grows horizontally below a pavilion.

As a wind rages, it looks like an old dragon rising up.

A white crane in the yard stands up after hearing human sounds.

It drags its wings on the ground and cries.

As it strides, it makes queer sounds.

18. (Sim Cheong Declines the Proposal to be Adopted) **Sim Cheong declines the noble lady's proposal to be adopted.**

[Jungjungmori] Sim Cheong moves up on the stone steps.

The noble lady welcomes her.

She grabs Sim Cheong's hands and leads her to a room.

She offers a seat.

“Are you really Sim Cheong?

You are as beautiful as they say you are.

I am in Paradise Village.

You are in Peach Blossom Village.

Spring has come in Paradise Village.

Flowers bloom in Peach Blossom Village.

이 내 말을 들어봐라.

승상 일찍 기세허시고,⁵⁹⁸⁾

아들이 삼형제나

황성⁵⁹⁹⁾ 가 미환허고,⁶⁰⁰⁾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적한 빈 방안에 대하나니⁶⁰¹⁾ 촛불이요, 보는 것 고서⁶⁰²⁾로다.

네 처지를 생각허니,

양반의 후예로서 저렇듯 곤궁허니,

나의 수양딸⁶⁰³⁾이 되어 여공⁶⁰⁴⁾도 숭상허고, 문필⁶⁰⁵⁾도 학습허여

말년⁶⁰⁶⁾ 재미를 볼까 허니,

너의 뜻이 어떠허뇨?”⁶⁰⁷⁾

[아니레] 심청이 여짜오되, “모친 별세헌 연후,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겜 민사웁고,

소녀는 아버지를 모친 겜 민사와 대소사⁶⁰⁸⁾를 의논하고 지내오니,
분명 대답 못 허겠내다.”⁶⁰⁹⁾

부인이 칭찬허시고,

“기특타,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알 테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려무나.”

부인이 놓지 아니허시고 이야기로 벗 삼으실 제,

심청이 일어서며,

“추운 방 저의 부친 날 오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 가겠내다.”

부인이 허락허시고

비단과 양식을 후히⁶¹⁰⁾ 주어 시비 함께 보낸지라.

그 때여 심봉사는 적적한⁶¹¹⁾ 빈 방 안에서 딸 오기만 기다릴 제,

Listen to me, sweetheart.
 My husband died long time ago.
 I have three sons.
 They live in the capital city without coming back here.
 I have neither a young child nor a grandchild.
 All I have in this empty room is candlelights and old books.
 Let me see how you are.
 You are a descendent of the high class but poor.
 I propose that you be adopted to me, learn things a woman
 should know, and learn how to write.
 You will bring joy to my remaining life.
 What do you say?"

[Aniri] Sim Cheong replies, "After my mother died, my father
 relies on me like a son.
 I rely on him like my mother, discussing every matter with him.
 I can't give you a definite answer."
 The noble lady praises her.
 "How praiseworthy, my daughter.
 I will take you as my daughter.
 Please take me as your mother."
 She has a friendly conversation with her, not letting her go back
 home.
 Sim Cheong stands up.
 "My father is waiting for me in the cold room.
 I have to go now."
 The lady says it is okay.
 She gives her a lot of silks and food and has the maid follow
 her.
 Meanwhile, Mr. Sim waits for his daughter in the desolate room.

19. (심봉사 물에 빠짐) 딸의 귀가가 늦어지자, 심봉사가 딸을 찾으러 나가다가 개천에 빠진다.

[진양조]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방은 추워 한기⁶¹² 들 제,
먼 데 절 쇠북을 치니,
날 저문 줄을 짐작하고,
“어이허여 못 오느냐?
부인이 잡고 안 놓느냐?
길에 오다가 욕⁶¹³을 보느냐?
백설은 펄펄 훔날린디
후후 불고 앉었느냐?”
새만 푸르르르 날아들어도,
“내 딸 청이 청이 네 오느냐?”
낙엽만 버썩 떨어져도
심청인가 반기는구나.
아무리 불러도 적막공산⁶¹⁴의 인적⁶¹⁵이 끊쳤으니,
“내가 분명 속았구나.
이 일을 장차 어찌를 헐거나.”
자진복통⁶¹⁶으로 울음을 운다.
[자진모리] ‘이래서는 못 쓰겠다.’
닫은 방문 필쩍 열고, 지팡이 훌어 짚고,⁶¹⁷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면서,
“청아! 청이 네 오느냐?
어찌 이리 못 오느냐?”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면서,

19. (Mr. Sim Falls into a Stream.) Because Sim Cheong gets late, Mr. Sim goes out to meet her and falls into a stream.

[Jinyangjo] Mr. Sim is very hungry.

The room is cold.

A bell rings from a remote buddhist temple.

He thinks that it is dark.

“Why is she not coming?

Is the noble lady holding her?

Did she get into trouble on her way back home?

A heavy snow comes down now.

Is she blowing on her hands to warm them up?”

A bird flies, making a sound.

“Is my daughter, Cheong, coming?”

Leaves fall down.

He is glad, taking them to be Sim Cheong.

However hard he calls her, there is nobody on the quiet mountain.

“I was deceived.

What should I do now?”

He cries sadly.

[Jajinmori] ‘I shouldn’t just wait.’

Mr. Sim opens the closed door and grabs his cane.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Cheong! Are you coming?

Why aren’t you coming back?”

He moves forward unsteadily.

“청아!”

그때여 심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앓어 먹어노니,
도랑 출입⁽⁶¹⁸⁾이 서툴구나.

지팡이 홀어 짚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더듬 나가다가,
길 넘는⁽⁶¹⁹⁾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퐁.’
“어푸, 사람 살려!”

나오라면⁽⁶²⁰⁾ 미끄러져 퐁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퐁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무진무진⁽⁶²¹⁾ 들어간다.

심봉사 겁을 내어 일신⁽⁶²²⁾ 수족⁽⁶²³⁾을 벌벌벌 떨며,

“아이고, 도화동 심학규 죽네!

정신은 말끔헌디⁽⁶²⁴⁾ 숨도 못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구나!”

20. (심봉사 구출) 지나가던 중이 심봉사를 구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꼭 죽게가 되었을 제,

[엇모레]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저 중이 어디 중인가?

몽은사 화주승⁽⁶²⁵⁾이라.

절을 중창⁽⁶²⁶⁾허랴 허고 시주집⁽⁶²⁷⁾ 내려왔다

날이 우연히 저물어져,

서산에 빗긴⁽⁶²⁸⁾ 길로 급급히⁽⁶²⁹⁾ 올라갈 제,

저 중의 차림 보소.

“Cheong!”

Mr. Sim has stayed home for long time thanks to his daughter.

He is awkward in crossing a stream.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He takes a false step and slides into a deep stream upside down.

“Help! Help me!”

He pushes himself up but slides back down.

He attempts to get out but goes down ceaselessly.

He tries to get up but falls back in.

Mr. Sim, frightened, trembles his arms and legs.

“Help! Sim Hak-gyu of Peach Blossom Village is drowning!

I can think clearly but can’t breathe.

I might die without bleeding.”

20. (The Rescue of Mr. Sim) A buddhist monk passing by rescues Mr. Sim.

[Aniri] It seems that Mr. Sim is sure to die.

[Eotmori] A buddhist monk goes up a mountain.

Who is that monk?

He is a monk from Mongeun Temple in charge of donation affairs.

He solicited donations in the village to reconstruct his old temple.

It’s getting dark.

The monk goes up fast on the oblique road on the west mountain.

Behold his costume!

저 중의 호사⁽⁶³⁰⁾ 보소.
 굴갓⁽⁶³¹⁾ 쓰고, 장삼⁽⁶³²⁾ 입고,
 백팔염주⁽⁶³³⁾ 목에 걸고, 단주⁽⁶³⁴⁾ 팔에 걸고,
 용두⁽⁶³⁵⁾ 새긴 육환장⁽⁶³⁶⁾
 쇠고리 많이 달아 처절철⁽⁶³⁷⁾ 툭툭 쥔고,
 흔들 흔들 흐늘거리고⁽⁶³⁸⁾ 올라갈 제,
 원산⁽⁶³⁹⁾은 암암⁽⁶⁴⁰⁾허고,
 설월⁽⁶⁴¹⁾이 돌아오는데,
 백저포⁽⁶⁴²⁾ 장삼⁽⁶⁴³⁾은 바람결에 펄렁 펄렁,
 염불하고 올라간다.
 중이라 허는 게 절에서도 염불⁽⁶⁴⁴⁾이요, 속가⁽⁶⁴⁵⁾에서도 염불.
 염불하고 올라간다.
 “아 아아 헤 헤헤헤헤 으 아 아~.
 상래소수공덕해 회향삼천실원만.⁽⁶⁴⁶⁾
 원왕생⁽⁶⁴⁷⁾ 원왕생,
 제궁중실각안녕⁽⁶⁴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⁶⁴⁹⁾허고 올라갈 제,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울음소리 귀에 언뜻⁽⁶⁵⁰⁾ 들린다.
 저 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마외역⁽⁶⁵¹⁾ 저문 날에 하소대⁽⁶⁵²⁾로 울고 가던 양태진⁽⁶⁵³⁾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여우가 변화허여⁽⁶⁵⁴⁾ 날 홀리란⁽⁶⁵⁵⁾ 울음인가?
 이 울음이 웬 울음?”

Look at his fabulous costume.
 He wears a cylindrical hat and a hemp coat.
 He has strings of 108 beads on his neck and 8 beads on his arm.
 He carries a cane on which the head of a dragon is carved.
 Six iron rings dangling from it make sounds.
 He moves his body left and right as he goes up.
 A remote mountain is dark.
 The moon rises over the snow.
 His white ramie coat flutters in the wind.
 He chants a prayer, as he goes up.
 A monk is supposed to chant a prayer in and out of a temple.
 He chants as he goes up.
 "Oh, oh, oh!
 May Buddha's grace extend to everything in the world!
 I wish I will be reborn in heaven.
 I wish the royal family is happy.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The monk chants a prayer as he goes up.
 He monk arrives at a certain place.
 He hears a faint crying sound.
 He is surprised.
 "What is this cry?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an ancient beautiful woman on the way to a pavilion at the sunset to die?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fox which intends to bewitch me?
 What is this cry?"

죽장⁽⁶⁵⁶⁾을 드러메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⁶⁵⁷⁾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늘,
 저 중의 급한 마음, 저 중의 급한 마음,
 굴갓 장삼 훨훨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행진, 다님⁽⁶⁵⁸⁾ 끄르고,
 버선을 얼른 벗고,
 고두누비⁽⁶⁵⁹⁾ 바지 가래⁽⁶⁶⁰⁾ 도리돌⁽⁶⁶¹⁾ 똥똥⁽⁶⁶²⁾ 말아 자개미⁽⁶⁶³⁾ 딱 붙
 이고,
 무논⁽⁶⁶⁴⁾에 백로 격으로⁽⁶⁶⁵⁾ 징검⁽⁶⁶⁶⁾ 징검 징검거리서 들어가,
 심봉사 고드레상투⁽⁶⁶⁷⁾ 에뚜루미쳐,⁽⁶⁶⁸⁾ 건져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심봉사라.

21. (공양미 시주 약속) 눈을 뜨고 싶은 마음에 공양미 삼 백 석을 시주하기로 약속한 심봉사는 중이 떠난 뒤 후 회한다.

[아니래] 심봉사 겨우 정신 차려,
 “거 뉘가 날 살렸소?”
 “예. 소승⁽⁶⁶⁹⁾은 몽은사 화주승이온데,
 시주집⁽⁶⁷⁰⁾ 내려왔다 절을 찾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하였나이다.”
 “허허, 활인지불⁽⁶⁷¹⁾이로고.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⁶⁷²⁾이오.”
 저 중이 허는 말이, “그런디 심봉사님. 거 좋은 수⁽⁶⁷³⁾가 있습니다마는.”

He pulls his bamboo cane on his shoulder.
He looks around and at a certain place.
A man has fallen into a stream and is about to die.
The monk feels unsettled and disturbed.
He takes off his hat and coat, and throws them around.
He unties his ankle bands.
He takes off socks quickly.
He pulls up his cotton trousers up to the crook of the knee.
He strides on a rice paddy filled with water like a white heron.
He grabs his topknot and gets him out of the water.
He learns that it is Mr. Sim whom he knows.

21. (The Promise to Donate Rice to Mongeun Temple)
Mr. Sim promises to donate 300 bags rice to
Mongeun Temple to open his eyes, but he regrets
after the monk left.

[Aniri] Mr. Sim manages to come to himself.
“Who saved me?”
“Yes, I am a monk from Mongeun Temple.
I was soliciting donations and was on my way back to the temple.
Luckily, I saved you.”
“Oh, it is said that Buddha saves people.
Because you saved me, you have my eternal gratitude.”
The monks says, “By the way, Mr. Sim, I have a good idea.”

“수는 무슨 수꼬?”⁶⁷⁴⁾

“우리 절 부처님이 영검⁶⁷⁵⁾이 많사와

빌면 아니 될 일이 없고,

구하면 다 응하오니,⁶⁷⁶⁾

공양미⁶⁷⁷⁾ 삼백 석만 저희 절 부처님전에 시주하면 심봉사님 눈을
꼭 뜨오리다마는.”

“아니, 뭇이 어찌?”

“예. 뜨옵지요.”

“예끼!⁶⁷⁸⁾ 순!⁶⁷⁹⁾

원, 남녀간에 거짓말 잘하는 것 비위⁶⁸⁰⁾에 마땅찮드라.”

“아니올시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소승으로 어찌 허언⁶⁸¹⁾을 하오리까?”

“아, 그래, 꼭 뜬다?”

“예, 뜨옵지요.”

심봉사는 눈뜬단 말이 어찌 반가워,

“여, 대사. 대사 말이 정녕⁶⁸²⁾ 그럴진대

공양미 삼백 석을 권선⁶⁸³⁾에 기재⁶⁸⁴⁾허오.”

저 중이 어이없어,

“글쎄올시다. 심봉사님 가세⁶⁸⁵⁾를 헤아리면,

삼백 석은커녕 단 삼백 석이 없는 이가

거, 어쩔라고 그러시오?”

“아니, 뭇이 어찌고 어찌?

아니 자네가 남의 살림 속⁶⁸⁶⁾을 어찌 알아서 허는 말이여?

칼부림⁶⁸⁷⁾ 나기 전에 썩 적어!”

“예, 적지요.

그런디 심봉사님. 부처님전 허언⁶⁸⁸⁾을 하게 되면 도리어 앓은뱅이가
될 것이니, 부디 명심하오.”

“What idea do you have?”

“Buddha in my temple can work out a miracle.

Any request is responded to.

Any wish can be fulfilled.

If you donate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you will gain sight within three years.”

“Uh? What did you say?”

“You will open your eyes.”

“How dare you!

I hate people when they tell a lie.”

“Trust me. How can I say an empty word when I am serving Buddha?”

“Are you sure I will open my eyes?”

“Yes, you will open your eyes.”

Mr. Sim is very glad to hear about opening his eyes.

“Hey, monk. I trust what you said.

Write down 300 bags of rice on your donation roster.”

The monk is dumfounded.

“Well, Mr. Sim, look at what you’ve got.

You don’t have a handful of rice, to say nothing of 300 bags.

How can you handle the consequence?”

“What on earth did you say?

What makes you think that you know about what I have?

Write as I told you before I wield a sword!”

“Okay. I’ll write down.

By the way, Mr. Sim, keep in mind that if you tell a lie to Buddha, you will be crippled.”

“아, 그는 염려 말어!”

공양미 삼백 석을 내월⁽⁶⁸⁹⁾ 십오일까지 바치기로 권선에 기재하여 중
을 보내놓고,

심봉사 집으로 돌아와 꼼꼼히 생각하니

이런 실없는⁽⁶⁹⁰⁾ 일이 없구나.

[중모레] “허허, 내가 미쳤구나.

정녕 내가 사⁽⁶⁹¹⁾들렸네.

공양미 삼백 석을 내가 어이 구할 거나?

살림을 팔자헌들 단돈⁽⁶⁹²⁾ 열 냥 누가 주며,

내 몸을 팔자헌들 앞 못 보는 봉사놈을 단돈 서푼을 누가 주리?

부처님을 속이면은 앓은뱅이가 된다는디,

앞 못 보는 봉사놈이 앓은뱅이마저 되고보면,

끔짝 없이 내가 죽겠구나.

수중고혼⁽⁶⁹³⁾이 될지라도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을,

공연한 중을 만나 도리어 내가 후회로구나.

저기 가는 대사!

나 아무 것도 없네.

공양미 삼백 석 에우고⁽⁶⁹⁴⁾ 가소! 대사! 대사!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딸이 이 말을 듣고 보면 복통자진을 헐 것이니,

이 일을 장차 어쩔그나?”

실성발광⁽⁶⁹⁵⁾ 기가 막혀 홀로 앓아 탄식을 허는구나.

“Oh, don’t worry about that!”

He parts with the monk after having him write down on the roster that he will donate 300 bags of rice by 15th of next month. Mr. Sim comes back home and reflects on what he did. He thinks he have committed a stupid promise.

[Jungmori] “Gosh, I was out of my mind.

A bad spirit was in me.

How can I get 300 bags of rice?

My properties are worth less than ten dollars.

Even if I sell my body, it is worth less than a few dollars because I am blind.

If you deceive Buddha, you will be crippled.

I will be crippled when I am already blind.

I will surely die.

I should have died in the stream.

I met the monk by chance, and now regret what I did.

Hey, monk there!

I’ve got nothing.

Erase my name on the donation roster! Monk! Monk!

Oh God! My fate is sad!

If my daughter hears this, she will bewail hard.

What should I do?”

Feeling uneasy and dumbfound, he laments alone.

22. (심청 위로) 심청이 돌아 와서 사정을 듣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자진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저의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라 발 구르며,

“아버지,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살 없는 두 귀 밑에 눈물 흔적 웬 일이며,

숨 없는 흰 의복에 물 흔적이 웬 일이요?

나를 찾아 나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이 지경을 당하셨소?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하여 어언간⁶⁹⁶ 더디었소.

말씀이나 하여 주오.

답답하여 못 살겠소.”

[아니리] 심봉사 공연한 일을 저질러 놓고

먼저 화를 내겠다.

“어라, 어라,⁶⁹⁷ 어라, 어라.

너 알아 쓸 데 없는 일.

그리고 오늘부터 네 애비 아니다.”

심청이 이 말 듣더니 깜짝 놀라,

[중모리] “아버지 이게 웬 말씀이요?

모친 별세한 연후에 아버지는 소녀를 아들 겸 믿사옵고,

소녀는 아버지를 모친 겸 민사와

대소사⁶⁹⁸를 의논터니,

오늘 말씀이, 너 알아 쓸 데 없다 하시니,

아무리 불효여식⁶⁹⁹인들 마음이 썩소이다.”⁷⁰⁰

홀쩍 홀쩍 울음을 우니,

[아니리] 심봉사 기가막혀 “원, 이 자식아.

22. (Sim Cheong's Consolation) Sim Cheong comes back, listens to the story, and consoles her father.

[Jajinmori] Sim Cheong comes in.
She goes through the door.
She sees her father, gets surprised, and stamps.
“Father! What happened?
Why are there traces of tears below your thin earlobes?
Why are there traces of water on your old clothes?
Did you go out to meet me and fall into the stream?
I am late because the noble lady held me.
Please talk to me.
I am anxious to know.”

[Aniri] Mr. Sim made a stupid promise himself.
But he gets angry at her.
“No, no, no.
You don't need to know.
I am not your father from now on.”
Sim Cheong is surprised to hear this.

[Jungmori] “Father, what are you saying?
After mom died, you trust me as if I were your son.
I trust you as if you were mom.
You always consulted matters with me.
But today you said I don't have to know.
I am sad even if I am a bad daughter.”
She weeps, making sounds.

[Aniri] Mr. Sim is stunned. “Oh, sweetheart.

내가 너를 무슨 일을 속이라마는,
 아, 네가 승상택에 간 뒤로 천상⁷⁰¹ 기다려도 와야제!⁷⁰²
 기다리다 못하여 너를 찾아 나가다가
 개천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제,
 때마침 몽은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놓고.”
 “아이고, 아버지, 몽은사 화주승이 아버님을 살려주셨으니,
 그런 감사할 도리가 어디가 있단 말씀이오?”
 “오, 내 말을 들어봐.
 오, 그놈이 나를 건져놓고 그대로 갔으면 고맙제.
 아, 그런데 그놈이 나를 살살 꼬여낸디⁷⁰³ 말이다.
 공양미 삼백 석만 저희 절 부처님께 시주하면 이 어둔 눈이 떠진다고로,
 아, 눈 뜬단 말이 어찌 반가와,
 후사⁷⁰⁴는 생각지 않고 공양미 삼백 석을 내월 십오일까지 몽은사로
 바치기로 권선에 기재했으니,
 백계무책⁷⁰⁵이로구나.”
 심청이 이 말 듣더니 부친을 위로하거다.
[중모리] “아버지 듣조시오.⁷⁰⁶
 왕상⁷⁰⁷은 고빙⁷⁰⁸허여
 얼음 궁기⁷⁰⁹ 잉어 받고,
 맹종⁷¹⁰은 읍죽⁷¹¹허여
 눈 속의 죽순⁷¹² 얻어 사친성효⁷¹³ 허여 있고,
 광거⁷¹⁴라는 옛 사람도 부모 반찬 허여노면⁷¹⁵
 제 자식이 먹는다고,
 산 자식을 묻으려고 땅을 파다
 금을 얻어 부모 봉양을 하였으니,

How could I hold something back from you?
 After you went to the noble lady's house, I waited for you in
 vain.
 I couldn't wait for you here, so I got out.
 I fell into a stream in front of our house.
 I was about to die.
 A buddhist monk from Mongeun Temple saved me."
 "Oh, the monk from Mongeun Temple saved you.
 How grateful we are to him!"
 "Oh, hear me out.
 I would be grateful to him if he just left after saving me.
 But he seduced me into doing something.
 He told me that I would open my eyes if I donate 300 bags
 of rice to his temple.
 I was glad about opening my eyes.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I wrote down on the
 donation roaster that I would donate the rice to the temple by
 15th of next month.
 I can't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problem."
 After hearing him, she consoles him.
[Jungmori] "Father, listen.
 An ancient man knocked ice.
 Two carps came out for his step mother.
 Another ancient man cried on a bamboo grove.
 Bamboo sprouts rose up in snow for his old mother.
 Another ancient man provided food for his parents.
 But his child ate it.
 He dug the ground to bury his child.
 He found gold and supported his parents.

사친지효도⁷¹⁶)가 옛 사람만 못할망정,

지성이면 감천⁷¹⁷)이라

깊이 근심을 마옵소서.”

[중모레] 심봉사 좋아라고

“원, 이 자식아, 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느냐?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죄다 배워가지고 나왔구나.”

이렇듯 부친을 위로하고,

심청이 그날부터 목욕재계⁷¹⁸) 정히⁷¹⁹) 허고 지극⁷²⁰) 신공⁷²¹)을 드리

는디,

23. (심청 치성) 심청이 자신을 살 사람이 나타나기를 빈다.

[진양조] 후원에 단⁷²²)을 못고⁷²³)

북두칠성 자야반에⁷²⁴)

촛불을 돋오 켜고,⁷²⁵)

새 사발에 정화수⁷²⁶)를 떠서 소반⁷²⁷) 우에다 받쳐놓고,

두 손 합장⁷²⁸) 무릎을 꿇고,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나님전에 비나니다.

천지지신⁷²⁹)

일월성신⁷³⁰)

화위동심⁷³¹) 허옵소서.

하느님의 일월⁷³²) 두심이 사람의 안목이라,⁷³³)

일월이 떨어지면 무삼⁷³⁴) 분별을 허오리까?

무자생⁷³⁵) 소경 아버 이십 후 안맹허여⁷³⁶) 시물⁷³⁷)을 못하오니,

아버의 허물을 심청 몸으로 대신허여

I am not as good as the ancient people.

But wholeheartedness moves heaven.

So don't worry."

[Jungmori] Mr. Sim is joyous.

"Oh, sweetheart! Where did you learn those scholarly words?

You must have learned all of them in your mother's womb."

She consoles her father.

From that day on, she cleans her body and prays conscientiously.

23. (Sim Cheong Prays) Sim Cheong prays so that somebody shows up to buy her.

[Jinyangjo] Sim Cheong builds up an altar in the backyard.

It is deep night with the Great Bear.

She turns on a candlelight.

She places a bowl of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She holds hands together and kneels down.

"I pray. I pray. I pray to God.

All gods in heaven and the earth,

the sun, the moon, and stars,

please share the same feeling.

God created the sun and the moon so that we can see things.

If they fall down, how can we see things?

My father became blind after twenty and can't see things.

I will replace his fault with my body.

부친 눈을 밝히소서!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⁷³⁸)하면 정녕⁷³⁹) 눈을 뜬다하니,
명천⁷⁴⁰)이 감동하여
공양미 삼백 석을 지급하여 주옵소서.”

**24. (남경선인) 심청은 남경선인들에게 몸을 판 후, 부친
에게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고 속이고 행선날을 기다
린다.**

[아니리] 이렇듯 빌어갈 제,

[중중모리] 하루는 문 밖에 웨는⁷⁴¹) 소리,

“우리는 남경 장사 선인⁷⁴²)으로,

인당수⁷⁴³) 인제수⁷⁴⁴)를 드리고저

십오 세나 십육 세나 먹은 처녀를 사라하니,⁷⁴⁵)

몸 팔 이 뉘 있습나?⁷⁴⁶)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하시오. 이이이~ 어.”

이렇듯 웨는 소리 원근산천⁷⁴⁷)이 평그렇게⁷⁴⁸) 들린다.

[아니리] 심청이 이 말 듣고 천우신조⁷⁴⁹)로 생각하고,

동리⁷⁵⁰) 사람도 모르게 도사공⁷⁵¹)을 청해 들여,

“나는 이 마을 사람으로,

부친이 안맹하여

공양미 삼백 석만 불전에 시주하면 정녕 눈을 뜬다하오나,

가세⁷⁵²)가 극빈⁷⁵³)하여 내 몸을 팔자하니,

나를 사가심이 어떠하오?”

선인들이 좋아라고,

Please make my father's eyes bright.
If 300 bags of rice are donated to Buddha, my father will open
his eyes.
All-knowing heaven, please be moved.
Please grant me 300 bags of rice."

**24.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Sim
Cheong sells herself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Chinese. After telling a lie to her father that she
is adopted by the noble lady, she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Aniri] Sim Cheong prays to gods.
[Jungjungmori] One day, there are shouts outside the gate.
"We are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In order to offer a human sacrifice to Indang Water,
we want to buy a fifteen or sixteen year old virgin.
Is there anybody to sell herself?
If there is, please answer us."
The loud shouts tremble close and distant mountains.
[Aniri] Hearing the shouts, Sim Cheong thinks that heaven is
helping her.
She invites the leader into her house without being noticed to
villagers.
"I live in this village.
My father is blind.
If 300 bags of rice are donated to Buddha, he will open his eyes.
But we are poor, so I want to sell myself.
Why don't you buy me?"
The sailors are delighted.

“출천대효⁷⁵⁴)로고!

공양미 삼백 석은 염려 마오.

그런디 우리 행선날⁷⁵⁵)이 내월⁷⁵⁶) 십오일인디,

떠나가잔 날 가겠소?”

“중값⁷⁵⁷) 받고 팔린 몸이

내 뜻대로 하오리까?

그는 염려 마옵소서.”

이렇듯 선인들과 단단 약조⁷⁵⁸) 후

선인들을 보내놓고 심청이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오야.”⁷⁵⁹)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렸으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래,

“아니, 네가 어떻게 해서 공양미 삼백 석을 올렸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전일⁷⁶⁰) 승상택에 갔을 때 부인이 저를 수양딸⁷⁶¹)로 정하신다 하신
것을 분명 대답 못허고 왔었지요.

제가 오늘 건너가 아버님의 사정을 여쭙니,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리면서,

저를 수양딸로 다려간다⁷⁶²) 허옵디다.”

“야, 그 일 잘 되었다.

그 부인에게 수양딸로 가는 거야 어느 놈이 날 딸 팔아먹었다고 정
개⁷⁶³)허겼느냐?

그 일 잘 되었다.

그러면 언제 다려간다 하시드냐?”

“You are a good daughter.
Don’t worry about 300 bags of rice.
By the way, our departure date is 15th of next month.
Can you come with us on that date?”
“I am sold at a high price.
How can I not follow you?”
Don’t worry about that.”
She makes a firm promise to the sailors.
After saying goodbye to the sailors, she goes back into the room.
“Father!”
“Yes.”
“I sent 300 bags of rice to Mongeung Temple.
So don’t worry.”
Mr. Sim is surprised.
“What? How did you get 300 bags of rice?”
“Let me explain.
I did not give a definite answer to the noble lady’s proposal that
I be adopted to her.
Today I went over and told her about your problem.
She said she would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and take me as an adopted daughter.”
“Honey, that’s great.
If you are adopted to the nobly lady, nobody will blame me
for having sold my daughter.
That’s great.
When are you leaving for her house?”

“내월⁷⁶⁴ 십오일날 다려간다 허옵디다.”

“거, 날도 잘 받았다.

보름달 달도 밝고, 잘 되었다.

그런디 청아! 거, 나는 어쩐다 허시더냐?”

“아버님도 모셔간다 하옵디다.”

“그럴 것이다.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 눈 먼 나 하나만 이곳에다 두겼느냐?

잘 되었다.

그런디, 너는 가마⁷⁶⁵ 태워 갈 것이다마는,

나는 무얼 타고 갈꼬?

오, 나는 저 김순장택⁷⁶⁶ 꺼명⁷⁶⁷ 암소라도 타고 가지.”

심청같은 효성으로 부친을 어이 속일 리 있으리오마는,

속이는 것 또한 효성이라.

이렇듯 부친을 속여 놓고

심청이 그날그날 지내갈 제,

하루는 문득 생각하니 행선날⁷⁶⁸이 하룻밤이 격한지라.⁷⁶⁹

25. (행선 전야) 심청이 부친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며 탄식한다.

[진양조]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결⁷⁷⁰허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막막하여,⁷⁷¹

하염없는⁷⁷² 설움이 간장⁷⁷³에서 솟아난다.

부친의 사시⁷⁷⁴ 의복 빨래하여 놓⁷⁷⁵ 안에 넣어두고,

갓 망건⁷⁷⁶ 다시 꾸며 쓰기 쉽게 걸어놓고,

모친 분묘⁷⁷⁷ 찾아가서 주과포혜⁷⁷⁸ 차려놓고

“I am leaving on 15th of next month.”
 “The date is great.
 There will be a full moon.
 By the way, Cheong, what will become of me?”
 “They will take you there too.”
 “That’s what I thought.
 Given she is who she is, she wouldn’t leave me alone here.
 That’s great.
 By the way, you will go there on a carriage.
 On what will I go there?
 Oh, let me go there on Mr. Kim’s black cow.”
 Filial piety would have stopped her from telling a lie to her
 father.
 But she did it also out of filial piety.
 She told a lie to her father.
 She spends day by day.
 One day, she realizes that only one night remains before the
 departure date.

25. (Eve of Departure Date) Sim Cheong sighs, thinking about parting with her father.

[Jinyangjo] Sim Cheong thinks about parting with her blind old
 father for good,
 She feels gloomy.
 Ceaseless sorrow wells up in her mind.
 She cleans her father’s clothes and puts them in a wardrobe.
 She mends his hat and headband and hangs them in a handy place.
 She visits her mother’s tomb and lays out some food.

분향사배⁷⁷⁹⁾ 통곡을 한다.

“아이고, 어머니! 불효여식⁷⁸⁰⁾ 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제수⁷⁸¹⁾로 가게 되니,
불쌍헌 아버지를 차마 어이 잊고 가며,
연년이⁷⁸²⁾ 오난 기일⁷⁸³⁾ 뉘라서 받드리까?
분묘에 둔 풀은 뉘 손으로 별초⁷⁸⁴⁾허리?
내 손으로 부은 술을 망중⁷⁸⁵⁾ 흠향⁷⁸⁶⁾ 허읍소서.”
사배⁷⁸⁷⁾ 하직허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 진지 올린 후에,
밤 적적⁷⁸⁸⁾ 삼경⁷⁸⁹⁾이 되니,
부친은 잠이 들어 아무런 줄을 모르는구나.
잠이 깰까 염려가 되어 크게 울든⁷⁹⁰⁾ 못허고,
속으로 느끼난디,⁷⁹¹⁾

‘아이고, 아버지!

날 볼 날이 몇 날이며, 날 볼 밤이 몇 밤이나 되오?
제가 철⁷⁹²⁾을 안 연후에 밥 빌기를 놓았더니마는,
내일부터는 동리 걸인이 또 될 것이니,
아버지를 어찌고 갈꼬?
오늘 밤 오경시⁷⁹³⁾를 함지에⁷⁹⁴⁾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돋는 해는 부상⁷⁹⁵⁾에다 매량이면,⁷⁹⁶⁾
불쌍허신 우리 부친 일시라도 더 모시련만,
인력으로 어이 허리!’
천지가 사정이 없어
벌써 닭이 울음 우니,
“닭아, 우지 마라.

She gives four big bows and cries.
“Hello, mother! I am a bad daughter.
I sold myself for 300 bags of rice to open my father’s eyes.
I will be used as a sacrifice during a ritual.
How could I forget my poor father?
Who will hold the annual ritual for you?
Who will cut the grass on your tomb?
Please help yourself to this last wine I can give to you.”
She gives four big bows and comes back home.
She serves a meal to her father.
It is quiet and deep into the night
Her father sleeps without knowing anything.
Afraid that he might wake up, she can’t cry aloud.
She only weeps in her mind.
‘Alas, Father!
How many days and nights do we have to be together?
After I became mentally mature, I begged around instead of you.
You will be the beggar of the village again tomorrow.
How can I leave my father?
If I can stop the flow of time,
and if I can hold the rising sun down,
then I can serve my father more,
but how could I do that?’
Time is ruthless.
A rooster already cries.
“Rooster, don’t cry.

반야⁷⁹⁷) 진관⁷⁹⁸)의 맹상군⁷⁹⁹)이 아니로구나.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은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싫잖으나,

의지 없는 우리 부친

차마 어찌 잊고 가잔 말이냐?”

[중모레] “하량낙일수운기⁸⁰⁰)는 소통국⁸⁰¹)의 모자 이별,⁸⁰²)

정객관산노기중⁸⁰³)에 오희월녀⁸⁰⁴) 부부 이별,

편삼수유소일인⁸⁰⁵)은 산동⁸⁰⁶)의 형제 이별,

서출양관무고인⁸⁰⁷)은 위성조우⁸⁰⁸) 봉우 이별,⁸⁰⁹)

이런 이별 있건마는

소식 들을 날이 있고, 상봉⁸¹⁰)할 날이 있건마는,

우리 부녀 이별이야 어느 때나 다시 볼꼬?”

26. (심봉사 만류) 심청이 사실을 고하자 심봉사는 죽기로 작정하며 만류한다.

[아니레] 동방⁸¹¹)이 점점 밝어지니,

심청이 눈물 섞어 밥을 지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어서 일어나 진지 잡수시오.”

“오냐. 거, 오늘 아침밥은 별로⁸¹²) 일쿠냐.”⁸¹³)

부녀친륜⁸¹⁴)이라

어찌 몽조⁸¹⁵)가 없을쏘냐?

“여봐라, 청아! 간밤에 내가 묘한 꿈을 꾸었다.

I am not the ancient man your cry once saved at night.
If you cry, the day breaks.
If the day breaks, I die.
I don't mind my dying.
But my father has nobody to turn to.
How can I forget and leave him?"

[Jungmori] "A son parted with his mother on a bridge in the evening.

Wives were separated from their husbands in the battlefield.
A man missed his separated brother while looking at flowers.
A man couldn't see his parted friend in a castle.
There were such farewells.
They had the day to hear from and meet each other.
But when will I meet my father again?"

26. (Mr. Sim's Deterrence) Sim Cheong tells the truth to Mr. Sim. He frantically deters her from going.

[Aniri] As the sun begins to rise in the east,
Sim Cheong makes breakfast in tears.
She carries the meal table into the room.
"Father, please sit up and eat this meal."
"Honey, we have a very early breakfast today."
Given that father-daughter relationship is from heaven,
there is sure to be a foreboding dream.
"Sweetheart, I had a strange dream last night.

내가 꿈을 꾸니, 네가 수레를 타고 갓없는⁸¹⁶⁾ 바다를 한없이 가 보이
더구나.

그래 내가 울고불고 뛰고 야단을 쳤제.

소스라쳐 잠을 깨어 내 손수 해몽을 해보았지야.

거, 수레라 허는 것은 귀인⁸¹⁷⁾이 타는 것이여.

그래 오늘 승상택에서 딸 데려간다고 가마 보낼 꿈이고,

또한 내가 울고불고 어찌고 헨 것은,

꿈에 눈물은 생시에 술이란 말이다.

그러니 오늘 술에다 떡에다 잘 먹을 꿈 아니냐?”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아나,

“아버지, 그 꿈 장히⁸¹⁸⁾ 좋습니다.”

“좋고 말고야.

어라,⁸¹⁹⁾ 어라, 상 물려라.⁸²⁰⁾

그 댁에 가서 잘 먹자.

오늘 딸 데려온다고 산적⁸²¹⁾ 볶고, ‘피시피시’ 야단났을 것이다.

그 댁에 가서 잘 먹자.

거, 음식이라는 것은 잘 먹어야 생색⁸²²⁾나느니라.”

심청이 하릴없이 진짓상 물린 후에

사당에 들어가 사배⁸²³⁾ 하직헌 연후에,

심청이 방문 앞에 서서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제는 부친을 더 속일 수 없는지라.

[자진모리] 심청이 거동⁸²⁴⁾ 보라.

부친 앞으로 우루루루루루.

“아이고, 아부지!”

한 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심봉사 깜짝 놀래,

In the dream, you were going to a vast sea ceaselessly on a coach.

I grabbed you frantically in tears.

I woke up in surprise and interpreted the dream.

Only a noble person can be on a coach.

The dream means that the noble lady will take you to her house on a carriage.

I grabbed you frantically in tears in the dream.

Tears in dream mean wine in reality.

So I will help myself with wine and rice cake today.”

Sim Cheong knows that his dream is about her death.

“Father, your dream is very good.”

“Yes, it is great.

Honey, clear away the meal table.

Let’s eat a lot in the noble lady’s house.

They would make a fuss, frying vegetables and meat to receive you.

Let’s eat at her house.

You should help yourself to gain confidence.”

Sim Cheong can’t help from taking the meal table back to kitchen.

She enters the ancestral shrine and gives farewell bows.

She stands in front of the room.

She now thinks that she can’t deceive her father anymore.

[Jajinmori] Behold Sim Cheong.

She runs to her father.

“Oh, father!”

She calls her father and passes out without saying anything.

Mr. Sim is petrified.

“아니, 애가? 악아, 어쩐 일이냐?
 아니, 애가 아침 반찬이 좋더니,
 뭘 먹고 채했느냐?⁸²⁵⁾
 에이? 말하여라!
 아니, 어느 놈이 봉사 딸이라고 정개⁸²⁶⁾허더냐?
 말하여라! 말하여라!”
 “아이고, 아버지!”
 “오냐. 거 어쩐 일이냐?”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를 주오리까?”
 “오, 공양미 삼백 석 말이로구나.
 아, 그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권선에 에우고⁸²⁷⁾ 오면 될 것인데,
 아, 애비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헨단 말이냐?”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오늘이 행선날⁸²⁸⁾이오니
 저를 망중⁸²⁹⁾ 보옵소서!”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뭣이 어찌고 어찌?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뭘, 몸이 팔렸어?
 아니, 애가, 허허!”
[중중모리] “허허, 이것이 웬 말이냐? 이것이 웬 말이여?
 애비보고⁸³⁰⁾ 문도⁸³¹⁾ 앓고 네 맘대로 하단 말가?⁸³²⁾
 못 하지야! 못 허여!
 눈을 팔아 너를 살데,⁸³³⁾
 너 팔아 눈을 뜨면 뉘를 보라 눈을 떠야?⁸³⁴⁾
 철⁸³⁵⁾ 모르는 이 자식아,
 애비 설움 네 들어라.
 너의 모친 너 낳고 칠일 안에 죽은 후에,

“What is going on, sweetheart?
The breakfast was gorgeous.
Do you have an upset stomach?
Uh? Tell me!
Did anybody despise you because you are a daughter of a blind man?
Speak to me!”
“Alas! Father!”
“Yes, what’s going on?”
“Who would give me 300 bags of rice?”
“Oh, you are talking about 300 bags of rice.
I can cancel my promise to donate the rice now.
You don’t need to surprise your father with that problem.”
“I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Today is the departure date.
This is the last time you can see me!”
After hearing her, Mr. Sim is at a loss what to do.
“What on earth did you say?
Were you sold to sailors at 300 bags of rice?
I can’t believe this!”

[Jungjungmori] “What? What on earth did you say?
How could you sell yourself without asking me?
No way! No way!
I would rather sell my eyes to buy you.
What would I see if you sell yourself to open my eyes?
My thoughtless child!
Listen to your father’s sorrow.
Your mother died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앞 못 보는 늙은 애비가 품안에다 너를 안고 이집 저집을 다니며,
 동냥 젓 얻어 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어 이만큼이나 장성,⁸³⁶⁾
 목은 근심, 헛근심⁸³⁷⁾을 널로 허여⁸³⁸⁾ 잊었더니,
 네가 이것이 웬 일이냐?”
 벌써 선인들은 문전에 늘어서,
 “심낭자, 물때⁸³⁹⁾ 늦어가요!”
 성화같이⁸⁴⁰⁾ 재촉하니,
 심봉사 기가막혀 밖으로 우루루루.
 그 자리에 었더져,⁸⁴¹⁾
 “네 무지한⁸⁴²⁾ 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다 제 지낸 데 어디서 보았느냐?
 옛 말을 못 들었나?
 칠년대한⁸⁴³⁾ 가물 적에 사람 잡아 제 지낼 제,
 탕임금⁸⁴⁴⁾ 어진 마음 전조단발 신영백모⁸⁴⁵⁾ 상림뜰에⁸⁴⁶⁾ 빌었더니,
 대우방수천리⁸⁴⁷⁾나 풍년이 들었단다.
 사람 잡아 빌 양이면 내 몸으로 대신 가마!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 뜨기도 내사 싫다.”
 내리둥굴⁸⁴⁸⁾ 치둥굴며⁸⁴⁹⁾
 죽기로만 작정할 적에,
 심청이 기가 막혀 우는 부친 부여안고,
 “아이고 아버지!
 지중한⁸⁵⁰⁾ 부녀천륜⁸⁵¹⁾ 끊고 싶어 끊사오며,
 죽고 싶어 죽사리까?⁸⁵²⁾
 아버지는 눈을 떠 대명천지⁸⁵³⁾ 다시 보고,
 칠십생남⁸⁵⁴⁾허웁소서!
 아이고, 아버지!”

Being blind and old, I knocked houses with you in my arms.
By begging for milk, I managed to raise you until now.
I could get off various anxieties thanks to you.
I can't believe what you just said."
The sailors are already in front of the gate.
"Sim, the tide goes down!"
They press her hard.
Mr. Sim, stunned, runs outside.
He falls over on the spot.
"You savage sailors!"
Doing business is okay.
But where did you learn sacrificing a human to hold a ritual?
Don't you know the old story?
People tried to sacrifice a human during the seven year drought.
A virtuous ancient king cut nails and hair, tied himself with
white grass, and prayed.
They had a big rain and a good harvest in the wide area.
If you need a human sacrifice, I will go instead of my daughter!
I want neither money, rice, nor eyes."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is determined to die
Sim Cheong is stunned and hugs him.
"Oh, father!
I don't break the valuable father-daughter relationship because
I want to.
Nor do I die because I want to.
Please open your eyes and see the bright world.
Have children at the age of seventy!
Oh, father!"

27. (장승상부인 작별) 장승상부인이 화공을 불러 심청의
초상을 그리게 한 후, 눈물로 이별한다.

[아니리] 이렇듯 야단이 났는데,
그때여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이제야 그 소문을 들으시고
시비⁸⁵⁵)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엿것다.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⁸⁵⁶) “아버지!”
“오야!”
“무릉촌 승상부인이 저를 다녀가라 하옵시니
어찌하오리까?”
“웁다.⁸⁵⁷) 그 댁에는 열 번이라도 다녀오고, 백 번이라도 다녀오너라.”
선인들께도 허락을 받고,
[진양조] 시비 따라 건너간다.
신세자탄⁸⁵⁸) 우는 말이,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⁸⁵⁹)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양친⁸⁶⁰)이 구존⁸⁶¹)허여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내 신세는 어이허여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승상댁을 당도허니,
부인이 반기허여,⁸⁶²)
“예기,⁸⁶³) 천하⁸⁶⁴) 무정한 사람아.
나는 너를 딸로 여기는데,
너는 나를 속였느냐?
효성은 장커니와,⁸⁶⁵)
앞 못 보신 너의 부친 뉘게⁸⁶⁶) 의탁⁸⁶⁷)허자느냐?
공양미 삼백 석을 내가 내어줄 것이니

27. (Farewell to the Noble Lady) The noble lady has
an artist draw a picture of Sim Cheong and says
goodbye in tears.

[Aniri] The commotion goes on.

Meanwhile,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ars about the situation.

She sends a maid to bring Sim Cheong to her.

Sim Cheong says to her father, "Father!"

"Yes!"

"The noble lady wants to see me.

What should I do?"

"Okay. You can go there as often as you want."

She got the permission from the sailors too.

[Jinyang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She laments over her lot.

"Alas! How bad my fate is!

Alas! How bad my lot is!

Some people are fortunate to have parents and live in wealth
and fame.

I can't believe what happens to my fate."

She arrives in the noble lady's house.

The noble lady welcomes her.

"My goodness! How heartless you are!

I took you as my daughter.

But you betrayed me!

Your filial piety is great.

But who will your blind father turn to?

I will donate 300 bags of rice for you.

선인들과 해약⁸⁶⁸)하라.”
 심청이 여짜오되,⁸⁶⁹
 “당초⁸⁷⁰) 한번 언약⁸⁷¹)한 걸 이제 와서 두 말 하면 선인들도 낭패⁸⁷²)
 읊고,
 무공한⁸⁷³) 많은 재물 제가 어이 갚으리까?
 이제 후회 하릴없소.”
 부인이 심청의 기색⁸⁷⁴)을 보고
 다시 두 말 못 하시고,
 “네 진정 그럴진대 너의 화상⁸⁷⁵)이나 그려 두고 널 본 듯이 보겠노라.”
 화공⁸⁷⁶)을 급히 불러,
 “네 여봐라. 심낭자 생긴 형용, 수심겨워⁸⁷⁷) 앓은 모냥⁸⁷⁸) 낱낱이 잘
 그리면
 중상⁸⁷⁹)을 줄 것이니,
 착실히 잘 그려라.”
 화공이 분부⁸⁸⁰) 듣고,
 오색단청⁸⁸¹)을 풀어놓고,
 심청 얼굴을 요만허고⁸⁸²) 보는데,
 화용월태⁸⁸³) 고운 얼굴
 모란화 한 송이가 세우중⁸⁸⁴)에 젖은 듯이,
 난초같은 푸른⁸⁸⁵) 머리 두 귀 밑에 땅인⁸⁸⁶) 것과,
 녹의홍상⁸⁸⁷) 이쁜 태도
 역력히⁸⁸⁸) 그려내어,
 족자⁸⁸⁹) 떨어 걸어 놓으니
 심청이가 둘이로구나.
 부인이 손수 화제⁸⁹⁰)를 쓰는데,
 ‘생지사지 일몽간의

Break the promise with the sailors.”
Sim Cheong responds,
“If I withdraw my words now, they will be in trouble.
How will I be able to pay the rice back to you?
It is no use to regret now.”
The noble lady takes a close look at Sim Cheong.
She can’t push her anymore.
“If you insist, I’ll draw a picture of you and see it as if it were
you.”
She calls an artist right away.
“Artist, make a clear drawing of Sim Cheong’s look with the sad
facial expression.
You will receive a big prize.
Draw her conscientiously.”
The artist carries out the order.
He spreads out colors.
He takes a hard look at Sim Cheong’s face.
She is as beautiful and elegant as a flower and the moon.
She looks like a peony blossom wet with a fine rain.
She has two braids as fresh as an orchid below her ears.
She wears a yellowish green jacket and a red skirt.
A vivid picture is drawn.
The scroll is hung up.
So there are two Sim Cheongs.
The noble lady writes a poem on the picture.
‘Birth and death are a dream.

연장하필누삼삼고?
 세간최루단장처는
 초록강남의 인미환이라.⁸⁹¹⁾
 서로 붙들고 울음을 우는 모양
 사람의 인륜⁸⁹²⁾으로는 볼 수가 없네.

28. (선인 따라)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서 슬피 울며 떠나간다.

[아니리] 심청이 일어서며,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건너가겠네다.”⁸⁹³⁾
 하릴없이 작별허고 심청이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은 뛰고 이런 야단이 없제.
 선인들이 이 정상⁸⁹⁴⁾을 가공히⁸⁹⁵⁾ 여겨
 백미⁸⁹⁶⁾ 백 석, 마포,⁸⁹⁷⁾ 백목⁸⁹⁸⁾ 각 한 동⁸⁹⁹⁾씩 내어놓고,
 심봉사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동중⁹⁰⁰⁾에 의탁해 놓고 떠나는다.
 [중모리]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리는 초마⁹⁰¹⁾ 자락을 거듬거듬⁹⁰²⁾ 걷어 안고,
 비같이 흐르난 눈물 옷깃에 모두 사뭇 젖네.
 옆너지며⁹⁰³⁾ 자빠지며
 천방지축⁹⁰⁴⁾ 따라갈 제,
 건넌 마을 바라보며,
 “이진사댁 작은악아!
 작년 오월 단오일에 앵두 따고서 노든⁹⁰⁵⁾ 일을 네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칠월칠석야에⁹⁰⁶⁾ 함께 결교⁹⁰⁷⁾허잖더니⁹⁰⁸⁾
 이제는 하릴없다.

Why does an old person shed tears?
A sad thing triggers tears.
This person will go to a place of no return.’
They hold each other and cry.
It is heartbreaking to watch them.

**28. (Leaving with the Sailors) Sim Cheong cries sadly
as she leaves with the sailors.**

[Aniri] Sim Cheong stands up.
“Since the tide goes down, I must go now.”
After saying goodbye, she comes back home.
Her father acts wildly and frantically.
The sailors take pity on him.
They pull out 100 bags of rice, ramie cloths, and cotton cloths.
They entrust villagers with the food and cloths for the rest of
his life.
[Jungmori] Sim Cheong follows the sailors.
She holds up her trailing skirt again and again.
Her tears fall down like rain and soak her clothes.
She falls down and over.
She hurriedly follows the sailors.
She looks over at the neighboring village.
“The second daughter in Mr. Lee’s house!
Did you forget we had good time on May 5th last year, picking
up cherries?
You asked me to be your friend on July 7th this year.
It is futile now.

상침질⁹⁰⁹⁾ 수놓기를 놀과⁹¹⁰⁾ 함께 허자느냐?
 너희들은 팔자 좋아 양친이 구존⁹¹¹⁾허니,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슬하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게 모도⁹¹²⁾ 울고,
 하나님도 아옵는지,
 백일⁹¹³⁾은 어디 가고 음운⁹¹⁴⁾이 자욱하여
 청산도 찡그난 듯,⁹¹⁵⁾
 초목도 눈물진 듯.
 휘늘어져 곱든 꽃이 이울고저⁹¹⁶⁾ 빛을 잃고,
 춘조⁹¹⁷⁾는 다정하여 백반제송⁹¹⁸⁾허는 중에,
 “문노라 저 피꼬리,
 뉘를 이별하였는지
 환우성⁹¹⁹⁾ 지어 울고,
 뜻밖에 두견이는 ‘귀촉도,⁹²⁰⁾ 귀촉도, 불여귀’⁹²¹⁾라
 가지 위에 앉어 울건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내가 어이 돌아오리?”
 한 모룻⁹²²⁾ 돌아드니
 광풍⁹²³⁾이 일어나며
 해당화 한 송이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치니,
 꽃을 들고 허는 말이,
 “약도춘풍불해의면
 하인취송낙화래랴?”⁹²⁴⁾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장은 있건마는,⁹²⁵⁾
 죽으로 가는 몸이
 어느 때나 돌아오리?

Whom will you sew and embroider with from now on?
You are lucky to have parents.
Be happy with them.
Today I parted with my father, and I am going to die.”
All villagers weep till their eyes swell.
God must know this situation too.
The bright sun is blocked with dark clouds.
The mountains appear to frown.
Trees and grass seem to shed tears.
Beautiful drooping flowers lose their color.
All spring birds are warmhearted to sing sad songs.
“I ask you, nightingale.
Did you bid farewell to somebody?
Why are you singing so sadly?
Unexpectedly, a cuckoo says, ‘No return. No return.’
You cry hard on a branch.
But how will I come back when I was sold at a price?”
They turn around a corner.
A strong wind blows.
A petal of a sweetbrier flies onto Sim Cheong’s face.
She grabs it and says,
“If the spring wind doesn’t know how I feel,
why would it send the falling petal to me?
An ancient princess once decorated herself with ume blossoms.
But I am leaving to die.
When will I come back?

죽고 싶어 죽으라마는
수원수구⁹²⁶⁾를 어이 허리?”
걷는 줄을 모르고 강변⁹²⁷⁾에 당도하여,
선두⁹²⁸⁾에다 족판⁹²⁹⁾ 놓고
심청을 인도하여 뱃장⁹³⁰⁾ 안에 앉힌 후에,
행선⁹³¹⁾을 하는구나.

29. (범피중류) 심청이 인당수를 향해 배를 타고 가며, 주변 의 경관을 보고 탄식한다.

[아니리] 닻⁹³²⁾ 감고, 도질⁹³³⁾하며,
돛 올리고 등덩실⁹³⁴⁾ 떠나는데,
[진양조] 범피중류⁹³⁵⁾ 등덩실 떠나간다.
망망현⁹³⁶⁾ 창해⁹³⁷⁾이며,
탕탕현⁹³⁸⁾ 물결이라.
백빈주⁹³⁹⁾ 갈매기는 홍요안⁹⁴⁰⁾으로 날아들고,
삼강⁹⁴¹⁾의 기러기는 한수⁹⁴²⁾로 돌아든다.
요량한⁹⁴³⁾ 남은 소리
어적⁹⁴⁴⁾이 여그런만,⁹⁴⁵⁾
곡중인불견에 수봉만 푸르렀다.⁹⁴⁶⁾
애내성중만고수⁹⁴⁷⁾는 날로⁹⁴⁸⁾ 두고 이름인가?
장사⁹⁴⁹⁾를 지내가니
가태부⁹⁵⁰⁾ 간 곳 없고,
먹라수⁹⁵¹⁾를 바라보니
굴삼려⁹⁵²⁾ 어복충훈⁹⁵³⁾

I am dying not because I want to.
But whom can I resent?"
Unaware of her own walking, she arrives by a river.
They put a plank between the land and the bow.
They lead Sim Cheong into the bottom of the boat.
They depart.

**29. (Drifting Along in the Sea) On the boat to Indang
Water Sim Cheong feels sad as she looks around
the beautiful scenery.**

[Aniri] They pull up the anchor and pull on the oars.
They pull up the sail and depart on the sea.
[Jinyangjo] The boat drifts along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sea is wide and vast.
The waves are strong.
Seagulls fly from an island of white flowers to a hill of water
pepper.
Geese from three big rivers come back to another big river.
A clear sound approaches from a distant place.
It must be the sound of a pipe by a fisherman.
When the sound stops, there are only green mountain peaks.
The oars make sad sounds as if they were about Sim Cheong.
The boat passes by a certain place.
A famous ancient official, Jia Yi(賈誼), has gone.
A big river is seen.
A famous ancient poet, Qu Yuan(屈原), became food for fish
there.

무량⁹⁵⁴)도 하시던가?
 황학루⁹⁵⁵)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치시오?
 연파강상사인수⁹⁵⁶)는
 최호⁹⁵⁷)의 유적⁹⁵⁸)이라.
 봉황대⁹⁵⁹)를 돌아드니
 삼산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⁹⁶⁰)는
 이태백⁹⁶¹)이 노든⁹⁶²) 데요,
 심양강⁹⁶³)을 돌아드니
 백낙천⁹⁶⁴) 일거 후에⁹⁶⁵)
 비파성⁹⁶⁶)이 끊어졌다.
 적벽강⁹⁶⁷)을 당도허니
 소동파⁹⁶⁸) 노든 풍월⁹⁶⁹)
 의구하야⁹⁷⁰) 있다마는,
 조맹덕⁹⁷¹) 일세지웅⁹⁷²) 이금에 안재재오?⁹⁷³)
 월락오제⁹⁷⁴) 깊은 밤에
 고소성⁹⁷⁵)에 배를 매니,
 한산사⁹⁷⁶) 쇠북소리⁹⁷⁷) 객선에⁹⁷⁸) 땡 땡 들리는구나.⁹⁷⁹)
 진회수⁹⁸⁰)를 건너가니,
 격강의⁹⁸¹) 상녀⁹⁸²)들은
 망국한⁹⁸³)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헌데⁹⁸⁴)
 후정화⁹⁸⁵)만 부르는구나.⁹⁸⁶)
 악양루⁹⁸⁷) 높은 지붕 호상에⁹⁸⁸) 솟았는 듯,
 무산⁹⁸⁹)의 돋는 달은 동정호⁹⁹⁰)로 비쳐오니,

How is he doing now?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pavilion, Huanhelou(黃鶴樓).
 The sun sets, Is my hometown far?
 A wet fog rising up from a river intensifies anxiety.
 That is the trace of the ancient poet, Cui Hao(崔灝).
 The boat reaches a famous tower.
 Three Mountain's peaks rise up through the clouds.
 Two rivers flow around an island.
 Another famous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here.
 The boat comes up to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Bai Letian(白樂天), has gone.
 So has the sound of the lute.
 The boat arrives at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Su Dongpo(蘇東坡), enjoyed himself here.
 The beautiful scenery has not changed.
 Where is the famous one-time hero, Cao Cao(曹操)?
 It is deep night when the moon has set and a crow cries.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fortress.
 The bell sounds from a buddhist temple reach the travelers' boat.
 The boat gets to a famous river.
 Bar girl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did not mourn the fall of their country.
 When the thick fog was over the cold river and the bright moon
 was above the white sand,
 they only sang songs.
 A tower is high as if it soared from a lake.
 The moon rising over a mountain is reflected on the lake.

상하천광⁹⁹¹)이 거울⁹⁹²) 속에 푸르렀다.
창오산⁹⁹³)이 아득허니, 황릉묘⁹⁹⁴) 잠겼어라.
삼협⁹⁹⁵)의 잔나비⁹⁹⁶)는 자식 찾는 슬픈 소리,
천객⁹⁹⁷)소인⁹⁹⁸)이 눈물을 몇몇이나 빗었단고?
팔경을 다 본 후에,

30. (원혼 만남) 심청이 배를 타고 가며 열녀와 충신들의 원혼을 만난다.

[중모레] 한 곳을 당도허니,
향풍⁹⁹⁹)이 일어나며
죽림¹⁰⁰⁰) 사이로 옥패¹⁰⁰¹)소리 들리거늘,
어떠한 두 부인이 선관¹⁰⁰²)을 높이 쓰고 신을 끌고 나오면서,
“저기 가는 심소저¹⁰⁰³)야!
내외¹⁰⁰⁴) 말을 듣고 가라.
창오산봉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를 내가멸이라.¹⁰⁰⁵)
천추¹⁰⁰⁶)의 깊은 한을 호소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대효¹⁰⁰⁷) 너를 보니
오죽이나 음전허랴?¹⁰⁰⁸)
요순 후 기천 년에¹⁰⁰⁹)
지금은 천자 어느 뉘며,¹⁰¹⁰)
오현금¹⁰¹¹) 남풍시¹⁰¹²)를 이제까지 전하더냐?
수로¹⁰¹³) 먼먼 길을 조심하여 잘 가거라.”
이는 뉘고허니¹⁰¹⁴) 요녀순처 만고열녀 이비로다.¹⁰¹⁵)

The blue sky is reflected on the lake like a mirror.
A smoke on a mountain covers the shrine for the two famous
queens :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The apes of three valleys sadly call their children,
squeezing out tears from the relegated official and poet.
They go past the eight famous sites.

30. (Meeting Vindictive Spirits) Sim Cheong meets the souls of faithful women and loyal subjects on the boat.

[Jungmori] The boat reaches a certain place.
A fragrant wind blows.
Clear sounds of jewels are heard.
Two ladies wearing divine hats come out, dragging their shoes.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our sad story.
After the mountain collapses and the river dries up,
our tears on the bamboos will disappear.
We had nobody to talk with about our old griefs.
Today, we saw you, a good daughter.
You look graceful.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since our kings, Yao(堯) and
Shun(舜), died.
How is the king now?
Were his pentachord and poem inherited?
Take care i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They are the two famous princesses and faithful queens of
ancient time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서산¹⁰¹⁶)을 당도허니
 광풍¹⁰¹⁷)이 대작하며¹⁰¹⁸)
 찬 기운이 소삽더니,¹⁰¹⁹)
 어떠한 신이 나오느디,
 키는 구 척이요,
 면여거륜¹⁰²⁰)하야
 미간이 광활허고,¹⁰²¹)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무릅쓰고¹⁰²²)
 우루루루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야,
 내의 말을 듣고 가라.
 원통타 우리 오왕,
 자란¹⁰²³)의 참소 듣고
 속루검¹⁰²⁴) 나를 주어 목 찢러 죽인 후에,
 가죽으로 몸을 싸 이 물에 던졌더니라.
 장부의 원통함이 월병이 멸오함을 내 눈으로 보라허고,¹⁰²⁵)
 내 일찍 눈을 빼어 동문상에다 달고 왔네.¹⁰²⁶)
 세상에 나가거든 내 눈 찾아 전해주오.
 천추의 원통헌 건, 눈 없는 것이 한이로다.
 수로 먼먼 길을 조심허여 다녀오너라.”
 “고이허다,¹⁰²⁷) 이 말이여!
 죽으러 가는 나를 다려¹⁰²⁸) 조심허여 다녀오라 허시니
 진실로 고이허다.”
 이는 원고허니 오나라 충신 오자서¹⁰²⁹)라.
 맥라수¹⁰³⁰)를 당도허니

The boat arrives at a shrine.
A strong wind makes large waves.
A cold energy is felt.
A certain warrior shows up.
He is nine feet tall.
His face is as large as a wheel.
The space between his eyebrows is wide.
His eyes are closed.
His body is wrapped with leather.
He runs out quickly.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my story.
I resent my king.
He listened to a false charge by the premier.
The king gave me a sword to kill myself in the throat.
My body was wrapped up with a leather and thrown into this
river.
I was so resentful that in order to watch the downfall of my
country
I gouged out my eyes and hung them on the east gate.
If you go out to the world, find my eyes for me.
I am resentful forever because I don’t have eyes.
Come back in one piece from the long journey on the sea.”
“How strange it is!
He told me to come back in one piece when I am leaving to
die.
That is really strange.”
This is a famous loyal subject of ancient times.
The boat now arrives at a big river.

두 사람이 나오ندی,
 앞서 오는 한 사람 슬피 통곡 우는 말이,
 “진나라 속임 입어 삼년 무관의 고국을 바라보며¹⁰³¹⁾ 미귀혼¹⁰³²⁾이
 되었더니,
 박랑퇴성¹⁰³³⁾ 반기¹⁰³⁴⁾ 듣고
 속절없는 동정 달에¹⁰³⁵⁾ 헛춤만 추었노라.”¹⁰³⁶⁾
 뒤에 오는 한 사람은 왕자¹⁰³⁷⁾의 기상이나
 얼굴이 초췌¹⁰³⁸⁾허고
 형용¹⁰³⁹⁾이 고고¹⁰⁴⁰⁾허니,
 이는 초나라의 굴원¹⁰⁴¹⁾이로구나.
 ‘죽은 지 수천 년에 정백¹⁰⁴²⁾이 남아 있어
 내 눈에 와 보일진대,
 내가 죽을 징조로구나.’
[진양조] 배의 밤이 몇 밤이며,
 물의 날이 몇 날이나 되던고?
 무정한 사오삭¹⁰⁴³⁾을 물과 같이 흘러가니,
 금풍삽이석기허고
 옥우괵이쟁영이라.¹⁰⁴⁴⁾
 낙하여고목제비허고
 추수공장천일색이라.¹⁰⁴⁵⁾
 강안에 굴농 황금이 천편,¹⁰⁴⁶⁾
 노화에 풍기허니 백설이 만점이라.¹⁰⁴⁷⁾
 심포세류¹⁰⁴⁸⁾ 지는 잃은 만강추풍¹⁰⁴⁹⁾에 흘날리고,
 옥로청풍¹⁰⁵⁰⁾ 불었난디,
 외로울사 어선들은 등불을 돈오키고¹⁰⁵¹⁾ 어가¹⁰⁵²⁾로 화답을 허니,
 돈우나니 수심이요,

Two men show up.
 One of them in the front says in a sad voice,
 "Deceived by my rival country, I died while missing my country
 for three years.
 I was glad to hear the sound of an iron hammer.
 I danced in vain when the moon was reflected on a lake."
 The other man behind him appears to be a king.
 His face is haggard.
 He looks thin and lean.
 He is an ancient scholar, Qu Yuan(屈原).
 'souls of people who died thousands of years ago
 are seen to my eyes.
 This is a sign that I will die.'

[Jinyangjo] How many nights did I spend on the boat?
 How many days did I spend on the sea?
 Several cruel months have already passed like an arrow.
 The cool fall wind blows in the evening.
 The wide sky is bright.
 A lonely bird flies along with the falling evening glow.
 The clear water and the high sky of fall are of the same color.
 Tangerines on the bank of a river are like numerous pieces of gold.
 White flowers are scattered by a wind like snow.
 Fall winds disperse the leaves of the willows around a river.
 The leaves contain a clear dew and a cool wind.
 Lonely fish boats hang lamps high and respond with a fishing song.
 What rises up is anxiety.

해반청산¹⁰⁵³)은 봉봉이 칼날 되어
 녹는 것이 간장이라.¹⁰⁵⁴
 일락장사추색원허니,
 부지하처조상군고?¹⁰⁵⁵
 송옥¹⁰⁵⁶)의 비추부¹⁰⁵⁷)가 이에서¹⁰⁵⁸) 슬프리오?
 동녀¹⁰⁵⁹)를 실었으니
 진시황의 채약 뱅가?¹⁰⁶⁰
 방사¹⁰⁶¹)는 없었으나
 한무제¹⁰⁶²)의 구선¹⁰⁶³)인가?
 “지레¹⁰⁶⁴) 내가 죽자허니 선인들이 수직¹⁰⁶⁵)을 허고,
 살아 실려 가자허니 고국이 창망¹⁰⁶⁶)이로구나.
 죽도 사도 못허는 내 신세를,
 아이고 이 일을 어쩔까나!”

31. (인당수 투신) 인당수에 당도하여 심청은 아버지 눈뜨 기를 빌면서 물로 뛰어든다.

[옛모래] 한 곳 당도허니
 이는 곧 인당수라.
 어룡¹⁰⁶⁷)이 싸우는 듯,
 벽력¹⁰⁶⁸)이 내리는 듯,
 대양¹⁰⁶⁹)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쳐
 안개 뒤섞여 저저진¹⁰⁷⁰) 날,
 갈 길은 천 리 만 리나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져

The peaks of a green mountain on the beach are sharp.
 What melts down is a liver and intestines.
 The sun sets in the late fall,
 Where should I pay a tribute to the two ancient queen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Would the poem by an ancient poet be more sad than this?
 Girls are on the boat.
 So is it an ancient emperor's boat in search of the herb of eternal
 youth?
 Scholars are not on the boat.
 But is it another ancient emperor's boat in search of god?
 "I want to kill myself, but the sailors are watching me.
 I want to go back alive, but my country is far from here.
 My fate allows me neither to die nor to live.
 Alas! What should I do?"

**31. (Jumping into Indang Water) Sim Cheong reaches
 Indang Water. After the ritual, she jumps into the
 water, wishing that her father opens his eyes.**

[Eotmori]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This is Indang Water.
 It is as if a fish and a dragon fought with each other.
 It is as if thunder fell down.
 A wind generates waves in the wide sea.
 A heavy fog moves around.
 They have a long way to go.
 It is dark in all the four directions.

천지 적막헌디,
 까치늪¹⁰⁷¹⁾ 떠들어와 뱃전머리¹⁰⁷²⁾ 탕탕,
 물결이 와르르르르 출렁출렁.
 도사공¹⁰⁷³⁾ 영좌¹⁰⁷⁴⁾ 이하 황황급급¹⁰⁷⁵⁾하야 고사기계¹⁰⁷⁶⁾를 차린다.
 섬쌀¹⁰⁷⁷⁾로 밥 짓고,
 온 소¹⁰⁷⁸⁾ 잡고,
 동우¹⁰⁷⁹⁾ 술, 오색 탕수¹⁰⁸⁰⁾ 삼색 실과¹⁰⁸¹⁾를 방위 찾아서 갈라놓고,
 산 돌¹⁰⁸²⁾ 잡아
 큰 칼 꽃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도사공 거동 보라.
 심청을 목욕 시켜 뱃전머리¹⁰⁸³⁾ 앓힌 후에,
 도사공 보소.
 의관¹⁰⁸⁴⁾을 정제¹⁰⁸⁵⁾허고, 복채를 양 손에 쥐고.
[자진모리]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 둥 둥 두리둥 둥 둥 둥 둥.
 “헌원씨¹⁰⁸⁶⁾ 배를 무어¹⁰⁸⁷⁾ 이제불통¹⁰⁸⁸⁾ 헌 연후에,¹⁰⁸⁹⁾
 후생¹⁰⁹⁰⁾이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¹⁰⁹¹⁾허니
 막대한 공 이 아니냐?
 하후씨¹⁰⁹²⁾ 구년 치수¹⁰⁹³⁾ 배를 타고 다사렬¹⁰⁹⁴⁾ 제,
 오복의 공수¹⁰⁹⁵⁾ 구주¹⁰⁹⁶⁾로 돌아들고,
 오자서¹⁰⁹⁷⁾ 분오할 제¹⁰⁹⁸⁾ 노가로 건너주고,¹⁰⁹⁹⁾
 해성의 패한 장수¹¹⁰⁰⁾ 오강¹¹⁰¹⁾으로 돌아들어 우선대기¹¹⁰²⁾ 건너주고,
 공맹¹¹⁰³⁾의 탈조화¹¹⁰⁴⁾는 동남풍 빌어내어
 조조의 백만 대병 주유¹¹⁰⁵⁾로 화공¹¹⁰⁶⁾하니,
 배 아니면 어이허리?”
 그저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 둥둥둥.
 “주요요이경양¹¹⁰⁷⁾허니 도연명¹¹⁰⁸⁾의 귀거래,¹¹⁰⁹⁾

The sky and the sea are desolate.
Strong currents hit hard on the bow of the boat.
Waves run wildly around the boat.
The leader of the sailors and the rest quickly prepare for a rite.
They cook a bag of rice.
A sound cow is killed.
A jar of wine, soups of various colors, and diverse fruit are put
in appropriate places.
A live pig is slaughtered.
It is hung on a big knife as if it crawled.
Behold the leader of the sailors.
He has Sim Cheong take a bath and sit at the bow.
Behold the leader.
He puts on formal clothes and holds two drumsticks.

[Jajinmori] The drum creates sounds: tom-tom, boom-boom.
“An ancient king made a boat, connecting two separated places.
Some people followed him and became sailors.
Isn’t this a great accomplishment?
Another ancient king dealt with the nine year flood on a boat.
He levied taxes on five areas and shipped them to nine areas.
When an ancient warrior fled, he crossed a river with a boat
song.
A defeated ancient warrior came warrior, Xiang Yu(項羽), to a
river and crossed it for a future counterattack.
An ancient military strategist created a southeast wind.
He had a warrior attack a million troops with fire on a river.
All these things were possible thanks to boats.”
The leader hits the drum: tom-tom, boom-boom.
“An ancient poet said a boat shakes and moves forward.

해탈한 고범주난¹¹¹⁰) 장한의 강동거¹¹¹¹)요,
 임술지추칠월¹¹¹²)에 소동파¹¹¹³) 놀아 있고,
 지국충¹¹¹⁴) 어사와¹¹¹⁵)허니
 고예승류무정거¹¹¹⁶)난 어부의 질검,¹¹¹⁷)
 계도란예화정표난 오희월녀채런주요,¹¹¹⁸)
 타고 발선¹¹¹⁹)허고 보니 상고선¹¹²⁰)이 이 아니냐?
 우리 선인 스물네 명 상고¹¹²¹)를 위업¹¹²²)하야
 경세우경년¹¹²³)에 표박서남¹¹²⁴)을 다닐 적에,
 오늘날 인당수 인제수¹¹²⁵)를 드리오니,
 동해신 아명¹¹²⁶)이며,
 서해신 거승¹¹²⁷)이며,
 북해신 흑룡이며,
 남해신 청룡이며,
 강한지장¹¹²⁸)과
 천택지군¹¹²⁹)이
 하감¹¹³⁰)하여 주읍소서.
 비림¹¹³¹)으로 바람 주고,
 화락¹¹³²)으로 인도하야
 환난¹¹³³) 없이 도우시고,
 백천만금¹¹³⁴) 퇴¹¹³⁵)를 내어
 돛대 위에 봉기¹¹³⁶) 꽃고, 봉기 위에 연화¹¹³⁷) 받게 점지¹¹³⁸)하여 주
 읍소서.
 고시례!”¹¹³⁹)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물에 들라!”
 성화같이 재촉하니,

Another ancient poet said a lonely sailing boat leaves slowly on
the vast sea.

Another ancient poet wrote a great poem on a boat in autumn.
Let's pull up the anchor and row the boat.

It is a fisherman's fun to stop rowing and follow the current
forever.

In ancient times, some women picked up lotus on a boat on
a river.

We sailed on this business boat.

We, 24 sailors, took doing business as our profession.

We traveled many places for several years.

Today, we offer a human sacrifice to Indang Water.

The god of the east sea,

the god of the west sea,

the black dragon of the north sea,

the blue dragon of the south sea,

the generals of rivers,

and the kings of streams and ponds,

please take good care of us.

Give us a wind via the god of the wind,

lead us to peace and happiness,

protect us from a disaster,

help us make a lot of profits,

and help us hang the banner of success and a lotus flower on
our mast!

Accept this food!"

The rite is over.

"Miss Sim, get into the water!"

He presses her hard.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더니마는,
 “여보시오, 선인님네, 도화동이 어디쯤이나 있소?”
 도사공이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가리키는데,
 “도화동이 저기 운애¹¹⁴⁰만 자욱헌 데가 도화동일세.”
 심청이 기가 막혀 분향사배¹¹⁴¹ 우는구나.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청이는 추호도¹¹⁴² 생각 마옵시고,
 어서어서 눈을 떠 대명천지¹¹⁴³ 다시 보고,
 좋은 데 장가들어 칠십생남¹¹⁴⁴ 하옵소서.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십만금¹¹⁴⁵ 퇴를 내어 본국으로 가시거든 우리 부친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글랑은¹¹⁴⁶ 염려 말고,
 어서 급히 물에 들라!”
[회모레] 심청이 거동 보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정신없이 나가더니,
 치마 자락을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만경창과¹¹⁴⁷ 갈매기격으로¹¹⁴⁸ 그저 뗏다 물에 ‘퐁!’

32. (선인 탄식) 심청이 물에 빠진 후 이를 지켜보던 선인들이 울며 떠나간다.

[아니리] 빠져 놓으니,
[진양조] 향화¹¹⁴⁹는 풍랑을 좇고,
 명월은 해문¹¹⁵⁰에 잠겼도다.

She heard the demand that she die.
“Hello, sailors! Where is Peach Blossom Village?”
The leader steps forward and holds up his arm.
“Peach Blossom Village is below the thick clouds and fog over there.”
Troubled, Sim Cheong gives four big bows.
“Alas, father!
Please don’t miss your bad daughter at all.
Please open your eyes and see the bright world.
Please remarry and have a son at the age of seventy.
Hello, sailors!
Please make a lot of money, go back to our country, and
console my father.”
“Don’t worry about that.
Jump into the water now!”

[Hwimori] Behold Sim Cheong!
She staggers forward frantically as if she were crippled by lightning.
She covers her face with her skirt.
She runs to the bow.
She jumps heavily into the vast sea like a seagull.

32. (The Sailors Sigh) Sailors watch Sim Cheong jump into the water, and leave weeping.

[Aniri] Sim Cheong fell into the water.
[Jinyangjo] A burning incense follows the wind.
The full moon is immersed in the horizon.

영좌¹¹⁵¹)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¹¹⁵²) 화장¹¹⁵³)이 모두 울 제,
 “장사도 좋거니와
 우리가 연년이¹¹⁵⁴) 사람을 사다가 이 물에 넣고 가니,
 우리 후사¹¹⁵⁵)가 좋을 리가 있겠느냐?
 닷 감어라.
 어기야 어기야.
 우후청강¹¹⁵⁶) 좋은 경¹¹⁵⁷)을,
 묻노라 저 백구¹¹⁵⁸)야.
 홍요월색¹¹⁵⁹)이 어는 곳고?¹¹⁶⁰)
 일강세우노평생¹¹⁶¹)에 너는 어이 한가허드냐?”
 범피창과¹¹⁶²) 높이 떠서 도용도용¹¹⁶³) 떠나간다.

33. (심청 용궁행)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이 물에 빠진 심청을 극진히 모셔 수정궁으로 데려간다.

[아니리] 그 때에 심청이는 이 세상에서 꼭 죽은 줄 알았건마는,
 이러한 출천대효를 하늘이 그저 두고 볼 리 있겠느냐?
 그 때여 옥황상제¹¹⁶⁴)께옵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¹¹⁶⁵)하시되,
 “묘일¹¹⁶⁶) 묘시¹¹⁶⁷)에 유리국¹¹⁶⁸) 도화동 심학규 딸 인당수에 들 것
 이니,
 수궁에 착실히 모시어라.”
 사해¹¹⁶⁹) 용왕 영을 듣고 수궁에 내려와
 각 궁 시녀를 불러,
 “오늘 묘시 초에 세상의 심낭자 인당수에 들 것이니,

All sailors - the leader, rowers, assistants, and the cooks - weep.
 "Doing business is okay.
 But every year, we have been sacrificing human beings here.
 Would our children be successful?
 Pull up the anchor.
 Yo-heave-ho!
 The view is great after the rain on the river.
 I ask you, seagull,
 Where does the moonlight shine on the red stems of water
 peppers in autumn?
 How can you spend your whole life leisurely on a rainy river?"
 The boat leaves, floating on the blue sea.

33. (Sim Cheong's Heading to the Dragon Palace) **Under the order of the King of Heaven, the** **dragon king respectfully takes Sim Cheong to the** **dragon palace.**

[Aniri] In the meantime, people thought that Sim Cheong died.
 Heaven would not just watch the good daughter die.
 The King of Heaven calls and issu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of the four seas.
 "Sim Cheong, Sim Hak-gyu's daughter, will jump into Indang
 Water at such and such time.
 Take her carefully to your dragon palace."
 The dragon king takes the order and comes down to the sea
 palace.
 He calls maids of the sea palace.
 "Miss Sim will jump into Indang Water today.

물 한 점도 젖지 않게 수궁에 착실히 모셔 들여라.”
 때마침 묘시 초¹¹⁷⁰)라,
 옥교¹¹⁷¹)를 앞에 놓고 예하여¹¹⁷²) 여짜오되,¹¹⁷³)
 “부왕의 분부 받아 모시러 왔사오니,
 어서 교자¹¹⁷⁴)를 타시옵소서.”
 심청이 여짜오되,
 “인간의 미천¹¹⁷⁵)한 사람이
 어찌 용궁 교자를 타오리까?”
 “만일 타시지 아니하면, 옥황상제께옵서 수궁에 대죄¹¹⁷⁶)를 내리실
 것이오니
 사양치 마옵소서.”
 마지못하여 교자 위에 올라앉으니,
 [엇모레] 위의¹¹⁷⁷)도 장할시고.¹¹⁷⁸) 위의도 장할시고.
 천상 선관¹¹⁷⁹) 선녀들이 심소저를 보라하고,
 태을진¹¹⁸⁰) 학을 타고,
 안기생¹¹⁸¹) 난¹¹⁸²) 타고,
 구름 탄 적송자,¹¹⁸³)
 사자 탄 갈선웅,¹¹⁸⁴)
 고래 탄 이적선,¹¹⁸⁵)
 청의동자,¹¹⁸⁶) 홍의동자¹¹⁸⁷) 쌍쌍이 모셨다.
 월궁향아,¹¹⁸⁸) 마고선녀,¹¹⁸⁹) 남악부인,¹¹⁹⁰)
 팔선녀들¹¹⁹¹)이 좌우로 벌였난디,
 풍악을 갓출 제,
 왕자 진¹¹⁹²)의 봉피리,¹¹⁹³)
 광처사¹¹⁹⁴) 죽장구¹¹⁹⁵)는 찌리령 쿵 쩡 쿵,
 장자방¹¹⁹⁶)의 옥통소는 뽕뽕루디루.

Make sure that she is not soaked and bring her to this sea palace with respect.”

The time has come.

With a carriage in front, they speak respectfully.

“We are here to meet you under the dragon king’s order.

Please get in the carriage.”

Sim Cheong responds,

“I am a humble human being.

How can I get in the carriage of the dragon palace?”

“If you don’t get on it, the King of Heaven will severely punish us all in the dragon palace.

Please don’t decline.”

She has no choice but to get in the carriage.

[Eotmori] How magnificent! How majestic!

Gods and goddesses from heaven want to get a glimpse of Miss Sim.

The highest god is on a crane.

Another is on a divine bird.

Another is on a cloud.

Another is on a lion.

Another is on a whale.

Children in blue and red clothes stand in pairs.

The goddess from the moon, a legendary goddess, a goddess from a mountain,

and the eight goddesses are standing on the left and right.

Music is played.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rassware-shaped drum,

and a jade flute, each making unique sounds.

낭자¹¹⁹⁷)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패용골이위량허니 영광이 조일이요,
 집어린이작와하니 서기 반공이라.¹¹⁹⁸
 주궁패궐은
 응천상지삼광이요,
 곤의수상은 비인간지오복이라.¹¹⁹⁹
 산호 주렴,¹²⁰⁰
 백옥 안상¹²⁰¹) 광채도 찬란하다.
 주찬¹²⁰²)을 들일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¹²⁰³) 호박병¹²⁰⁴)에 천일주¹²⁰⁵)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도¹²⁰⁶)를 덩그렇게¹²⁰⁷) 괴었으니,¹²⁰⁸
 세상의 못 본 바라.
 삼일에 소연¹²⁰⁹)허고, 오일에 대연허며¹²¹⁰) 극진히 봉공¹²¹¹)한다.

34. (모친 상봉) 심청이 용궁에서 옥진부인이 된 모친과 만난다.

[아니리] 이렇듯 화려하게 모실 적에,
 그 때여 천상에서 옥진부인¹²¹²)이 하강을 허시는데,
 이는 뉘신고 허니,
 전 곱씨부인이 죽어 광한전¹²¹³) 옥진부인이 되었구나.
 심청이 수궁에 머물러 있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¹²¹⁴) 하강을 허시는데,
 [진양조] 오색채단¹²¹⁵)을 기린에 가득 실코,

The music trembles the sea palace.
The crossbeam made of dragon bones reflects divine light on
the sun.
The roof made of fish scales radiates favorable energy into the
sky.
It is ornamented with all sorts of jewels.
The sun, the moon, and stars shine together.
The king's embroidered clothes represent the five blessings.
A splendid door blind is made of corals.
A lustrous chair is made of white jewels.
Divine food and wine are brought in.
Glasses and amber bottles are filled with old wine.
Divine peaches are piled up at the center of the table.
These things can't be seen in the human world.
Sim Cheong is served with small and big feasts every several
days.

**34. (The Mother and the Daughter Meet.) Sim Cheong
meets her mother in the dragon palace who
became a goddess.**

[Aniri] Sim Cheong is served well.
Meanwhile, the goddess of the moon comes down.
Who is the goddess?
Mrs. Gwak died and became the goddess of the moon.
She heard that Sim Cheong stays in the sea palace.
She is coming down to meet her daughter.
[Jinyangjol] The goddess comes down with a giraffe carrying silks
of various colors.

벽도화¹²¹⁶⁾ 단계화¹²¹⁷⁾를 사면에 벌여 꽃고,
 창학, 백학은 전배¹²¹⁸⁾ 서고 수궁에 내려오니,
 용왕도 황겁¹²¹⁹⁾하야 문전에 배례¹²²⁰⁾헐 제,
 옥진부인이 들어와 심청 손을 덥석 잡더니,
 “내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 낳은 꼭씨로다.
 너의 부친 많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히¹²²¹⁾ 되어,
 광한전 옥진부인이 되었는데,
 너는 부친 눈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이 곳에 들어왔단 말을
 듣고,
 너를 보러 내 왔노라.
 귀와 목이 의젓한¹²²²⁾ 게 너의 부친 모습 같구나.
 세상에서 못 먹든 것 이제 많이 먹어 보아라.”
 심청 얼굴을 끌어다 가슴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내 자식아!
 꿈이면 깰까 염려로다.”
 심청이 그제야 모친인 줄 짐작하고,
 부인의 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게 꿈이오, 생시오?
 불효여식 청이는 앞 어두운 백발 부친 홀로 두고 나왔는데,
 외로우신 아버지는 뉘를 의지허오리까?”
 부인이 심청을 만류난디,¹²²³⁾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일후¹²²⁴⁾에 세상을 다시 나가,
 만종록¹²²⁵⁾을 누리리라.

She is decorated with divine blue peach flowers and cinnamon flowers.

She is escorted by a blue crane and a white crane.

The dragon king shows bows to her at the gate.

The goddess comes in and grabs Sim Cheong's hands.

"You must not know me.

I was your mother in the human world.

You father must be old now.

I became noble after I died.

I am now the goddess of the moon.

I heard you are here because you were sold at 300 bags of rice to open your father's eyes.

I am here to see you.

Your ears and neck look stately like your father's.

Help yourself with my milk you couldn't eat in the human world."

She pulls Sim Cheong's face to her bosom and rubs her.

"Oh my sweetheart!

I am afraid I might wake up if this were a dream."

Sim Cheong now realizes that the goddess is her mother.

She hugs the goddess's neck.

"Oh my mother! Is this a dream or real?

I, a bad daughter, left my old blind father behind.

Whom will my lonely father rely on?"

The goddess consoles Sim Cheong.

"My daughter, Cheong! Don't cry.

You will go back to the human world.

You will be served by the government.

광한전 말은 일이 직분¹²²⁶이 허다¹²²⁷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나는 올라간다마는
 내 딸 너도 잘 가거라.”
 옥패¹²²⁸ 소리가 쟁쟁¹²²⁹ 나더니
 오색채운¹²³⁰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따라갈 수도 전혀 없고,
 가는 모친을 우두머니¹²³¹ 바라보며,
 모녀 작별이 또 되는구나.

35. (심청 환생) 심청이 꽃 속에 환생하여 인당수로 나오니, 지나가던 도사공이 발견한다.

[아니리] 이렇듯 작별 후,
 옥황상제께옵서 사해 용왕을 또 다시 불러,
 “심낭자 방년¹²³²이 가까우니
 인간¹²³³으로 환생¹²³⁴하되, 귀인¹²³⁵으로 인도¹²³⁶하라.”
 사해 용왕 영을 듣고 심소저¹²³⁷를 인도혈 제,
 꽃 한 봉지¹²³⁸를 조화 있게 만들어
 그 속에다 모시고, 양대 선녀¹²³⁹로 시위하고,
 금은 보패¹²⁴⁰를 가득히 넣어
 인당수에 띄웠구나.
 용왕의 조화인지라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 젖을쏘냐?

I have many things to do on the moon,
I can't stay here for long.
I am going up.
Honey, take care of yourself."
Clear sounds by jewels are made.
The goddess flies up on clouds of various colors.
Sim Cheong can't follow her.
She watches her going up vacantly.
The mother and the daughter are separated again.

**35. (The Reincarnation of Sim Cheong) Sim Cheong is
reincarnated in a flower and sent back to Indang
River. The sailor spots the flower.**

[Aniri] Sim Cheong bid farewell to her mother.
The King of Heaven calls the dragon king again.
"Miss Sim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Reincarnate her into a noble person in the human world."
With the order, the dragon king reincarnate Sim Cheong.
He makes a mysterious flower.
She is served by two maids inside the flower.
They carry a lot of jewels in the flower.
The flower springs up at Indang Water.
The flower is the work of the dragon king.
So a wind cannot shake it.
A rain cannot soak it.

오색채운이 꽃송이에 어리어
 주야 등당실 떠 있을 제,
 그 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은 억십만금 퇴¹²⁴¹)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
 올 제,
 인당수 당도허니
 심낭자 효성에 흘연¹²⁴²) 감동되는지라,
 제물을 정히¹²⁴³) 차려놓고
 심낭자 혼을 불러 위로허는디,
[중모레] 북을 두리둥 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제 지낸다.
 “넋이야, 넋이로다. 이 넋이 뉘 넋이냐?
 오장원¹²⁴⁴)에 낙상¹²⁴⁵)하던 공명의 넋도 아니요,
 삼년 무관의 초 회왕¹²⁴⁶)의 넋도 아니요,
 부친 눈을 띄우랴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 되신 심낭자의
 넋이로구나.
 혼이라도 오셨거든 많이 흠향¹²⁴⁷)을 허옵소서.”
 제물¹²⁴⁸)을 물에 풀고
 눈물 씻고 바라보니,
 무엇이 떠있는디 세상의 못 본 바라.¹²⁴⁹)
 도사공이 허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금이냐?”
 “금이란 말씀이 당치¹²⁵⁰) 않소.
 옛날 진평¹²⁵¹)이가 범아부¹²⁵²)를 잡으랴고, 황금 사만 근을 초진¹²⁵³)
 중에 흘었으니
 무슨 금이 있으리까?”
 “그러면 저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화분곤산¹²⁵⁴) 불이 붙어 옥석¹²⁵⁵)이 모두 다 탔으니,

Colorful clouds surround it.
It floats on the water day and night.
Meanwhile, the sailors are on their way back home after making
a lot of money.
They reach Indang Water.
All of a sudden, they are reminded of Sim Cheong's sacrifice.
They prepare food for a ritual.
They conjure up Sim Cheong's soul to console it.

[Jungmori] The sailors hit the drum, holding a rite in a sad voice.
“We are calling up a soul.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strategist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strategist Kong Ming(孔明) who got hurt from a fall.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king who was held as a hostage
for three years.
It is the soul of Miss Sim who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and
became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o open her father's eyes.
If you are with us, please help yourself with this food.”
The sailors spread the offering over the sea.
They wipe their tears.
Something unusual floats on the sea.
The leader asks, “What is that? Is that gold?”
“That can't be gold.
An ancient politician gave tons of gold to soldiers in order to
arrest an assassin.
So how can that be gold?”
“Is that a jade, then?”
“That can't be a jade.
All jade burned down after the mountain of jade caught on fire.

옥 한 쪽이 있으리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도 당치 않소.
 명사십리¹²⁵⁶)가 아니어든
 해당화 어이 되오리까?”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어라, 저어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차.”¹²⁵⁷)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동허고,
 오색채운¹²⁵⁸)이 어렸구나.

36. (화초타령) 천자가 꽃을 좋아하여 여기저기 심어놓고 즐기는데, 이를 안 도선주는 바다에서 건져온 꽃을 바 친다.

[아니리] 그 꽃을 고이 싣고 본국으로 돌아와
 허다히¹²⁵⁹) 남은 재물 각기 짓을¹²⁶⁰) 나눌 적에,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¹²⁶¹)을 마다허고
 꽃봉오리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송천자¹²⁶²)께옵서 황후 홀연 봉¹²⁶³)하신 후 납비¹²⁶⁴)를 아니 허시고,
 온갖 기화요초¹²⁶⁵)를 모아 들여
 황극전¹²⁶⁶) 너른 뜰에 가득히 심어놓고,
 조석으로¹²⁶⁷) 화초 구경을 허시는데,

Would there be a jade now?"
 "Is that a wild rose, then?"
 "That can't be a wild rose.
 A sand beach is too far from here.
 How can that be a wild rose?"
 "Then, what is it?
 Let's get close to .
 Row the boat!"
 "Yo-ho! Yo-heave-ho!"
 On close look, the flower gives off a fragrant smell.
 Colorful clouds surround it.

**36. (Flower Song) The emperor loves flowers, and
 enjoys watching them. Knowing this, the owner
 of the boat donates the flower from the sea to
 him.**

[Aniri] The sailors carefully carry the flower to their country.
 They divide their huge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ir rank.
 Somehow, the owner of the boat is not interested in the profits.
 He only takes the flower.
 When is it now?
 The emperor hasn't yet remarried after the queen died.
 He collected all sorts of beautiful flowers and grass.
 He planted them densely in the wide garden of the palace.
 He enjoys watching them every day and night.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부용군자용¹²⁶⁸⁾

만당추수의 흥련화,¹²⁶⁹⁾

암향부동월황혼¹²⁷⁰⁾ 소식 전턴 한매화,¹²⁷¹⁾

진시유랑거후재¹²⁷²⁾라 붉어 있다고 복송꽃,¹²⁷³⁾

구월구일용산음 소축신 국화꽃.¹²⁷⁴⁾

삼천제자¹²⁷⁵⁾를 강론¹²⁷⁶⁾을 혈 제 행단춘풍의¹²⁷⁷⁾ 은행꽃.

이화만지불개문허니 장산궁중 배꽃이요,¹²⁷⁸⁾

천태산¹²⁷⁹⁾ 들어가니 양변개작약¹²⁸⁰⁾이요,

원정부지이별허니 옥창오건의 앵도화.¹²⁸¹⁾

축국한¹²⁸²⁾을 못 이기어 제혈¹²⁸³⁾허든 두견화.¹²⁸⁴⁾

이화,¹²⁸⁵⁾ 노화,¹²⁸⁶⁾ 계관화,¹²⁸⁷⁾

황국,¹²⁸⁸⁾ 백국,¹²⁸⁹⁾ 사계화,¹²⁹⁰⁾

동원도리편시춘,¹²⁹¹⁾

목동요지가 행화춘.¹²⁹²⁾

월중단계무삼경¹²⁹³⁾ 달 가운데 계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왜철쭉,

진달화,¹²⁹⁴⁾ 난초, 파초,¹²⁹⁵⁾

오미자, 치자,¹²⁹⁶⁾ 감과,¹²⁹⁷⁾ 유자,

석류, 비파,¹²⁹⁸⁾ 능금,

포도, 머루, 어름,¹²⁹⁹⁾ 대초,¹³⁰⁰⁾

각색 화초, 갓은 향과¹³⁰¹⁾ 좌우로 심었는디,

향풍¹³⁰²⁾이 건듯¹³⁰³⁾ 불면, 벌, 나비, 새, 짐승들이 두 쪽지¹³⁰⁴⁾ 찍

별리고 지지울며¹³⁰⁵⁾ 노닌다.

[Jungjungmori] There are many flowers and flowering plants.
 A lotus flower blooming in August looks like a wise man.
 A fall pond is full of red lotus flowers.
 The fragrance of Japanese apricot wanders in the dim moonlight.
 All the peach blossoms were planted by an ancient poet.
 A chrysanthemum once derided a relegated subject in fall.
 Gingko blossoms bloomed in spring when Confucius gave a
 lecture to three thousand students.
 A court lady didn't open the gate when pear blossoms were
 piled up in a palace.
 There were peony blossoms on both sides of a road on a
 mountain.
 A woman watched cherry blossoms on a window while missing
 her husband in the battle field.
 An azalea threw up blood, overtaken by the grief that its country
 fell.
 There are plum flower, reed flower, cockscomb,
 red chrysanthemum, white chrysanthemum, and Chinese rose.
 A peach blossom blooms in spring.
 A shepard points to a village of apricot blossoms.
 A cinnamon tree is on the bright moon.
 There are garden zinnia, wild azalea,
 azalea, irise, plantain,
 Maximowiczia chinensis, torrey nut, citron,
 pomegranate, loquat, apple,
 grape, wild grape, clematis berry, and jujube.
 Various flowering plants and fragrant fruit trees are on the left
 and right.
 Bees, butterflies, and birds sing and dance with their wings wide
 open when a gentle breeze blows.

37. (천자 심청 발견) 천자가 꽃을 보며 즐기다가, 꽃 속에서 있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아니리] 그 때에 도선주는 천자께옵서 온갖 기화요초¹³⁰⁶)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인당수 뿔던 꽃을 어전¹³⁰⁷)에 진상¹³⁰⁸)하엿구나.

천자 보시고 좋아라고,

선인¹³⁰⁹)을 불러 무창 태수¹³¹⁰)로 제수¹³¹¹)하시고,

그 꽃을 후원 화계상에¹³¹²) 심어 놓고 날로 그 꽃으로 벗 삼으실 제,

[중모리] 천자 보시고 대희하사,¹³¹³)

“저 꽃이 웬 꽃이냐? 저 꽃이 웬 꽃이냐?

요지 벽도화¹³¹⁴)를 동방삭¹³¹⁵)이 따온 지가 삼천 년이 못 다 되니

벽도화도 아니요,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서 해상에 둥둥 떠왔는지?”

그 꽃 이름을 강선화¹³¹⁶)라 지으시고

조석으로 구경하실 제,

일야¹³¹⁷)는 천자 심신이 산란하여 화계상을 거닌디,

뜻밖에 강선화 떨어져

선녀들이 서 있거늘,

천자 괴이히¹³¹⁸)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나, 사람일다?”¹³¹⁹)

시녀 “예.” 하고 여짜오되, “남해 용궁 시녀로서

심소저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불의에¹³²⁰) 천안¹³²¹)을 범하엿사오니

황궁무지¹³²²)하오이다.”

이 말이 지듯마듯¹³²³) 인홀불견¹³²⁴) 간 곳 없고,

한 선녀만 서 있거늘,

37. (The Emperor Sees Sim Cheong) While watching his flowers, the emperor sees goddesses in the flower.

[Aniri] Meanwhile, the owner of the boat hears that the emperor seeks a beautiful flower.

He donates the flower from Indang Water to the emperor.

The emperor is delighted.

The emperor calls him and appoints him as a governor.

He plants the flower in his garden and watches it everyday.

[Jungmori] The emperor is happy to see the flower.

“What flower is this? What flower is this?”

Three thousand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n ancient man picked up a divine peach blossom from a pond.

So it can't be a divine peach blossom.

Did the lotus flower come from the paradise via the sea?”

The emperor names it God Descending Flower.

He watches it day and night.

One night, he feels uneasy and walks in the garden.

Unexpectedly, God Descending Flower opens up.

Goddesses stand there.

He is surprised.

“Are you ghosts or human beings?”

The maids respond, “We are maids from the dragon palace.

We have taken Miss Sim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Unexpectedly, we are spotted by you.

We feel nervous.”

The moment they finish speaking, they disappear.

Only one goddess is now in the flower.

38. (추월만정) 심청이 황후가 되어, 부친 생각에 눈물짓는다.

[아니리] 천자께옵서 대강 탐문¹³²⁵하시니 세상의 심소저로구나.
시녀로 시위하야 별궁¹³²⁶에 모셔놓고,
이튿날 조회석상¹³²⁷에서 간밤 꽃 본 사연을 말씀하시니,
제신등¹³²⁸이 여짜오되, “하늘도 국모¹³²⁹ 없으심을 알으시고 인연을
내렸사오니
물실차기¹³³⁰ 하옵소서.
국모로 정하심이 지당¹³³¹할까 하옵니다.”
천자 옳이¹³³² 여기시고 그날로 택일¹³³³할 제, 오월 오일 갑자시라.
심황후 입궁¹³³⁴ 후 연년이¹³³⁵ 풍년이요, 가가호호¹³³⁶ 풍년이라.
요순천지¹³³⁷ 다시 보고,
선강직거¹³³⁸ 되었더라.
그 때여 심황후 부귀는 무쌍이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일야는¹³³⁹ 옥난간¹³⁴⁰에 빚겨¹³⁴¹ 앉아 탄식을 허실 적에,
[진양조] 추월은 만정허여¹³⁴²
산호 주렴¹³⁴³에 비치어 들 제,
청천¹³⁴⁴의 외기러기는 월하에¹³⁴⁵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 깰룩’ 울음을 울고 가니,
심황후 기가 막혀 기러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 기력아.
소중랑 북해상의 편지 전턴 기러기냐?¹³⁴⁶
도화동을 가거들랑 불쌍허신 우리 부친전에 편지 일 장 전하여라.”

38. (The Garden with the Bright Fall Moon) Sim Choeng becomes an empress and in tears misses her father.

[Aniri] After asking some questions, the emperor realizes that the goddess is Sim Cheong of the human world.

He orders his maids to take her to the residence for empress. On the following morning, he discusses the matter about the flower with his subjects in a meeting.

The subjects say, "Heaven knows we don't have an empress, so it sent one to us.

Please don't miss this chance."

It is natural to take her as the empress."

Thinking that is right, the emperor selects the wedding date to be May 5th.

After Empress Sim entered the palace, each house enjoyed a good harvest year after year.

It looks as if good old days came back,

and the country became a good place for a god to live in.

Empress Sim lives a noble life, but she only misses her father.

One night, she sits on a jade terrace and laments.

[Jinyangjo] The garden is bright with the fall moon.

The moonlight comes in through the coral blinds.

A lonely wild goose flies high in the clear sky.

It cries sadly as it flies away.

Empress Sim is dumfounded and speaks to the wild goose.

"Wild goose!

Are you the wild goose which sent an ancient diplomat's letter to his country?

If you go to Peach Blossom Village, send a letter to my poor father."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라할 제,
 한 자 쓰고 눈물 짓고,
 두 자 쓰고 한 숨 쉴 적,
 눈물이 먼저 떨어져서 글자마다 수묵¹³⁴⁷)이 되니,
 언어가 오착¹³⁴⁸)이로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창망¹³⁴⁹)한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두렷이¹³⁵⁰) 밝았구나.

39. (맹인 잔치 마련) 천자는 백일 동안 맹인 잔치를 열 것을 명하고, 심청은 부친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니리] 천자 내궁 ¹³⁵¹)에 들어와
 심황후 수색¹³⁵²)을 살피니 눈물 흔적이 있겠다.
 “부는¹³⁵³) 천하¹³⁵⁴)를 두셨고,
 귀는¹³⁵⁵) 황후옵난디,¹³⁵⁶)
 무슨 근심이 있나니까?”
 심황후 여짜오되, “천하막비왕토¹³⁵⁷)요
 술토지민이 막비왕민¹³⁵⁸)이나,
 세상에 불쌍한 게 맹인이오니,
 천하 맹인을 한 때 황극전에 불러 위로함이 어떠할까 하나니다.”
 천자 치하허시고,
 그 날로 각 도 각 읍으로 행관¹³⁵⁹)하시되,
 “대소 맹인간에¹³⁶⁰) 황성¹³⁶¹)서 맹인 잔치를 배설¹³⁶²)하였으니,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파직¹³⁶³)을 허리라.”

Empress Sim goes in her room to write a letter.
She writes one character and sheds tears.
She writes another character and sighs.
Tears drop on the letter, making the characters blotted.
Characters are mixed up.
She folds the letter and opens the door.
The wild goose is gone.
Only stars and the moon twinkled brightly beyond the clouds
far away.

**39. (Throwing a Banquet for the Blind) The emperor
orders to throw a banquet for the blind. Sim
Cheong waits for her father to show up.**

[Aniri] The emperor visits the empress's residence.
He notices the traces of tears on the empress's face.
"You are rich to have the whole country.
You are noble to be an empress.
Why are you in distress?"
The empress replies, "Every piece of the land belongs to you.
All people in this country are your people.
The blind are the most miserable people.
Why don't we invite the blind to the palace and console them?"
The emperor praises the empress.
He sends out an official letter to every provincial office.
"If a blind person, young or old, in a district fails to attend the
banquet, the governor of the district will be fired."

이렇듯 전령¹³⁶⁴)하여 놓으니,
 지어¹³⁶⁵) 애기봉사까지도 잔치에 참석하였던가 보더라.
 그 때여 심황후는 석달 열흘 맹인 잔치를 배설¹³⁶⁶)하여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오시지 아니하니,
 주야 자탄¹³⁶⁷)으로 지낼 적에,

40. (심봉사 딸 생각) 한편, 심봉사는 딸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진양조] 그 때여 심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부지¹³⁶⁸)
 지내갈 제,
 무릉춘 승상 부인이 심소저 효행에 감동되어
 강두¹³⁶⁹)에다 망사대¹³⁷⁰)를 지어놓고 춘추로¹³⁷¹) 제 지낼 제,
 도화동 사람들도 망사대 곁에¹³⁷²) 타루비¹³⁷³)를 세웠는데,
 비문에 허였으되, ‘지우노친폐쌍안하여
 살신성효행선거라.
 연파만리상심벽허니
 방초년년환불귀’라.¹³⁷⁴)
 이렇듯 비문¹³⁷⁵)을 하여 세워 놓으니,
 오고가는 행인들도 뉘 아니 슬퍼하리?
 심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드면,¹³⁷⁶)
 더듬더듬 길을 물어 망사대를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우더니라.
 일일도 심봉사 마음이 산란하여
 지평막대¹³⁷⁷) 훔어 쥔고,¹³⁷⁸) 더듬더듬 타루비를 찾아가서,
 “후유! 악아, 청아! 내가 또 왔다.
 너는 내 눈을 띄우라고 수중고혼¹³⁷⁹)이 되고,

The order is stated as above.
So even a blind child is to attend the banquet.
Empress Sim holds the banquet for 100 days.
She waits for her father, but he doesn't show up.
She sighs day and night.

40. (Mr. Sim Misses his Daughter) Meanwhile, Mr. Sim spends time shedding tears after losing his daughter.

[Jinyangjo] Meanwhile, Mr. Sim, a die-hard person, manages to live on.

The noble lady is moved by Sim Cheong's filial piety.
She builds a tower near the ferry, and holds a ritual every fall and spring.

The villagers build a monument of tears near the tower.
The monument reads, 'she worried that her old father was blind.
She left on board to kill herself and to serve her parent.
The water is always blue and deep with fog.
Flowers and grass become green every year, but she does not come back.'

The epitaph is inscribed in the monument as above.
Would there be a passerby who does not feel sad?
Whenever Mr. Sim misses his daughter,
he manages to visit the tower, hugs the epitaph, and sheds tears.
One day, Mr. Sim feels uneasy.
He manages to walk to the tower with the help of his cane.
"Hello honey. I am here again.
You became a lonely soul in water to open my eyes.

나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 일이란 말이나?
 날 데려가거라.
 나를 데려가그라.
 살기도 나는 귀찮히고,
 눈 뜨기도 내사 싫다.”
 비문 앞에 가 엎드려져,
 내리둥굴¹³⁸⁰ 치둥굴¹³⁸¹며,
 머리도 찢고, 가삼¹³⁸² 콧광,
 두 발을 구르면서
 남지서지¹³⁸³를 가르치는구나.¹³⁸⁴

41. (뽕덕이네 생김새와 행실) 이웃에 사는 뽕덕이네는 심봉사에게 자원출가하였는데, 얼굴이 박색이고 행실이 심술궂다.

[아니리] 밤이면은 집에 돌아와서 울고,
 낮이면은 강두에 가서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 때여 심봉사는 사고무친¹³⁸⁵ 수족¹³⁸⁶이 없어
 한 여인을 구할려고 허는디,
 마침 그 근촌¹³⁸⁷에 사는 한 여인이 있난디,
 호¹³⁸⁸가 뽕과였다.
 심봉사가 딸 팔아 전곡간에¹³⁸⁹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동리¹³⁹⁰ 사람도 모르게 자원출가¹³⁹¹하여,
 이 몸쓸 뽕덕이네가

My life is persistent.
I can't believe what happens to me.
Please take me there.
Please take me there.
I don't want to liv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He gets down in front of the monument.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hits his head and chest hard.
He moves his legs wildly.
His finger randomly points to this and that direction.

**41. (Bbaengdeok's Appearance and Behavior) Bbaengdeok,
a female neighbor, volunteers to marry Mr. Sim. She
is ugly and does bad things.**

[Aniri] Mr. Sim cries back in his house at night.
He cries near the ferry during the day.
He spends days and nights crying.
Meanwhile, Mr. Sim has no relative or a friend to turn to.
So he wishes to marry a woman.
By coincidence, there lives a woman in a neighboring village.
Her name is Bbangdeok.
She hears that Mr. Sim has some properties.
She marries him without announcing it to the villagers.
She is a bad woman.

심봉사 가산¹³⁹²)을 꼭 먹성질¹³⁹³)로 망하느니,¹³⁹⁴

꼭 이렇게 망하것다.

[자진모리]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벼 퍼 주고 고기 사먹고,

쌀 퍼 주고 떡 사 먹고,

이웃집에 밥불이기.¹³⁹⁵)

동인¹³⁹⁶) 잡고 옥 잘 하고,

초군¹³⁹⁷)들과 싸움허기,

잠자며 이 갈기와 배 꿇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울음 울고,

오고가는 행인다려¹³⁹⁸) 담배 달라 힐난¹³⁹⁹)허기.

술 잔뜩 먹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힐끗¹⁴⁰⁰)하면 헬끗¹⁴⁰¹)하고, 헬끗하면 힐끗하고, 뺨쭙¹⁴⁰²)하면 뺨

쭙¹⁴⁰³)하고, 뺨쭙하면 뺨쭙하고,

남의 혼인허랴 허고 단단히 믿었느니 해답¹⁴⁰⁴)을 잘 하기와

신부 신랑 잠 자느니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불이야!’

이년의 행실이 이러허여도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어떻게 타정¹⁴⁰⁵)이 되었든고,¹⁴⁰⁶)

나무칼로 귀를 예와가도¹⁴⁰⁷) 모를 만큼 되었든가 보더라.

She runs through his properties by eating them away.
She destroys them as follows:
[Jajinmori] Bbangdeok eats and drinks a lot.
She eats meat and rice cakes a lot.
She sells unshelled rice to buy and eat meat.
She sells hulled rice to buy and eat rice cakes.
She orders meals from her neighbors.
She holds a villager and swears at him.
She fights with woodcutters.
While sleeping, she grinds her teeth and scratches her belly.
She shakes her feet, and cries in the middle of night.
She pesters a passer-by to give her tobacco.
She drinks a lot and takes a nap in a pavilion.
She teases others with her peculiar facial expressions.
She speaks ill of people who are determined to marry each other.
When a bride and bridegroom sleep, she approach their room secretly.
“Fire!”
Bbangdeok’s behavior is bad as stated above.
But Mr. Sim does not know anything about that.
He is somehow emotionally attached to her.
He became insensitive to what others say about her.

42. (뽕덕이네 가산 탕진) 뽕덕어미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 한 심봉사는 뽕인잔치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난다.

[아니리] 하루는 전곡¹⁴⁰⁸) 조사를 헐 양으로 돈궤¹⁴⁰⁹)를 만져보니
엽전 한 푼이 없제.

“여, 뽕덕이네! 돈 궤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거, 어찌된 일이여?”

“아이고,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떡 사오고, 고기 사오고, 담배 사
오고 한 돈으로 다 썼소!”

“뭣이 어찌? 나 술·담배·떡·고기 많이 잘 사주더라.

그러면 저 건너 김순장댁¹⁴¹⁰)에 돈 삼백 냥 맡겨논 것이 있으니
찾아오소.

가용¹⁴¹¹)이나 쓰세.”

“저렇게 외정¹⁴¹²)은 살림속¹⁴¹³)을 몰라.

아, 낱지도 못하는 애기선다고¹⁴¹⁴) 살구값, 떡값, 팔죽값, 이리저리
제해부렀는디,¹⁴¹⁵)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썼겼소?”

“아니, 그 돈을 다 썼단 말이여?

여편네 먹는 것 쥐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영감!”

“또 어찌?”

“아이고, 영감!”

“어찌?”

“저지난달¹⁴¹⁶)부터 밥맛은 구미¹⁴¹⁷)가 뚝 떨어지고, 신 것만 구미가
당기는 것이

어찌 그런가 모르겠소.”

**42. (Bbaengdeok Wastes the Properties.) Deceived by
Bbaengdeok, Mr. Sim runs through his properties.
He hears about the banquet for the blind and
leaves for it.**

One day, he feels around in his safe to check his grain and money.

There is not even a coin.

“Bbaengdeok! Why on earth isn’t there any money in this safe?”

“Honey, I used all the money to buy you drinks, rice cakes, meat, and tobacco.”

“What? You bought me a lot of wine, tobacco, rice cakes, and meat?”

I lent three hundred dollars to Official Kim in the neighboring village.

Take it back from him.

Let’s use it as a daily expense.”

“A man doesn’t know the financial situation of a family.

The money is used to pay for apricots, rice cakes, red bean soup, and so on to be pregnant although I can’t.

Those things didn’t fall down from heaven.”

“What? Did you use all the money?”

Can we say that a wife eats like a mouse?”

“Honey!”

“What?”

“Oh, honey!”

“What?”

“Since last month, I lost my appetite and only wanted to eat sour things.

I don’t know why.”

“아니, 뭇이 어찌?
 신 것이 구미가 당겨?
 파하하하! 그러면 거 애기설라나보네.¹⁴¹⁸⁾
 그러면 거, 신 것이 구미가 당기면 무얼 먹는가?”
 “아, 살구 먹지요.”
 “살구는 얼마나 먹었는디?”
 “씨 되어보니¹⁴¹⁹⁾ 닷 말 세 되뿐이 안 뵈디다.”
 “허허, 거 신 것을 그리 많이 먹어,
 그놈 낭더라도 시건방지지는¹⁴²⁰⁾ 았을랑가¹⁴²¹⁾ 모르겠네.”
 하루는 관가에서 부름이 있어 들어간즉,
 황성¹⁴²²⁾서 맹인 잔치를 배설하였는디,
 어서 급히 올라가라 노자¹⁴²³⁾까지 후히¹⁴²⁴⁾ 주니,
 심봉사 노자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여, 뽕파!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는디
 어서 급히 올라가라 노자까지 후히 주니,
 나 혼자 어찌 갈게?”¹⁴²⁵⁾
 “아이고, 여필종부¹⁴²⁶⁾라니
 천리라도 만리라도 영감 따러 가지,
 어느 놈 따라갈 놈 있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뽕덕이네가 열녀도 더 되고, 백녀¹⁴²⁷⁾다, 백녀여.
 그러면 의복 조개¹⁴²⁸⁾ 있는 것,
 자네는 붓짐¹⁴²⁹⁾ 해서 이고,
 나는 나나리붓짐¹⁴³⁰⁾ 해 짊어지고,
 어서 떠나세.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한 지가 여러 날이 된 모양이여.”
 막상 도화동을 떠나려고 하니 서운하던가 보더라.

“What did you say?
Do you only want to eat sour things?
Oh yeah! You must be pregnant.
By the way, what sour things did you eat?”
“I ate apricots.”
“How many apricots did you eat?”
“The seeds added only up to five bags.”
“My goodness. How could you eat so many sour things?
You might give birth to a naughty child.”
One day the local government calls Mr. Sim, and he goes there.
He hears that the banquet is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They tell him to hurry, giving him a lot of travel money.
He takes the money and comes back home.
“Bbaengdeok! A banquet is being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They told me to hurry, giving me a lot of travel money.
How can I go there alone?”
“Oh, a woman is to follow her man.
I will follow you even to the end of the earth.
Do I have anybody else to follow?”
“You are better than a virtuous woman.
We have only a little clothes.
You carry a luggage on your head.
I will carry another on my shoulder.
Let’s go now.
Several days have passed since the banquet began in the capital city.”
When Mr. Sim actually tries to leave the village, he feels sorry.

43. (뽕덕이네 도망) 황성 가는 길에 뽕덕이네는 황봉사와 도망해 버린다.

[중모리] “도화동아, 잘 있거라.

무릉춘도 잘 있거라.

내가 인자¹⁴³¹⁾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때 오랴느냐?

어이 가리너?¹⁴³²⁾ 어이 가리?

황성 천 리를 어이 갈거나?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 자고 가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 잘거나?

조자룡의 월강¹⁴³³⁾허든 청충마¹⁴³⁴⁾나 있거드면 이 날 이 시로¹⁴³⁵⁾

가련마는,

앞 못 보는 이 내 병신이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여보소, 뽕덕이네!”

“예!”

“길소리¹⁴³⁶⁾나 좀 메겨주소.¹⁴³⁷⁾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뽕덕이네가 길소리를 메기는데,

어디서 들었는디 저 경상도 메나리조,¹⁴³⁸⁾ 전라도 김매는 소리 반,

반반씩 섞어서 메겨보는데,

“어이 가리너, 어이를 갈거나?

황성 천 리를 어이를 갈거나?

날개 돋힌 학이나 되면, 수루루 펄펄 날아 이 날 이 시로 가련마는,

앞 못 보는 봉사 가장 데리고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일색¹⁴³⁹⁾이다, 일색이여. 우리 뽕덕이네가 일색이여.”

이렇듯이 올라갈 제, 주막에 들어 잠잘 적에,

43. (Bbaengdeok Runs Away)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elopes with Mr. Hwang, another blind man.

[Jungmori] “Take care, Peach Blossom Village.

Take care, Paradise Village.

If I go now, when will I come back?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et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Where should I sleep tonight?

Where should I sleep tomorrow night?

If I have the ancient warrior’s bluish horse, I can arrive there today.

Given that I am blind, how many days should I walk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Yes!”

“Sing the travel song with me.

My legs hurt.”

“Bbaengdeok responds to him in the travel song.

She must have heard the melody from Kyeongsang Province and the weed song from Jeolla Province.

She mixed them together half and half.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et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If I were a crane, I would fly to the capital city right away.

How many days should I walk with my blind husband to the capital city?”

“Bravo! Bravo! You are the best, Bbaengdeok.”

They travel and drop by an inn to sleep.

그때여 뽕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¹⁴⁴⁰⁾

심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ندی,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뽕덕이네를 찾는구나.

[아니리] “여, 뽕파, 어서 일어나!

이 삼복성염¹⁴⁴¹⁾에 더워서 낮에는 걸어갈 수 없고,

새벽에 한 사오십 리 처야¹⁴⁴²⁾ 될디!¹⁴⁴³⁾

아, 어서 일어나!

어허, 또 여기까지 와서 재담이제.¹⁴⁴⁴⁾

거 방구석지서¹⁴⁴⁵⁾ 뭇 하고 서 있어?

어서 가자니까.

내가 보듬고¹⁴⁴⁶⁾ 와야지.”

방 네 구석을 다 더듬어도 뽕덕이네가 없것다.

심봉사 그제야 겁이 왈각¹⁴⁴⁷⁾ 나,

“여보, 주인!”

“예!”

“거, 혹 우리 마누라 거기 안 갔소?”

“아니오. 어떤 젊은 봉사하고 새벽길친다고¹⁴⁴⁸⁾ 벌써 떠났소.”

“아니, 뭇이 어찌?

아니, 그러면 주인 녀석이 되어가지고

인자사¹⁴⁴⁹⁾ 그 말을 혀?”

“아, 그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¹⁴⁵⁰⁾인 줄 알았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소?”

“그는 그러졌다.

아이고, 이년이 갔네!”

Meanwhile, Bbaengdeok falls in love at first sight with Mr. Hwang, a blind man, living nearby.
After Mr. Sim goes to sleep, she elopes with him at night.
Mr. Sim doesn't know anything about tha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ks for Bbaengdeok.
[Aniri] "Bbaengdeok! Wake up!
We can't walk in the middle of the day because it is too hot.
We should begin to walk early in the morning.
Get up!
You must be joking when we are here.
What are you doing in the corner of the room?
Let's go now.
Let me go to you and hug you."
He gropes the four corners of the room in vain.
Mr. Sim is suddenly astonished.
"Landlady!"
"Yes!"
"Is my wife there by any chance?"
"No, she already left with a blind man, saying they would travel early in the morning."
"What did you say?"
God! You are the landlady.
How can you say that now?"
"I thought the young blind man was her husband.
How could I know you are her husband?"
"Okay. I understand.
Alas! This woman has gone!"

44. (심봉사 탄식) 뽕덕어미가 도망해 버린 것을 안 심봉사가 탄식한다.

[진양조] “허허, 뽕덕이네가 갔네그러!

야, 요 천하 의리 없고 사정없는 요년아!

당초¹⁴⁵¹)에 내가 버릴 태면, 있던 곳에서 마다고 허제,¹⁴⁵²)

수백 리 타향에다가 날 버리고

내가 무엇이 잘 되겠느냐, 이년아!

귀신이라도 못 되리라, 요년아!

너 그럴 줄 내 몰랐다.

아서라,¹⁴⁵³) 현철¹⁴⁵⁴)허신 꺾씨도 죽고,

출천대호¹⁴⁵⁵) 내 딸 청이 생죽음¹⁴⁵⁶)도 당했는디,

네까짓 년을 생각하는 내가 미친 놈이로고나.

에라, 이 호랭이라도 파썩¹⁴⁵⁷) 깨물어갈 년!”

[중모레] 주인을 불러 하직하고 황성길을 올라간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그 자리 꺾¹⁴⁵⁸) 주저앉더니,

“아이고, 뽕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뽕덕이네.

야, 이 천하의 무정한 년아!

눈 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내가 무엇이 잘 되겠느냐?

새 서방 따라서 잘 가거라.”

그렇저렇 올라갈 제,

이 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삼복성염이라.

태양은 불별 같고,

**44. (Mr. Sim Laments) Mr. Sim laments, realizing that
Bbaengdeok ran away.**

[Jinyangjo] “Oh god. Bbaengdeok has left me.
What an ungrateful and cruel woman she is!
If you had wanted to desert me, you should have done it in
the village.
You abandoned me in a strange place.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Bad woman!
You cannot even become a ghost. Wicked woman!
I didn’t know you would betray me.
No! I survived the death of my virtuous wife, Mrs. Gwak.
I even survived the unfair death of my daughter, Cheong.
I am crazy to think about a shallow woman like you.”
Oh! A tiger should bite her hard and take her away!”

[Jungmori] He says goodbye to the landlady and leaves for the
capital city.
He goes out of the inn.
He thinks about his wife again and slumps down.
“Alas! Bbaengdeok! Bbaengdeok!
What a heartless woman!
It is inhumane even to betray a sighted husband.
But you betrayed me, a blind husband.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Have a nice life with the new husband.”
He manages to walk to the capital city.
When is it now?
It is the hottest period of the year.
The sun is hot like fire.

더운 땀을 휘뿌릴 제,¹⁴⁵⁹⁾ 한 곳을 점점 내려허니,

45. (심봉사 목욕) 심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목욕을 하다가 옷을 도둑맞는다.

[중중모리] 천 리 시내는 청산¹⁴⁶⁰⁾으로 들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솔솔,
열의 열두 골¹⁴⁶¹⁾ 물이 한 데 합수쳤다,¹⁴⁶²⁾
천방자 지방자 월턱쳐 구비쳐,¹⁴⁶³⁾ 방울이 버끔져,¹⁴⁶⁴⁾
건너 병풍석¹⁴⁶⁵⁾에다 마주 광광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요런 경개¹⁴⁶⁶⁾가 또 있나?
심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욕을 할 양으로 더듬더듬 내려가,
상하 의복을 훑훑 벗어 지팡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서,
“에, 시원하고 장히¹⁴⁶⁷⁾ 좋다.”
물 한 주먹 덩씩¹⁴⁶⁸⁾ 쥐어 양추질¹⁴⁶⁹⁾도 꺾꺾 하고,
또 한 주먹 덩씩¹⁴⁷⁰⁾ 쥐어 겨드랑도 문지르며,
“에이, 시원하고 장히 좋다.
삼각산¹⁴⁷¹⁾을 올라선들 이에서¹⁴⁷²⁾ 시원허며,
동해 유수¹⁴⁷³⁾를 다 마신들 이어서¹⁴⁷⁴⁾ 시원헐거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툼병툼병¹⁴⁷⁵⁾ 즐시구.”¹⁴⁷⁶⁾
[아니리] 목욕을 하고 수변¹⁴⁷⁷⁾에 나와
의관, 의복을 입으려 할 제,

While sweating like rain, he gets close to a certain place.

45. (Mr. Sim Takes a Bath) Mr. Sim gets his clothes stolen while taking a bath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Jungjungmori] A stream turns around a green mountain.
Water flows naturally from valleys.
The water from many valleys forms a stream.
The stream rolls wildly, making foams.
It bumps head-on against a large rock.
The mountain trembles.
This is a great view.
Mr. Sim is delighted to hear the sound of water.
He manages to get to a stream to take a bath.
He takes off his clothes and puts his cane on them.
He walks slowly into the stream.
“Oh, it is cool. This is great.”
He grabs a handful of water and washes his teeth.
He grabs another handful of water and rubs under his arms.
“It is really cool. It is good.
There would be no cooler stream than this one.
No water would be cooler than this one.
Hurrah! Yippee! What a delight! What a pleasure!”

[Aniri] After taking a bath, Mr. Sim gets out of the stream.
He tries to put on his clothes.

무지한¹⁴⁷⁸⁾ 도적놈이 심봉사 의복을 도적질해 가버렸구나.
 봉사 영이¹⁴⁷⁹⁾ 대단하야, 거기다 벗어났다고 해서
 목수 먹줄¹⁴⁸⁰⁾ 텅기듯¹⁴⁸¹⁾ 쪽 바르게 들어와 의복을 아무리 찾아도
 없제.
 “아니, 내가 금방 여기다 옷을 벗어났는데
 어디를 갔어?
 이 바람에 날려갔나?
 오호, 지팽이는 여가¹⁴⁸²⁾ 있다.”
 누가 농한¹⁴⁸³⁾ 줄로만 아는구나.
 “거, 봉사하고 농이라니?
 어서 옷 가져와!
 쫓, 봉사하고 농을 하다니.”
 아무리 부르고 찾은들 도적맞은 옷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서 또 한 바탕 울음을 우는데,
[중모리] “허허, 이제는 영 죽었네.
 허허, 이제는 영 죽었네.
 백수풍신¹⁴⁸⁴⁾ 늙은 몸이 위아래를 벗었으니,
 황성 천 리를 어이 가며,
 불꽃같은 이 더위에 옷을 활썬¹⁴⁸⁵⁾ 벗었으니
 굶어서도 죽을 테요, 뜨거서도 죽겠구나.
 네 무지한 도적놈아, 내 의복 가져오너라!
 봉사 것 돌아가면¹⁴⁸⁶⁾ 열두 대 때봉사 난단다.
 내 의복 가져오너라!
 귀머거리, 앓은뱅이 날보담은¹⁴⁸⁷⁾ 상팔자¹⁴⁸⁸⁾라.
 일월¹⁴⁸⁹⁾이 밝았어도 동서분별¹⁴⁹⁰⁾을 내 못하니,
 살아 있는 내 팔자야.

A bad thief has stolen Mr. Sim's clothes.
He has a good memory, so he knows exactly where he put them.
He moves up in a straight line and fumbles for them in vain.
"Gosh, I put my clothes here a minute ago.
Where are they?
Were they blown away by a wind?
But my cane is here."
He thinks that somebody is playing with him.
"Are you playing with a blind man?
Bring my clothes!
How can you play with a blind man?"
No matter how he tries, he couldn't find his stolen clothes.
He cries loudly on the spot.

[Jungmori] "Alas! I am dying here.
I am surely to die.
I am old with white hair and naked up and down.
I can't go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I am completely naked in this scorching heat.
I might starve to death or scorch to death.
You cruel thief! Bring my clothes back!
If you steal a blind person's property, your family will be blind for twelve generations.
Bring my clothes back!
A deaf or a crippled person is better than I.
I can't tell which direction is east or west even on the bright sun.
Alas! What a bad fate!

모진 목숨 죽지도 않고,
 내가 이 지경이 웬 일인고?”
 죽어도 양반이라 체면은 있는지라,
 두 손으로 앞을 가리고,
 “내 앞에 부인 오거든 저리 돌아서 가시오!
 나 어찌다 훗씬 벗었소.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냐?”
[아니리] 이렇듯 탄식을 할 적에, 그 때 마침 무릉 태수가 자내노라고,
 “들었거라.¹⁴⁹¹⁾ 물렸거라.¹⁴⁹²⁾ 에찌뤼! 에찌뤼!”
 벽제¹⁴⁹³⁾ 소리가 요란하구나.
 ‘옳다. 내가 인자¹⁴⁹⁴⁾ 살았다.
 관은 민지부모¹⁴⁹⁵⁾라고
 내가 저 관장¹⁴⁹⁶⁾에게 떼나 한번 써보리라.’
 벌거벗은 알봉사¹⁴⁹⁷⁾가 두 손으로 앞을 가리고 앙금앙금 들어가며,
 “아뢰어라! 아뢰어라! 사령 아뢰어라!
 여쭙어라! 여쭙어라! 급창,¹⁴⁹⁸⁾ 통인¹⁴⁹⁹⁾ 여쭙어라!
 지내가는 과객¹⁵⁰⁰⁾으로, 배알차로¹⁵⁰¹⁾ 아뢰어라!”
 행차가 머물더니,
 “거 어디 사는 소경이며,
 어찌하여 의관 의복을 훗씬 벗었으며,
 무슨 말을 허랴는고?”
 “예, 소맹¹⁵⁰²⁾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읍기는 황주 도화동 사읍는다,
 황성 잔치에 가는 길에
 하도 날이 더웁기로 저 곳에서 목욕을 허다,
 의관 의복을 잃었사오니,

My life is persistent.
Why does a misery fall on me?"
He speaks with decorum as he should as a high class man.
He covers the front part with hands.
"If there is a lady in front of me, please turn around.
I am somehow completely naked.
Alas! I can't believe this."

[Aniri] While Mr. Sim laments, a governor passes by as luck would have it.
"Here comes the governor. Turn around. Step back."
There are loud shouts to clear the way.
'Oh yes! I am out of trouble now.
A government official is like a parent to the people.
I will ask that governor to help me.'
The naked blind man covers the part with his hands and slowly steps forward.
"Servant, report to your master!
Officer, report to your boss!
Tell your master a traveler wants to see him."
The procession stops.
"Where do you live, Mr. Blind?
Why are you completely naked?
What do you want to say?"
"Okay. Let me report to you, sir.
I live in Peach Blossom Village.
I was on my way to banquet in the capital city.
It was so hot that I took a bath over there.
I got my clothes stolen.

진소위주출지망량¹⁵⁰³)이요,
 진퇴유곡¹⁵⁰⁴)이 되었으니,
 한 벌 내어주시고 가시든지, 옷을 찾아주고 가시든지,”
 [중모레] “별반 처분¹⁵⁰⁵)을 하옵소서.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¹⁵⁰⁶)허였으니,
 태수장¹⁵⁰⁷) 덕택에 살려주오.”

46. (방아 찰는 부인들) 심봉사가 무릉태수를 만나 의복을 얻어 입고 황성길을 가다, 방아찰는 부인들을 만난다.

[아니레] 태수 측은히 여기시고 교군꾼¹⁵⁰⁸) 부르시더니,
 “너는 갓, 망건¹⁵⁰⁹) 소경 주어라.”
 수노¹⁵¹⁰) 불러 노비¹⁵¹¹)까지 내어주니,
 “은혜 백골난망¹⁵¹²)이오.
 황성 갔다 오는 길에 기언치¹⁵¹³) 찾아뵈옵지요.
 그란디,¹⁵¹⁴) 거 무지한 도적놈이 저 음산동¹⁵¹⁵) 담뱃대까지 가져갔습
 니다.”
 태수 허허 웃으시며,
 “그러면 어찌자는 말인고?”
 “그저 그렇다는 말씀이지오.”
 “대¹⁵¹⁶)와 담배까지 내어 주어라.”
 백배사례¹⁵¹⁷) 하직허고,
 녹수교¹⁵¹⁸) 열른 건너, 낙수교¹⁵¹⁹)를 지낸 후에
 한 모룡¹⁵²⁰) 돌아드니,
 부인들이 모여 방아를 찰노라고 ‘히히 하히’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I am in trouble now.
I don't know what to do.
Please give me new clothes or find my old clothes for me.”
[Jungmori] “Please give me special consideration.
If you are nice to others, your family will prosper without fail.
Mr. Governor, please help me.”

**46. (Milling Women) Mr. Sim comes across a governor
from whom he gets clothes. He meets milling
women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Aniri] The governor takes pity on Mr. Sim and calls a carriage carrier.
“Give the blind man your hat and headband.”
He even gives him some travel money via the head servant.
“You have my eternal gratitude.
I will visit you on my way back home.
By the way, the heartless bad thief even took my tobacco pipe.”
The governor laughs.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I am just saying he took it.”
“Give him tobacco and a tobacco pipe.”
Mr. Sim bows to the governor many times and says goodbye to him.
He walks over a bridge and another one.
He turns around a corner.
Some women are milling together, make loud laughing sounds.

심봉사 그곳을 지내노라니 공연히 부인들이 농¹⁵²¹⁾을 청하제.
 “아따, 근래에 봉사덜 안 시케주드라.¹⁵²²⁾
 저 봉사도 황성 잔치에 가는 봉사제?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라,
 방해나 좀 찢어주고 가제.”
 “뭣이 어째?
 공연히 방해를 찢어줘?”
 “아, 방해를 찢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지요.”
 “거 실없이¹⁵²³⁾ 여러 가지 것 준다.
 일포식도 채수라고,¹⁵²⁴⁾
 한번 찢어볼까?
 그런데, 여보시오, 부인님네!
 망노이가¹⁵²⁵⁾라는 말이 있으니,
 우리가 방해를 찢되 소리를 맞아가며¹⁵²⁶⁾ 찢읍시다.”
 “그릅시다.”
 방해소리를 맞아가며 찢어보는데,

47. (방아타령) 심봉사가 방아를 찢는 여인들을 만나 방아 를 찢어주고 밥을 얻어 먹는다.

[중중모리] “어유아 방어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끄덩 땡땡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태고라 천황씨는 이목덕으로 왕허였으니,¹⁵²⁷⁾
 남기¹⁵²⁸⁾ 아니 중할씨고?”¹⁵²⁹⁾
 “어유아 방아요.”
 “유소씨 구목위소¹⁵³⁰⁾ 이런 나무로 집 지셨나?”¹⁵³¹⁾

When Mr. Sim passes by, the women speak to him in joke.
 "These days blind men must be happy.
 That blind man must be going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too.
 Please don't just go nonchalantly.
 Help us with this mill."
 "What did you say?
 Mill for you for free?"
 "Oh, if you mill for us, we will give you wine, rice, and meat."
 "Those things are not impressive.
 A saying holds that one should be lucky to eat fully.
 Let me mill for you.
 By the way, ladies!
 They say they sing a song to forget the pain.
 Let's mill together but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song."
 "No problem."
 They sing the mill song while milling.

47. (Mill Song) Mr. Sim encounters milling women. He mills for them, and gets food in return.

[Jungjung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An ancient king became a king thanks to wood.
 So wood is a precious thing."
 "Here goes a mill."
 "Did another ancient king build a house with this kind of
 wood?"

“어유아 방아요.”

“이 방해가 누 방해? 강태공의 조작이로다.”¹⁵³²⁾

“어유아 방아요.”

“옥빈홍안¹⁵³³⁾의 비녀런가?¹⁵³⁴⁾

가는 허리에 잠¹⁵³⁵⁾이 찢렸구나.”

“어유아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 보니,

초왕궁인의¹⁵³⁶⁾ 허릴런가?”¹⁵³⁷⁾

“어유아 방아요.”

“머리 들어서 오르는 양은

창해 노룡¹⁵³⁸⁾이 성을 낸 듯.”

“어유아 방아요.”

“머리 숙여서 내리는 양은

주문왕¹⁵³⁹⁾의 돈수¹⁵⁴⁰⁾런가?”

“어유아 방아요.”

“오고대부¹⁵⁴¹⁾ 죽은 후에 방해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상¹⁵⁴²⁾ 즉위허사¹⁵⁴³⁾ 국태민안¹⁵⁴⁴⁾ 하옵신데,

하물며 맹인 잔치 고금¹⁵⁴⁵⁾에 없는지라,

우리도 태평성대 방해타령을 하여보자.”

“어유아 방아요.”

[자진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그렁 땡땡 잘 찢는다. 어유아 방아요.”

“민첩청산¹⁵⁴⁶⁾을 들어가 이 나무, 저 나무 베어다가 이 방애를 놓았
는가?”¹⁵⁴⁷⁾

“방애 만든 형용¹⁵⁴⁸⁾ 보니, 사람을 비했는가¹⁵⁴⁹⁾

두 다리를 찢 벌렸구나.”

“Here goes a mill.”
 “This mill is possible thanks to an ancient politician.”
 “Here goes a mill.”
 “Is this a beautiful woman’s hairpin?
 It pierces through the thin waist of the mill.”
 “Here goes a mill.”
 “The waist is long and thin.
 Is it an ancient court lady’s waist?”
 “Here goes a mill.”
 “Its head moves up.
 It’s like an old dragon losing its temper in a wide sea.”
 “Here goes a mill.”
 “Its head moves down.
 Is it an ancient king giving a big bow?”
 “Here goes a mill.”
 “Milling sound stopped after an ancient politician died.
 After our king was crowned, this country is happy.
 A banquet for the blind is unprecedented.
 Let’s sing a mill song in this peaceful time.”
 “Here goes a mill.”

[Jajin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Did they make this mill after cutting down this and that tree
 on the mountains?”
 “This mill looks like a human body.
 Its two legs are spread wide.”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한 다리 늘어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오리락 내리락히는 양 이상하고도 맹랑허다.”¹⁵⁵⁰⁾

“어유아 방아요.”

“황성 천리 가는 길에 방아 찧기도 처음이로구나.”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그덩 땡땡 잘 찧는다. 어유아 방아요.”

“미끈미끈 보리방애.”

“어유아 방아요.”

“찢덕찢덕¹⁵⁵¹⁾ 찰떡 방애라.”

“어유아 방아요.”

“꼬습구나¹⁵⁵²⁾ 깨방애로다.”

“어유아 방아요.”

“호호 맵다, 고추방애.”

“어유아 방아요.”

“보리쌀 뜨물에 푯호박국 끓여라.

우리 방애꾼¹⁵⁵³⁾ 배충복¹⁵⁵⁴⁾허자.”

“어유아 방아요.”

[중중모리] “떨그덩 땡땡 자주 찧어라.

점심때가 늦어간다.”

“어유아 방아요.”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One leg supports the body.
The other leg stamps the mill.
When the mill moves up and down, it looks bizarre.”
“Here goes a mill.”
“This is the first time to mill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A barley mill is slippery.”
“Here goes a mill.”
“A sweet rice mill is sticky.”
“Here goes a mill.”
“A sesame mill smells good.”
“Here goes a mill.”
“A pepper mill is hot.”
“Here goes a mill.”
“Make a soup out of barley and young pumpkin.
The miller needs to fill up his stomach.”
“Here goes a mill.”

[Jungjungmori] “This mill works well.
It is time for lunch.”
“Here goes a mill.”

48. (안 씨 맹인) 심봉사가 황성 근처에서 안 씨 맹인을 만나 인연을 맺고, 딸을 만날 꿈을 꾀다.

[아니리] 이렇듯 방아를 찧고,
일포식도 채수라고¹⁵⁵⁵)
점심밥 걸게¹⁵⁵⁶) 얻어먹은 후에 그 자리를 떠났구나.
또 한 모롱¹⁵⁵⁷)을 돌아드니,
어떠한 부인이 심봉사를 소상각지¹⁵⁵⁸) 알고 찾거늘,
‘이상한 일이다.
이곳에서 나를 알 리가 만무¹⁵⁵⁹)한디,
누가 나를 알고 나를 찾는고?’
그 여인을 따라가니,
외당¹⁵⁶⁰)에 앉혀놓고 석반¹⁵⁶¹)을 든든히 먹인 후에,
또 다시 나오더니,
“여보시오, 봉사님.
내당¹⁵⁶²)에서 부인이 찾으시니
나랑 같이 들어가사이다.”
“아니, 나는 봉사만 되었지 무슨 독경¹⁵⁶³)도 못하는 봉사요.
혹 댁에 의단¹⁵⁶⁴) 있소?”
“아니올시다.”
“내당에서 부인이 찾으시니,
어서 들어갑시다.”
내당에 들어가니,
어떠한 부인이 좌¹⁵⁶⁵)를 주어 앉힌 후에,
[중모리] 그 부인이 허는 말이, “소녀는 안 가이요,
저도 또한 맹인으로

48. (The Meeting of a Blind Woman, Mrs. An) Mr. Sim
sleeps with a blind woman near the capital city,
and dreams a favorable dream.

[Aniri] Mr. Sim mills for the women.

A saying holds that one should be lucky to eat fully.

Mr. Sim ate a big lunch from them and takes off.

He turns around a corner.

A woman knowing him in detail looks for him.

'this is strange.

There is no one here who knows about me.

Who knows about me and looks for me?'

He follows her.

She provides a wonderful meal to him in the guesthouse.

She comes back.

"Hello, Mr. Sim.

A lady waits for you in the main room.

Let's get in with me."

"Wait, I am just a blind man that can't even chant a prayer.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this home?"

"No."

"A lady waits for you in the main room.

Let's get in."

He enters the main room.

A lady asks him to take a seat.

[Jungmori] The lady says, "My last name is An.
I am blind too.

부모 일찍 기세¹⁵⁶⁶허고, 어려서 복술¹⁵⁶⁷을 배웠기로
평생을 아자지¹⁵⁶⁸라.

이십오 세에 길연¹⁵⁶⁹이 있난디,

금년 이십오 세일뿐더러,

간밤에 꿈을 꾸니,

하늘의 일월이 떨어져 물에 잠겨 보이기로

심 씨 맹인인 줄 짐작허고,¹⁵⁷⁰

또한 소첩¹⁵⁷¹이 품어 안아 보였으니

인연인가 허웁니다.”

[아니레] “무치¹⁵⁷²하나 저버리지 마옵소서.”

심봉사 속으로는 좋으나,

“어디 그럴 수가 있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날 밤 동방화촉¹⁵⁷³의 호접몽¹⁵⁷⁴을 꾸었구나.

심봉사 아침 일찍 일어나 수심 겨워 허는 말이,

“여보시오, 안 씨 맹인. 내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소.

내가 불 속에 들어가 보이고,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고,

또 가죽을 벗겨 북을 매어¹⁵⁷⁵ 보이니,

이 아니 흉몽¹⁵⁷⁶이오?”

안씨 맹인 해몽을 허는디,

“신입화허니 화락이요,

거피작고허니 고성이요,

낙엽이 귀근허니 자녀를 가봉이라.¹⁵⁷⁷

그 꿈 장히 좋소.

오늘 궐내¹⁵⁷⁸에 들어가면 좋은 증험¹⁵⁷⁹이 있으리다.”

“아니, 자녀를 가봉이라니?

I lost my parents and learned to do fortune-telling in childhood.
I know about my fate.
I am to marry at twenty five.
I am twenty five this year.
Besides, I had a dream last night.
The sun and the moon immersed in water.
So I thought he would be a blind man.
Moreover, I hugged the sun and the moon.
So he will be my husband.”

[Aniri] “I am shameless. But please don’t reject me.”
Mr. Sim is delighted in his mind.
“How can we become a couple?”
Somehow, they got married and had a sweet dream that night.
Mr. Sim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speaks in anxiety.
“Look, honey. I had a strange dream last night.
It appeared that I got into fire.
Leaves fell down and covered the root.
My skin was taken off and made into a drum.
Isn’t this an unfavorable dream?”
Mrs. An interprets the dream.
“Your entering fire means you will be joyful.
Your skin’s becoming a drum means there will be drum sounds.
The leaves’ covering the root means you will meet your child.
The dream is great.
There will be a good surprise for you in the palace.”
“What? I will meet my child?

자녀를 가봉이란 말은 참 천부당만부당¹⁵⁸⁰)이제.

그건 참 천부당만부당¹⁵⁸⁰이여.”

“아니올시다.

하여튼 궐내에 들어가시면, 좋은 증험이 있으리다.”

때마침,

49. (심황후 탄식) 심황후가 오지 않는 부친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중중모리] 어전 사령¹⁵⁸¹)이 나온다. 어전 사령이 나온다.

“각도 각읍¹⁵⁸²) 맹인님네!

오늘 잔치 망중¹⁵⁸³)이니,

바빠 나와 참례¹⁵⁸⁴)허오!”

골목골목 다니며, 이렇듯 외는¹⁵⁸⁵) 소리

원근산천¹⁵⁸⁶)이 땡그렇게¹⁵⁸⁷) 들린다.

[아니리] 그 때여 심황후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오시지 아니하니, 탄식으로 우는 말이,

[진양조] “이 잔치를 배설키는 부친을 위함인디,

어찌 이리 못 오신고?

당년¹⁵⁸⁸) 칠십 노환¹⁵⁸⁹)으로

병이 들어서 못 오신그나?¹⁵⁹⁰)

내가 정녕 죽은 줄을 아옵시고, 애통하시다¹⁵⁹¹) 이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의 영검¹⁵⁹²)으로 완연히¹⁵⁹³) 눈을 떠서 맹인 축으¹⁵⁹⁴) 빠지셨나?

오시다 노중¹⁵⁹⁵)에서 무슨 낭패¹⁵⁹⁶)를 당하셨나?

오늘 잔치 망중¹⁵⁸³)인디,

어찌 이리 못 오신고?”

It doesn't make sense that I will meet my child.
That is really absurd."
"That's not absurd.
"I am sure that a good surprise is waiting for you in the palace."
At that moment,

49. (Empress Sim Sighs) Empress Sim laments while waiting for her father.

[Jungjungmori] An officer comes out. He comes out.
"Blind people from this country!
Today is the last day of banquet.
Please hurry up to the banquet."
He shouts in this and that alley.
The shouting sounds tremble the world.

[Aniri] Meanwhile, Empress Sim looks forward to her father.
But he doesn't show up, so she laments and cries.
[Jinyangjo] "This banquet is for my father.
Why doesn't he show up?
He is seventy years old this year.
Is he not coming because he is sick?
Did he die, having longed for me and having taken me to have died?
Is he classified as a sighted person because Buddha opened his eyes?
Did he get into trouble on the road while coming here?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Why isn't he coming?"

50. (부녀 상봉) 심봉사가 대궐에 들어가자 심황후가 불러 들여 거주와 처자에 관해 묻는다.

[아니리] 이렇듯 탄식허다 예부상서¹⁵⁹⁷)를 또 다시 부르시더니,
“네 여봐라. 오늘도 거주¹⁵⁹⁸) 성명을 명백히 기록하여 차차 호송¹⁵⁹⁹)
허되,
만일 도화동 심맹인 계시거든 별궁¹⁶⁰⁰)으로 모셔들여라.”
봉사를 차례로 점고¹⁶⁰¹)해 내려올 적에,
제일 말석¹⁶⁰²)에 앉은 봉사한테 당도허며,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내 성명은 심학규요.”
“심맹인 계신다!”
허더니마는,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어쩔라고 이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 줄은 모르나,
심맹인을 모셔오라 허셨으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공연한 잔치에 왔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데,
이 잔치를 배설키는 나를 잡을 양으로 배설을 헌 것이로고나.
아, 내가 살아서 무엇 하리!
내 지팽이나 좀 잡으시오.”
별궁에 들어가더니,
“심맹인 대령하셨소!”
심황후 부친을 살펴보니

50. (The Father and the Daughter Meet) Mr. Sim enters the palace. Empress Sim spots and asks him about his name and address.

[Aniri] Empress Sim sighs and calls a ceremonial official again.
“Bring me the list of names and addresses of the blind people.
If Mr. Sim from Peach Blossom Village shows up, bring him to my place.”

The official checks the list of blind people.

He approaches a blind man at the end of the line.

“Hello Mister. What is your name?”

“Yes, my name is Sim Hak-gyu.”

“I found Mr. Sim!”

He says, “Let’s go to the empress’s residence.”

“What are you going to do to me there?”

“I don’t know whether you will be punished or rewarded.

I was ordered to take you to there.

So let’s go to the empress’s residence.”

“I should not have come to this banquet.

Something occurs in my mind.

I am guilty of selling my daughter.

They are holding this banquet in order to arrest me.

Oh, I don’t want to live any longer.

Please hold my cane.”

They are now at the empress’s residence.

“Mr. Sim is here!”

Empress Sim takes a look at her father.

백수풍신¹⁶⁰³) 늙은 형용¹⁶⁰⁴)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¹⁶⁰⁵

심봉사가 딸을 보내놓고 3년 동안 어찌 울었던지 눈갓이¹⁶⁰⁶) 희어지고,¹⁶⁰⁷) 또한 피골이 상접이라.¹⁶⁰⁸)

산호 주렴¹⁶⁰⁹)이 가리어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심황후 또 다시 분부하시되,

“네 여봐라. 그 봉사 거주¹⁶¹⁰)를 묻고, 처자¹⁶¹¹)가 있나 물어보아라.”

심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마는,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니마는,

[중모리] “예, 소맹¹⁶¹²)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¹⁶¹³)웁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삼월 달에 산후 탈¹⁶¹⁴)로 상처¹⁶¹⁵)치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¹⁶¹⁶)에다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어

십오세 가 되었는디,

효성이 출천하야¹⁶¹⁷)

애비 눈을 띄운다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¹⁶¹⁸)로 죽은 지가 우금¹⁶¹⁹) 삼년이오.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주어 쓸 데 있소?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He looks old, his hair being gray.
Given that his face is full of sadness, it appears to be his father's.
He cried so much after he lost his daughter that his eyes rims
became soft, and that he became extremely thin.
Empress Sim can't see him clearly because of the coral blind.
She asks the official,
"Ask the blind man about his address, wife, and child."
Mr. Sim scarcely hears the empress when tears fall down from
his blind eyes.

[Jungmori] "Let me report to you, sir. Let me report to you, sir.
I lived in my hometown, Peach Blossom Village.
My name is Sim Hak-gyu.
My wife died of a disease after childbirth.
I held my daughter, who lost her mom, with a small blanket.
I managed to raise her by begging around for milk.
It was when she was fifteen.
Her filial piety was great.
She sold herself to sailors at 300 bags of rice to open her father's
eyes.
She di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hree years ago.
I haven't yet opened my eyes.
I only sold my daughter.
What would be the use of forgiving a parent who sold his child?
Please kill me right away."

51. (심봉사 개안) 심봉사가 딸을 만난 기쁨에 눈을 뜬다.

[자진모리] 심황후 기가 막혀

산호 주렴을 걷어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루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 깜짝 놀래, “아니, 누가 날다려¹⁶²⁰ 아버지래여?¹⁶²¹”

에이? 나보고 아버지라니?

이 말이 웬 말이여?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삼년인디,

누가 날다려 아버지라고 허여?”¹⁶²²)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깊은 물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어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 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여?

에이? 이게 웬 말이여?

내가 지금 죽어 수궁 천지를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 참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이곳이 어디라고 살어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¹⁶²³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허여라!

**51. (Mr. Sim Opens His Eyes.) Mr. Sim opens his eyes
at the joy of meeting his daughter.**

[Jajinmori] Empress Sim is stunned.

She pulls the blind away and runs to him without putting on shoes.

She hugs her father's neck. "Oh, father!"

Mr. Sim is surprised. "Uh? Who is calling me father?"

Uh? Am I your fat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My daughter, only child, was drown to death three years ago.

Who is calling me father?"

"Oh, father! Haven't you opened your eyes yet?

Cheong drowned to death at Indang Water came back alive.

Father, please open your eyes and take a look at me.

Oh, father!"

Upon hearing her, Mr. Sim is at a loss what to say.

"What? Are you Cheong?

What did you say?

Uh? What did you say?

Did I die and come to the sea palace?

Am I dreaming now?

Is this real?

My daughter, Cheong, has died.

How can you say she came back here alive?

If you are my daughter, let me see you.

Oh god! I need eyes to see my daughter.

Alas, I feel choked!

어디, 내 딸 좀 보자!”

심봉사가 두 눈을 끔적끔적¹⁶²⁴허는구나.

“어디, 내 딸 좀 보자!”

눈을 번쩍 떴구나.

52. (모든 맹인이 눈을 뜸) 심봉사가 눈을 뜨자, 천하 맹인 들도 일시에 눈을 뜬다.

[아니리] 이게 모두 부처님의 도술¹⁶²⁵이었다.

심봉사 눈 뜬 훈짐¹⁶²⁶에 잔치에 참례¹⁶²⁷한 봉사 모두 따라서 눈을 뜨는디,

[자진모리] 만좌 맹인¹⁶²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새 갈모¹⁶²⁹ 떼는¹⁶³⁰ 소리라.

‘쭉 쭉’ 허더니마는 그저 눈을 떠버리는구나.

석 달 동안 큰 잔치에

먼저 와서 참례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의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 중도¹⁶³¹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¹⁶³² 뜨고,

일하다 뜨고,

앉어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Let me see my daughter!”
Mr. Sim blinks his eyes repeatedly.
“Let me see my daughter!”
He opens his eyes.

**52. (All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Mr. Sim
opens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Aniri] Mr. Sim opened his eyes thanks to Buddha.
As a result of Mr. Sim's opening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in the banquet open their eyes.

[Jajinmori] All the blind people in the palace open their eyes.
They make sounds as if a paper hat were torn off.
They just opened their eyes, making opening sounds.
The banquet has been held for three months.
Those who attended the banquet early open their eyes at their
homes.
Those who haven't arrived open their eyes in the streets.
Some open while going.
Some open while coming.
Some open while standing.
Some open while sitting.
Some open without reason.
Some open while working.
Some open while playing.
Some open while waking up.

줄다 번뜻 뜨고,
 눈을 끔적거리다 뜨고,
 눈을 비벼보다 뜨고,
 지어비금주수까지¹⁶³³⁾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¹⁶³⁴⁾가 되었구나.

53. (심봉사 환호) 심봉사가 딸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춘다.

[아니리] 심봉사 정신을 차려 궁 안을 살펴보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픔 가득한 것은 심봉사의 설움이요,
 칠보금관¹⁶³⁵⁾ 황홀하야
 딸이라니 딸인 줄 알제,
 전후불견초면이로구나.¹⁶³⁶⁾
 천천히 살펴보더니마는
 한 기억이 나는데,
 [중모리] “옳제, 인제 알졌구나. 내가 인제야 알졌구나.
 갑자 사월 초과일야¹⁶³⁷⁾ 꿈속에 보던 얼굴 분명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¹⁶³⁸⁾하였는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인가?¹⁶³⁹⁾ 이거 생시냐?
 꿈과 생시 분별을 못 허졌네.
 나도 어제까지 맹인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서면은

Some open while drowsing.
Some open while blinking their eyes.
Some open while rubbing their eyes.
Even blind animals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The world becomes bright for them.

**53. (Mr. Sim Cheers.) Mr. Sim dances for joy after
taking a look at his daughter.**

[Aniri] Mr. Sim gathers himself and takes a look around.
He looks old with gray hair.
He is full of sadness and sorrow.
He gazes in rapture at a woman with a golden crown.
He believes she is his daughter because he was told so.
This is the first time to see her.
He takes a hard look at her.
Something occurs in his mind.

[Jungmori] “Oh, I see now. I see now.
This is clearly the face I saw in a dream with my wife.
I got my lost daughter back.
Did she come back to life?
Am I dreaming now?
Is this a dream or reality?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dream and reality.
I was blind until yesterday.
I got on the road with a cane.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알았느냐?
 지척 분별 못했더니,
 이제 나도 눈을 떠 천지¹⁶⁴⁰ 만물¹⁶⁴¹을 다시 보게 되니,
 지팽이 너도 고생 많이 허였다.
 이제 너도 너 갈 데로 잘 가거라!”
 ‘피르르르르르’ 내던지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 좋을시고.”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기화자자 절씨구.
 궁 안을 살펴보니,
 창해 만 리¹⁶⁴² 먼먼 길에 인당수 죽은 딸이
 환세상¹⁶⁴³ 황후되기 천천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고.
 어둑침침¹⁶⁴⁴ 빈 방 안에 불 켜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¹⁶⁴⁵에 자룡¹⁶⁴⁶ 본 듯이 반갑네.
 홍진비래 고진감래¹⁶⁴⁷ 날로¹⁶⁴⁸ 두고 이름인가?
 얼씨구나, 절씨구.
 이 덕이 뉘 덕이냐?
 심황후 폐하의 덕이라.
 일월이 밝어 중화¹⁶⁴⁹허니,
 요순 천지¹⁶⁵⁰가 되었네.
 태고적¹⁶⁵¹ 시절 이래로 봉사 눈 떴단 말 처음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고.
 송천자¹⁶⁵² 폐하도 만만세.¹⁶⁵³
 심황후 폐하도 만만세.
 부원군¹⁶⁵⁴도 만만세.
 천천만만세¹⁶⁵⁵를 태평으로만 누리소서.

I didn't know how I could get around.
I couldn't see anything.
Now that I opened my eyes, I can see everything in the world.
Mr. Cane! Your life must have been hard.
You are now free to go anywhere you want!"
He throws his cane away.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What a delight!"

[Jungjungmori] "Hurrah! Hurray! Whoopee!
Let me look inside the palace.
I thought my daughter died at Indang Water away from here.
I never imagined she would be back alive and become an empress.
Hurrah! Hurray!
I feel great as if a light got turned on in a dark room.
I am glad as if I met a great warrior on a battlefield.
For me, happy and unhappy events occur alternately.
Hurrah! Hurray!
Who should we thank?
We should thank Empress Sim.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This country became a paradise.
This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a blind person opens his eyes.
Hurrah! Hurray!
Long live the emperor!
Long live the empress!
Long live the empress's father!
Peace and happiness to everybody forever!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나?”

54. (황봉사) 황봉사가 죄상을 고백하자 한쪽 눈만 뜬다.

[아니리] 이렇듯이 춤추고 노닐 적에, 황극전¹⁶⁵⁶) 너른 뜰이 춤바다가
되었구나.

모두 이렇게 춤추고 노는디, 그 중에 봉사 하나 눈 못 뜨고 엉겨주춤
서서 울고만 있으니,

심황후 분부하시되,

“지어비금주수까지도¹⁶⁵⁷) 눈을 떴는디,

어찌해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는고?

죄상¹⁶⁵⁸)을 아뢰어라.”

그때여 황봉사가 뺨덕이네를 유인해 간 죄로 눈을 못 뜨고,

그 자리 엎드려지더니마는 죄상을 아뢰는구나.

[중모리] “예, 죄상을 아뢰리라. 예, 죄상을 아뢰리라.

심부원군 행차시에 뺨덕이라는 여인 앞세우고 오시다가,

주막에 들어 유숙¹⁶⁵⁹)을 허실 적에,

주인과 약속을 하고 뺨덕이네를 유인하여 밤중에 도망을 허였는디,

그날 밤 오경시¹⁶⁶⁰)에 심부원군 우시는 소리 구천¹⁶⁶¹)에 사무쳐서
명천¹⁶⁶²)이 아신 바라,

여태 눈을 못 떴으니,

이런 천하¹⁶⁶³) 몸쓸 놈을

살려주어 쓸 데 있소?

비수검¹⁶⁶⁴) 드는 칼로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What can bring more joy than this?"

54. (Mr. Hwang Repents) Mr. Hwang confesses his wrongdoing and opens only one of his eyes.

[Aniri] When everybody dances, as if the wide yard in the palace became the sea of dance,

While everybody dances in joy, one man, still blind, stands awkwardly and cries,

Empress Sim speaks,

"Even animals opened their eyes,

Why couldn't that man open his eyes?

Report to me about his wrongdoing."

Mr. Hwang couldn't open his eyes because he seduced Bbangdeok.

He kneels down on the ground and confesses his bad conduct.

[Jungmori] "Okay. Let me confess my wrongdoing, Your Highness,

Mr. Sim and Bbangdeok were on their way to the palace.

They dropped by an inn to sleep in.

I talked with the landlady, seduced Bbaengdeok, and ran away at night.

That night, Mr. Sim's cry was so loud that it must have been heard by heaven.

That's why I couldn't open my eyes yet.

I am really a bad person.

What would be the use of forgiving me?

Please kill me with a sharp sword right away."

[아니리] 심황후 이 말을 들으시더니,
 “인수무과리오.¹⁶⁶⁵⁾
 개즉위선이라.¹⁶⁶⁶⁾
 네 죄를 네가 아는 고로¹⁶⁶⁷⁾ 시이¹⁶⁶⁸⁾ 살리노라.
 어서 눈을 뜨라.”
 어명¹⁶⁶⁹⁾ 허여 놓으니,
 황봉사 그래도 죄가 남아 있어 눈 하나밖에 못 뜬 것이,
 마치 총 놓기¹⁶⁷⁰⁾ 좋게 뗏든가 보드라.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에 필유여앙이라.¹⁶⁷¹⁾
 어찌 천리¹⁶⁷²⁾가 있다 없다 이르리오?

55. (후일담) 많은 사람들이 벼슬과 상을 받는다.

[엇중모리] 그 때여 심생원¹⁶⁷³⁾은 부원군¹⁶⁷⁴⁾을 봉허시고,
 안씨 맹인 교지¹⁶⁷⁵⁾를 내려 정렬부인¹⁶⁷⁶⁾을 봉허시고,¹⁶⁷⁷⁾
 무릉춘 승상부인은 별급상사¹⁶⁷⁸⁾ 시키시고,
 그 아들은 직품¹⁶⁷⁹⁾을 돋오아¹⁶⁸⁰⁾ 예부상서¹⁶⁸¹⁾ 시키시고,
 화주승¹⁶⁸²⁾은 불러올려 당상¹⁶⁸³⁾을 시키시고,
 젓 먹이던 부인들과 귀덕어머니는 천금상¹⁶⁸⁴⁾을 내리시고,
 도화동 백성들은 세역¹⁶⁸⁵⁾을 없앴으니,
 천천만만세를 불렀더라.
 이 뒤야 뉘 알리오?
 호가도 장창불락이요,¹⁶⁸⁶⁾
 고수님 팔도 아플 지경이니,
 그만 더질 더질.¹⁶⁸⁷⁾

[Aniri] Empress Sim responds,
“Who couldn’t have a fault?
If you repent, you become a good person.
Since you repent of your wrongdoing, you are forgiven.
Open your eyes.”
She says so.
Mr. Hwang opens only one eye due to his wrongdoing.
His eyes are adequate for shooting a gun.
The moral is that a good person will be rewarded,
and a bad person will be punished.
How can we say that there is no divine law?

55. (Subsequent Story) Many people receive government positions and rewards.

[Eotjungmori] Mr. Sim is awarded a title as the empress’s father.
A royal order is issued, declaring Mrs. An a virtuous woman.
An award is given to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r son was promoted to a higher government position.
The Buddhist monk gets a government position. Properties are
granted to Mrs. Gwideok and the women who gave Sim Cheong
milk.
Villagers of Peach Blossom Village are exempted from tax and
drafted labor.
The villagers give hurrahs.
Who could know what happens next?
A good song, sung repeatedly, ceases to be good.
The drummer must feel tired in his arms.
So let me finish.

- 1) 宋. 중국 역사상 당나라, 오대십국(五代十國)에 이어지는 왕조(960-1279). 처음 개봉(開封)에 도읍하였으나, 1126년 정강(靖康)의 변(수도 개봉이 금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북송이 망하게 된 사건)으로 강남으로 옮겨 임안(臨安, 杭州)으로 수도를 옮겼다. 개봉시대를 북송, 임안시대를 남송이라고 한다.
- 2) 元豐.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 3) 黃州 桃花洞. 중국의 지명.
- 4) 累代名門巨族. 여러 세대에 걸쳐 이름을 떨친 세력이 있는 집안.
- 5) 名聲. 좋은 평판.
- 6) 家運. 집안의 운수.
- 7) 二十 以後. (나이가) 스무 살 이후.
- 8) 眼盲하니. 눈이 먼니.
- 9) 洛水靑雲에 발차취 끊어지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 10) 強近한. 촌수가 매우 가까운.
- 11) 누가.
- 12) 賢哲. 어질고 총명함.
- 13) 諫諍하사. 諫諍하시어.
- 14) 周南. 《시경》 “국풍”의 첫 편 이름.
- 15) 召南. 《시경》 “국풍”의 편명.
- 16) 關雎詩. 《시경》 “국풍”편의 첫 시 이름. 주나라 문왕과 그 후비(后妃)의 성덕을 읊은 시인.
- 17) 百執事可堪.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
- 18) 家長.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사람. 남편.
- 19)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 20) 冠帶. 본래 벼슬아치가 쓰던 모자와 허리띠를 함께 일컫는 말로, 관리의 복장을 가리 킴.
- 21) 道服. 도사가 입는 옷.
- 22) 行衣. 소매가 넓고 검정색 천으로 가를 꾸민, 선비의 옷.
- 23) 弊衣. 소매가 넓고 뒤틀기가 갈라진 옷. 벼슬아치가 평시에 입던 옷.
- 24) 直衿. 무관이 입던 옷의 하나.
- 25) 褰袖(夾袖). ‘동달’이라고도 함.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감 을 넣고 뒤틀기를 길게 켜 군복.
- 26) 快子. 등술기는 길게 찢고, 소매를 달지 않은 무관의 옷.
- 27) 소매가 넓고 길며, 옆이 터져서 네 폭으로 된 남자의 옷.
- 28) 누비질. 작은 바늘로 가늘게 누비는 바느질.
- 29)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30) 바느질의 한 종류로 술기를 꺾어서 꿰매는 일.
- 31) 단 하나의 울로 뜯은 망건이나 탕건.
- 32) ‘괴불’인 듯. 괴불은 괴불주머니로, 어린 아이들이 주머니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 네모진 색 형짚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납.
- 33) 끈추누비. 위 아래로 끈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34) 옷솔기를 오리는 일. '솔기'는 옷이나 이부자리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맨 줄.
 - 35)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물건.
 - 36) 櫛子. 겨울철에 부녀자가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조끼와 비슷한데, 주머니와 소매가 없고, 양 옆구리의 귀가 겨드랑이 밑까지 터졌음.
 - 37) 토시. 팔뚝에 끼워 추위를 막는데 쓰는 기구. 저고리 소매처럼 생겼는데,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음.
 - 38) 버선.
 - 39) 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든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 40) 布帶. 베로 만든 띠.
 - 41)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을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는 좁다란 끈.
 - 42) 주머니.
 - 43) 담배 또는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기름종이·형짚·가죽 따위로 만들.
 - 44) 藥囊. 약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 45) 筆囊. 붓을 넣어 두는 주머니.
 - 46) 揮項. '휘양'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47) 불끼. 방한구(防寒具)의 하나로, 털가죽이나 형짚 조각에 솜을 놓아 기름하게 접어 만들어서, 두 뺨을 싸서 머리 위에 잡아매.
 - 48) 幅巾.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 검은 형짚으로 위는 둥글고 삐죽하게 만들며, 뒤에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 옆에 끈이 있어 뒤로 돌려 맨.
 - 49) 風遮. 머리에 쓰는 방한구(防寒具)의 한 가지. 토끼·여우·수달·곰 같은 것의 포피로 만들며, 앞은 이마까지 오고, 옆은 귀를 덮게 되어 있으며, 뒤로 보면 삼각형임. 남녀의 것이 조금 다름.
 - 50) 처네.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 51) 周衣. 두루마기.
 - 52) 갓은. 온갓.
 - 53) 衾枕. 이불과 베개.
 - 54) 베개의 양쪽 끝에 대는 꾸밈새. 조그마한 널조각에 수를 놓은 형짚을 덮어 끼거나, 화각(畵角)을 대는데, 대개 남자의 것은 네모지게 만들고, 여자의 것은 둥글게 만들. '화각'은 목기나 세공품을 곱게 구미는 꾸밈새의 한 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쇠뿔을 얹게 오려 덧붙임.
 - 55) 雙鴛鴦. 두 마리의 원앙새. 한 쌍의 원앙새.
 - 56) 毛紗. 털실.

- 57) 角帶. 각띠. 벼슬아치가 예복에 띠던 띠를 통틀어 일컫는 말.
- 58) 胸背.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를 놓은 형표. 문관은 학, 무관은 호랑이를 수놓음.
- 59) 여기서는 ‘학을 수놓기’의 뜻임.
- 60) 宮綃. 비단의 한 가지. 넓고 무늬가 등근데, 흔히 땀깃감으로 씀.
- 61) 貢緞.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기 있는 고급 비단.
- 62)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63)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64)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65) 甲紗. 품질이 좋은 성글게 짠 비단.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66) 雲紋. ‘운문단(雲紋緞)’인 듯. ‘운문단’은 구름무늬를 수놓은 비단.
- 67) 吐絢. 두껍고 누르스름한 명주.
- 68) 甲絢. 품질 좋은 명주.
- 69) 盆絢. 황해도·평안도에서 나는 명주.
- 70) 縹絢. 오색 빛 명주.
- 71) 明絢.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베.
- 72) 生絹. 생사로 얇게 짠 비단. ‘생사’는 삶아서 익히지 않은 명주실.
- 73) 通絹. 싹 성글고 얇게 짠 비단.
- 74) 造布. 함경북도에서 나는 베의 한 가지. 너비가 좁고 두꺼우며 촘촘하게 짬.
- 75) 北布. 함경북도에서 나던, 울이 가늘고 고운 삼베.
- 76) 黃紵布. ‘계추리’를 말하는데, ‘계추리’는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짬.
- 77) 春布. 강원도에서 나던 베.
- 78) 門布. 삼베의 한 가지로, 중국 책문(柵門) 지방에서 남.
- 79) 계추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짬.
- 80) 白苧. 잿물에 삶아서 물에 빨아 희고 부드럽게 만든 모시. 눈모시. 흰모시.
- 81) 極上細木. 아주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
- 82) 靑·黃·赤·白. 파랑색, 노랑색, 붉은색, 흰색.
- 83) 沈香. 황갈색.
- 84) 各色으로다. 갖가지 색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 85) 圓衫. 부녀의 예복으로 갖추는 옷의 한 가지.
- 86) 祭服. 제사를 모실 때 입는 예복.
- 87) 婚葬大事. 혼례나 장례 등 큰 일.
- 88) 熟政. 음식을 만드는 일.
- 89) 갖은. 여러 가지.
- 90) 떡의 한 가지. 뽕쌀가루에 막걸리를 탄 더운 물을 붓고 질척하게 반죽하여, 더운 방에 하룻밤쯤 부풀리어 틀에 담아 붓고, 밤·대추·잣 등을 얹어서 찜.
- 91) 中桂. 유밀과의 한 가지.
- 92) 藥果. 과줄. 유밀과의 한 가지. 밀가루를 꿀물 도는 설탕물과 기름에 섞어 반죽을 한

- 뒤에, 과줄판에 박아서 속까지 검은 빛이 나도록 기름에 지지어 익힌 것.
- 93) 薄撒. 유밀과의 한 종류. 산자의 몸이나 혹은 엷을 얇고 반듯하게 베고, 잣이나 호두 따위를 양 쪽에 붙임.
- 94) 茶食. 녹말·콩·송화·황밤·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낸 음식.
- 95) 正果. 온갖 과일이나 새양·연뿌리·인삼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에 재거나 졸이어 만든 과자.
- 96) 花菜. 꿀이나 설탕을 탄 오미자국에 과실을 썰어 넣거나 꽃잎을 넣고 잣을 띄운 음료.
- 97) 상 위에 놓고 열구자당을 끓이는 그릇. 구리·놋쇠·은 따위로 만든 대접처럼 생긴 그릇인데, 가운데 솥불을 넣는 통이 있고, 통 주위에 음식을 넣어 끓이며, 밑 부분엔 굽이 있음.
- 98) 饌需. 반찬거리.
- 99) 水波蓮. 잔치 때에 차례로 쓰이는 종이로 만든 연꽃.
- 100) 잔치 때 차례로 쓰는 꽃 따위의 여러 가지 형상을 오려서 만드는 일.
- 101) 排床하기. 상 놓기. 상 차리기.
- 102) 껌질. 떡·과자·과일같은 것을 접시 따위에 높이 담아 올리는 일.
- 103) 手足. 팔다리
- 104) 蠹토록. 지치도록.
- 105) 옛날 엽전의 단위로, 한 돈의 10분의 1.
- 106) 열 푼, 한 냥의 10분의 1.
- 107) 냥. 엽전을 셀 때 열 돈에 해당하는 단위.
- 108) 貫돈. 엽전 열 냥에 해당하는 돈.
- 109) 日收. 본전에 이자를 얹어서 일정한 날짜에 나누어 날마다 얼마씩 갚아나가는 일, 또는 그 빚.
- 110) 遞計. 장계계(場遞計).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주고 장날마다 본전에 이자를 얹어 받아들이는 일.
- 111) 長利邊. 장리로 받는 이자. '장리'는 곡식이나 돈을 꾸어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에 본전의 절반을 이자로 받는 일.
- 112) 春秋時享. 봄가을에 가묘(家廟)나 5대조 이상의 산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 묘사.
- 113) 奉祭祀.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14) 始終이如一하니.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니.
- 115) 上下隣里. 위아래의 가까운 마을.
- 116) 무슨.
- 117) 이승. 지금 살고 있는 세상.
- 118) 恭待.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19) 便타. 편하다.
- 120) 어렵고 고되게 꾸러가는 살림살이.
- 121) 志願. 여기서는 "뜻을 두어 원함" 정도의 의미.
- 122) 年當四十이나. 나이가 40이 되었으나.

- 123) 膝下. 아버지나 조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 124)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 125)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 126) 香火. 향불. 제사를 올릴 때 피우는 향불.
- 127) 死後. 죽은 후.
- 128)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129) 神供. 신이나 부처님께 소원을 빌.
- 130) 四十 後. 마흔 살 이후.
- 131) 子女間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간에.
- 132) 여쭙되, 말씀드리되, 말씀드리기를.
- 133) 不孝三千에 無後爲大. 삼천 가지나 되는 불효 중에 후손 없는 것이 제일 큼.
- 134) 모지라지도록, 끝이 닳아서 없어지도록.
- 135) 至誠껏. 온 정성을 다 해.
- 136) 온갖.
- 137)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138)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 139) 古廟. 오래 된 사당.
- 140)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141) 釋王寺.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
- 142) 石佛. 돌부처.
- 143) 미륵보살. 돌로 만든 부처.
- 144) 허위허위. 허위적거리는 모양.
- 145) 袈裟시주. 중이 입는 옷인 가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대는 일.
- 146) 引燈시주. 부처 앞의 등불을 켜는데 쓰는 기름을 사서 바치는 일.
- 147) 窓糊시주. 절에 있는 방의 문에 문종이를 발라주는 일.
- 148) 十王佛供. 시왕전에 드리는 불공. ‘시왕(十王)’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고 하는 열 명의 대왕
- 149) 七星佛供. 칠성각에 드리는 불공. ‘칠성각’은 북두칠성을 모신 전각.
- 150) 羅漢佛供. 나한전에 드리는 불공. ‘나한’은 생사를 이미 초월하여 배울 만한 법도가 없게 된 자리의 부처.
- 151) 힘을 들인.
- 152) 나무.
- 153) 甲子 四月 初八日夜. 갑자년 4월 8일 밤.
- 154) 蟠空. 공중에 어림.
- 155) 五彩. 파랑·노랑·주홍·검정·흰색 등 다섯 가지 색깔. 갖가지 색깔.
- 156) 玉京. 하늘 위의 옥황상제가 산다는 상상 속의 서울.
- 157) 花冠. 칠보로 꾸민 여자의 관.
- 158) 圓衫. 부녀가 예복으로 갖추던 옷인데, 흔히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며, 연두 길에 자주 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옆을 터서 지음.

- 159) 桂花가지. 계수나무의 가지.
- 160) 拜禮. 절을 함.
- 161) 正身.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에 의탁하여 태생하는 육신.
- 162) 山上에. 산 위에.
- 163) 觀音. 관세음보살.
- 164) 海中에. 바다 가운데.
- 165) 皓齒. 흰 이빨.
- 166) 半開히여. 반만 열어.
- 167) 灑玉聲. 옥을 씻는 소리. 곧 그렇게 고운 목소리.
- 168)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신녀.
- 169) 蟠桃. 신도 복숭아.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고 열매가 연다고 함.
- 170) 進上.윗사람에게 바침.
- 171) 玉眞妃子. 옥진 낭자라고도 하는 신녀.
- 172) 數語. 몇 마디 말.
- 173) 酬酌. 서로 말을 주고받음.
- 174) 조금.
- 175) 늦었기 때문에.
- 176) 上帝. 옥황상제(玉皇上帝). 도가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 177) 得罪히여. 죄를 얻어.
- 178) 人間. 사람 사는 세상.
- 179) 내쫓으시므로.
- 180) 太上老君. '노자'를 도가에서 높여 부르는 말.
- 181) 后土夫人. 당나라 때 중국인들이 받들던 신. 중국 양주에 가면 이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고 함.
- 182) 諸佛菩薩. 여러 부처님과 보살.
- 183) 南柯一夢. 한 때의 헛된 꿈.
- 184)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185) 夢事. 꿈에 나타난 일.
- 186) 胎氣. 아이를 뱃 기미.
- 187) 席不正不坐. 좌석이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태교(胎敎)의 한 가지.
- 188) 割不正不食. 반듯하게 썬 것이 아니면 먹지 않음. 태교(胎敎)의 한 가지.
- 189)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90)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91) 坐不中席. 가운데 자리에 앉지 않음. 가운데 자리는 높은 사람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태교와 관련이 없으며, '좌불변(坐不邊)'(한 쪽으로 치우치게 앉지 않음. 곧 바로 앉음.)으로 해야 할 듯함.
- 192) 十朔日. 열 달.

- 193) 然後에. 그런 뒤에.
- 194) 解腹. 해산(解産). 출산.
- 195) 一便. 한편으로는.
- 196) 섞여 있는 것에서 여럿을 골라내어.
- 197)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198) 小盤. 자그마한 밥상.
- 199) 坐不安席.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군데에 가만히 오래 앉아있지를 못함.
- 200) 順産.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음.
- 201) 香臭. 향기로운 냄새.
- 202) 彩雲. 채색 구름.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
- 203) 昏迷中. 정신이 헛갈리고 가물가물하여 희미한 가운데.
- 204) 仙人玉女. 신선의 딸처럼 아름답고 고운 딸.
- 205) 하겠지만. 할 것이지만.
- 206) 불명.
- 207) 불명.
- 208) 頭大日將軍. 머리가 크면 장군감임.
- 209) 미끈둥. 부드러우며 미끄러운.
- 210) 晚得. 늦게 얻음.
- 211) 辱及先榮. 욕됨이 조상에까지 미침.
- 212) 禮儀凡節.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
- 213) 君子好逑. 훌륭한 남자의 좋은 배필.
- 214) 壽富貴多男. 오래 살며, 부귀하고, 아들이 많이 됨.
- 215) 外孫奉祀. 외손이 제사를 받들어 모심.
- 216) 없겠나?
- 217) 三神.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218) 帝王님. 여러 신들.
- 219) 화.
- 220) 절대. 영. 도무지.
- 221) 해산 후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밥과 국. 주로 미역국과 흰 밥을 먹음.
- 222) 三神床. 삼신에게 바칠 음식을 차려놓은 상. '삼신'은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223) 비시오.
- 224) 번번이. 늘.
- 225) 온순하지 못하고 급하며 화를 잘 내는 성질.
- 226) 三神.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227) 帝王님네. 여러 신들.
- 228) 三千九萬里. 여기서는 '아주 먼 거리'를 가리킴.
- 229) 三十三. 불교 용어로 도리천(忉利天)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생사 윤회하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세 세계 가운데서 욕계의 둘째 하늘.

- 230) 忉率天. 옥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넷째 하늘. 내외의 두 원(院)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 보살이 살며 석가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며, 외원은 천중(天衆)의 환락(歡樂)장소라고 함.
- 231) 和爲同心. 서로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232)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사람의 형체가 생기기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 233) 묶은 것이 되직하여지고.
- 234) 人形. 인간의 형체.
- 235) 생겨.
- 236) 五包. 오장(五臟). 사람 몸의 다섯 가지 내장인 간장, 심장, 신장, 폐장, 비장.
- 237) 여기서는 '생기고'의 뜻.
- 238) 육부(六腑)를 이르는 말임. 육부는 사람 뱃속의 여섯 가지 기관인 쓸개, 위, 대장, 소장, 삼초(위의 상부, 위 부분, 배꼽 아래 부분을 아울러 일컫는 말), 방광.
- 239) 七竅. 사람 얼굴에 있는 귀, 눈, 코, 입의 일곱 개 구멍. 칠성구멍이라고도 함.
- 240) 九竅. 칠구에다 똥, 오줌 구멍을 합한 아홉 개의 구멍.
- 241) 찬 김 받아. 곧 열 달이 다 찬 기운을 받아.
- 242) 金剛門. 금강석같이 단단한 문. 곧 여자의 음문(陰門).
- 243) 下達門. 아래로 통하는 문. 곧 여자의 음문.
- 244)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못함.
- 245) 獨女.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
- 246) 東方朔. 한(漢)나라 무제 때의 사람.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는데,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247) 太任. 주(周)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姒)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여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48) 大舜. 순임금
- 249) 曾子. 공자의 제자로, 효행에 뛰어났으며, 《대학(大學)》을 편했음.
- 250) '기량식의 처(杞梁殖의 妻)'의 잘못. 기량식은 제나라 사람으로, 제나라의 장공(莊公)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의 처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열흘이나 울자 마침내 성이 무너졌다. 기량식의 처는 남편을 장사 지내고, 치수(淄水)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 251) 班姬. 반첩여(班婕妤). '첩여'는 궁녀. 자(字)는 혜희(惠姬). 한나라 사람으로 문장과 재능이 뛰어났다. 성제(成帝) 때 뽑혀서 첩여가 되었으나,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장신궁(長信宮)으로 물러가 태후(太后)에게 시중을 드는 동안 〈원가행(怨歌行)〉을 지었음.
- 252) 才質. 재주와 기질.
- 253) 石崇. 중국(晉)나라 남안(南安)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벼슬길에 나서 형주자사(荊州子使)를 거쳤으며, 뒤에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금곡원(金谷園)에서 천하일색 녹주(綠珠)와 행락(幸樂)을 누렸다 함. 땀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조왕(趙王) 윤(倫), 곧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254) 오이가 자라듯이.
 255) 달이 점점 차듯이.
 256) 자주 앓는 자질구레한 병.
 257) 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진보하거나 자라남.
 258) 따듯한.
 259) 產母. 아기를 갓 낳은 여자.
 260) 產後. 출산 후. 아이를 낳은 후.
 261) 일할 사람.
 262) 過勞. 힘에 부치게 일을 함.
 263) 產後別症. 아이를 낳은 후에 조섭을 잘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증세.
 264) 온 몸의 근육과 뼈마디.
 265) 家君.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266) 家君님. '가군'은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267) 偕老百年. 백년이나 살아 함께 늙음.
 268) 忘世. 죽음을 가리키는 말.
 269) 初終葬身. 초상난 뒤부터 졸곡(卒哭)까지, 곧 사람이 죽은 때부터 장례를 다 마치기까지의 일.
 270) 죽자고 했더니.
 271) 天命. 타고난 수명.
 272) 끊어졌는지.
 273) 어쩔 수 없이.
 274) 어두우신.
 275) 뉘라서. 누가.
 276) 朝夕恭待. 아침저녁으로 잘 받들어 모심.
 277) 四顧無親. 사망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278) 孑孑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279) 依託. 남에게 의지하고 부탁함.
 280) 전혀 없어.
 281) 지팡이.
 282) 아무렇게나 함부로 짚고.
 283) 구렁. 땅이 움푹 패어 들어간 곳.
 284) 身世自歎. 일신상의 형편을 스스로 한탄함.
 285) 飢寒. 굶주림과 추위.
 286) 家家門前. 집집마다 문 앞에.
 287) 魂魄. 넋.
 288)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289) 神供. 신이나 부처님께 소원을 빌.
 290) 情親하게. 정답고 친절하게.

- 291) 愬視.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292) 걸으면.
 293) 墳墓. 무덤.
 294) 母女相面.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만남.
 295) 無窮. 끝이 없음.
 296) 숨이 몹시 차서.
 297) 주려고.
 298) 어린 아이의 머리에 씌우는 수놓은 모자의 한 가지.
 299) 金字. 금실로 수놓은 글자.
 300) 짙은 옥색 판.
 301) 紅絲. 붉은 색 비단 실.
 302) 술, 책상보나 커튼 또는 띠·끈 따위의 끝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303) 진주로 만든 느낌. ‘느림’은 장막같은 데 꾸밈새로 늘어뜨린 좁은 형꼴이나 줄 따위.
 304) 여자아이들의 노리개의 한 가지. 고운 색 형꼴을 둥글거나 혹은 병 모양같이 만들어서 두 쪽을 맞대고 수를 놓기도 하며, 다른 색깔의 형꼴으로 알록달록하게 바르기도 하여 끈을 매어 참.
 305) 新行函. 혼인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함.
 306) 下賜하신. 윗사람이 내려주신.
 307) 壽福康寧. 오래도록 살고 행복하며, 몸이 건강하고 평안함.
 308) 太平安樂. 태평하고 평안하며 즐거움.
 309) 양쪽에.
 310) 紅氍. 홍색의 모직물.
 311) 괴불주머니. 어린애들이 주머니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네모진 색형꼴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남.
 312) 끼던.
 313) 玉指環. 옥가락지.
 314) 진작. ‘미리’의 뜻으로 ‘바로 그 때에.’
 315) 생기거나. 태어나거나.
 316) 조금.
 317) 끝이 없는.
 318) 窮天之痛. 하늘까지 닿는 지극한 아픔.
 319) 이것으로.
 320) 죽는.
 321) 生死間에. 삶과 죽음 사이에.
 322) 무슨.
 323) 亡終. 마지막.
 324) 북받치는 감정이 대단히 참기 어려워.
 325) 颯颯悲風. 구슬프게 부는 바람.

- 326) 簫簫細雨. 쓸쓸하게 내리는 가랑비.
- 327) 말이나 소가 가려운 곳을 긁느라고 다른 물건에 몸을 대고 비비는 짓. 따라서 여기는 ‘딸꾹질’의 잘못임.
- 328)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계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 329) 人命은 在天인데.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곧 운명이라는 말.
- 330) 醫家. 의원집.
- 331) 부디.
- 332) 速히. 빨리. 급히.
- 333) 水一升煎半服.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 먹음.
- 334) 잡수십시오. 드십시오.
- 335)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 336) 食飲. 먹고 마시는 일.
- 337) 全廢터니. 전폐하더니. 아주 없애버리더니. 전혀 듣지 않더니,
- 338) 氣虛. 원기가 허약함.
- 339) 콧구멍.
- 340) 김.
- 341) 아름차면. 힘에 겨우면.
- 342) 울지도.
- 343)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계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 344) ‘메어치며’를 강조한 말. ‘메어치다’는 ‘어깨 너머로 힘껏 둘러메어 내리치다.’
- 345) 지으려.
- 346) 사이에.
- 347) 病不能殺人. 병은 사람을 죽이지 못함.
- 348) 藥能活人.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 349) 도리어.
- 350) 西天西域. 옛날에 인도를 이르던 말.
- 351) 蓮花世界. 연꽃이 피어 있는 세계. 불교에서 극락을 뜻함.
- 352) 還生次로. 다시 태어나기로.
- 353) 眞言. 주문(呪文).
- 354) 가슴.
- 355) 두드리며.
- 356) 목적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357) 아래로 내려가면서 뒹굴.
- 358) 위로 올라가며 뒹굴.
- 359) 雪寒風. 눈썹인 찬바람.
- 360)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신선 세계에 있다는 복숭아.
- 361) 瑤池宴.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요지 연못에서 신선들이 벌이는 잔치.

- 362)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仙女. 성(性)은 양(楊),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머리 장식)를 썼다 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조(靑鳥)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 363)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
- 364)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365) 懷抱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
- 366) 天上에. 하늘에서.
- 367) 정성을 다하러. ‘공을 닦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정성을 기울이다.’
- 368) 엎어져. ‘엎드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 369) 此所謂. ‘이야말로’를 한문투로 일컫는 말.
- 370) 칭찬하는.
- 371) 賢哲. 어질고 슬기로운.
- 372) 어떤 일이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모양.
- 373) 才談. (익살부리며)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 374) 이러지? 이렇게 하지?
- 375) 失談. 실수로 잘못 말한 이야기.
- 376) 每戶. 각 집. 집집마다.
- 377)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둬.
- 378) 安葬. 편안히 장사 지냄.
- 379) 公論. 여론.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견.
- 380) 一口如出.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음.
- 381) 小方牀. (본래는 대방상을 쓰는 법인데) 대방상(大方牀)을 쓰기 어려운 좁은 곳에서 쓰던 상여. 높은 벼슬아치의 장사에 썼음. ‘대방상’은 큰 상여로서, 높은 벼슬아치만 쓸 수 있었음.
- 382) 뗏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돌. ‘뗏돌’은 집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안 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둘러가며 놓은 돌.
- 383) 행하니 높게.
- 384) 銘旌. 긴 주홍빛 천에다 죽은 사람의 관직·본관·성씨 따위를 적어,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 들고 갔다가 관위에 함께 묻는 것말.
- 385) 功布. 삼베를 다섯 자 내지 여섯 자로 잘라서, 상여 앞에 명정과 함께 들고 갔다가, 관을 묻을 때 관을 닦는 데 쓰는 수건.
- 386) 鬘扇. 운불삽(雲蔽髮). 운삽과 불삽. 모두 상여가 나갈 때 상여 앞뒤에 세우고 가는 것들인데, ‘운삽’은 구름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이며, ‘불삽’은 쪼자 형상을 그린 널조각임.
- 387) 等物. 등등의 물건.
- 388) 상여가 나갈 때 거리에서 친척이나 친지가 지내는 제사. 여기서는 ‘발인제(發引祭)’로 해야 옳음. ‘발인제’는 상여가 집에서 떠날 때 상여 앞에서 지내는 제사.
- 389) 靈輅既駕 往即幽宅 載陣遺禮 永訣終天. 혼백이 상여에 이미 올려졌으니, 이제 가면

- 무덤이웁니다. 보내는 예를 모두 갖추어 배푼 뒤에 아주 헤어집니다. 상여가 떠날 적에 음식 등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외는 축문(祝文).
- 390) 觀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존송되는 보살. 중생이 괴로울 때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 391) 忘勞而歌. 힘드는 일을 잊어가며 노래를 부름.
- 392) 상여소리.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 393) 주고받으며.
- 394) 搖鈴. 손에 들고 흔들며 소리를 내는, 작은 종처럼 생긴 기구.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흔들며 소리를 메김.
- 395) 별다른 의미가 없는 후렴구임.
- 396) 北邙山川. 중국의 낙양성 가까이 공동묘지가 있던 언덕들을 통틀어 일컫던 말로, ‘묘지’ 또는 ‘저승’의 뜻.
- 397) 案山.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밋자리의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킴.
- 398) 온다고 하는.
- 399) 春草. 봄풀.
- 400) 年年綠. 해마다 다시 푸르러짐.
- 401) 王孫. 왕의 자손.
- 402) 歸不歸. 가서는 돌아오지 않음. 곧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는 말.
- 403)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노래를 하는 사람.
- 404)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노래를 하는구나.
- 405) 遠山. 먼 데 산.
- 406) 人定.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하여 종을 치던 일.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을 쳤는데 이에 따라 성문(城門)을 닫았다.
- 407) 罷漏.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 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 三點)에 쳤다.
- 408) 여자 종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 409) 開門. 문을 열.
- 410) 종달새.
- 411) 불명. 혹 ‘50 길’일 수도 있음. ‘길’은 자기 키만큼의 길이.
- 412) 西天. 서쪽 하늘.
- 413) 明月. 밝은 달.
- 414) 襦褌. 포대기.
- 415) 屈冠. 상복(喪服)을 입을 때 두건 위에 덧쓰는 건(巾).
- 416) 祭服. 상복. 생건 삼베로 만들되, 그냥 호거나 혹은 재단만 하고,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음.
- 417) 상여.
- 418) 가마나 상여 또는 들것 따위의 뒤의 사람이 메거나 들게 된 부분.
- 419) 거머쥐어 잡고.
- 420) 山疊疊路茫茫. 산은 겹겹이 둘러 있고, 길은 아득히 멀.

- 421) 日沈沈雲暝暝. 날은 저물고 구름은 어두움.
- 422) 酒店. 주막. 쉬어갈 주막.
- 423) 夫唱婦隨.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라서 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뜻이 잘 통하여 화합한다는 뜻.
- 424) 정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
- 425) 나와.
- 426) 가십시오. 갑시다.
- 427)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 428) 平土祭. 관을 묻은 후에 흙을 덮어 원래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한 뒤에 지내는 제사.
- 429) 祝文(祝文). 제사 때 읽어神明께 고하는 글.
- 430) 讀祝. 축문을 읽음.
- 431) 嗟呼 婦人. 아, 슬프다, 부인이여.
- 432) 邀此窈窕淑女兮여. 이렇게 어진 여자를 맞아들였으니.
- 433) 行不苟兮古人이라. 행동거지가 옛 사람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 434) 期百年而偕老. 백 년을 기약하고 함께 늙자 함. 곧 ‘늙도록 오래 같이 살자’는 말.
- 435) 忽然沒兮焉歸오. 갑자기 죽었으니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오?
- 436) 遺稚子而永逝히니. 어린 자식을 남겨 놓고 영원히 가버리니.
- 437) 淚散散而沾襟兮여. 눈물이 여기저기 흠어져 옷깃을 적시는구나.
- 438) 떨어지는.
- 439) 心耿耿而消魂兮.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근심으로 낮이 나갔구나.
- 440)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사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 441) 薄奠이나. 변변치 못한 제사이나.
- 442) 萬事. 모든 일.
- 443) 거머쥐어.
- 444) 北邙山川. 묘지가 있는 곳. 사람이 죽어 가는 곳을 이르는 말.
- 445)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 446) 울타리.
- 447) 杜鵑. 두견새. 소쩍새.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우(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 448) 老而無妻鰥夫라니.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부(홀아비)라고 하니.
- 449) 四窮. 늙은 홀아비, 늙은 홀아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일컫는 말.
- 450) 말인가?
- 451) 死者는 不可復生이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 452) 어쩔 수 없이.
- 453) 洞人들. 동네 사람들.
- 454)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 455) 얼싸절싸. 흥이 나서 뛰노는 모양.
- 456) 지팡이.

- 457) 아무렇게나 함부로 쪼고.
 458) 蹤迹.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459) 전혀 없네.
 460) 포대기.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쓴다.
 461) 洛陽東村. 중국 낙양성의 동쪽 마을.
 462) 梨花亭의 淑娘子. 숙향은 송나라 때의 미인인데, 난리를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천태산에서 마고선녀를 만나, 이화정에서 수를 놓으며 살게 되었다고 함.
 463) 竹上之淚. 대나무 위의 눈물.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두 부인인 아황과 여영이 쫓아와 슬피 울다 죽었는데, 그 피눈물이 소상강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 반죽(알록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464)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465) 온다고 하는.
 466) 剛木水生. 바짝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남. 곧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467) '메어치며'를 강조한 말. 어깨 너머로 돌려메어 힘껏 내려치며.
 468)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469) 잃느냐?
 470) 두레박. 줄을 길게 매어 물을 끄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로 만듦.
 471) 훌어 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쪼고.
 472) 氣虛. 원기가 허약함.
 473) 鐵石. 쇠와 돌.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
 474) 盜拓. 중국 춘추시대의 큰 도둑. 공자와 같은 시대의 노나라 사람. 현인 유하혜(柳下惠)의 아우로, 그의 도당 9천 명과 함께 전국을 횡횡했다고 함.
 475) 어렵게.
 476) 길쌈.
 477) 심하게 내리찍는 여름의 뜨거운 별.
 478) 白石清灘. 흰 돌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여울.
 479) 몇 돈 되는 돈. '돈'은 한 냥(兩)의 십분의 일.
 480) 몇 되 되는 쌀.
 481) 암쌀. 암죽 끓일 쌀. '암죽'은 어린 아이에게 젓 대신 먹이려고 곡식이나 밤 가루로 뭉개 끓인 죽.
 482) 萬壽無疆.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삶.
 483) 언덕. '가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484) 무엇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다.
 485) 富貴多男. 부유하고 신분이 높으며, 아들을 많이 낳음.
 486) 귀여움.
 487) 쌀 다짓 섬 속의 뉘(쌀 속의 겉질이 벗겨지지 아니한 벼 알갱이) 하나처럼 아주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488) 소경 열 명에 막대기 하나처럼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89) 귀한 자식.
- 490) 달 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토끼. 털빛이 흰 토끼.
- 491) 불명. ‘진주(珍珠)씨’라고 하기도 한다. ‘진주씨’는 작은 진주를 가리킨 듯.
- 492) 密花佛手. 보석의 일종인 밀화로 부처 손같이 만든 패물.
- 493) 어린 아이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 494)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자장자장’이라는 의미.
- 495) 어린 아이에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또는 그 짓.
- 496) 두레박.
- 497) 들랑날랑.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
- 498) 아이를 어르면서 내는 소리.
- 499) 이불.
- 500) 동냥을 하려고.
- 501) 纏帶. 무명이나 베 헝겊으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끝은 터놓고, 가운데는 막았는데,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매기도 함.
- 502) 한 덩어리로 만들어.
- 503) 둘러메고.
- 504) 벼.
- 505) 암죽을 끓이려고. “암죽”은 곡식이나 밤의 가루로 묽게 쑨 죽. 어린아이에게 젓 대신 먹인다.
- 506) ‘허위허위’의 방언.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507) 日就月將. 몸, 마음, 학문 등이 날로 달로 진보함.
- 508) 如流하여.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 509) 忌祭祀. 삼 년 상이 끝난 후, 해마다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 510) 供養事. 웃어른을 모시어 음식을 마련해 드리는 일.
- 511) 依法이. 법도에 맞게.
- 512) 無情歲月. 덧없이 흘러가는 빠른 세월.
- 513) 朝夕供養. 웃어른을 모시면서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 514) 하겠나이다. 하겠습니다.
- 515) 困窮.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함.
- 516) 無男獨女. 아들 없이 하나 있는 딸.
- 517)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감탄사.
- 518) 들어보십시오.
- 519) 子路. ‘자로’는 공자의 제자. 노나라 사람으로,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임. ‘자로’는 그의 자(字).
- 520) 賢人.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
- 521) 百里를 負米하고. 자료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 리나 떨어진 곳에서 쌀을 구해 짊어지고 온 일을 가리킴.
- 522) 淳于意.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간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딸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523) 醜榮.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순우의의 딸. 그의 아버지 순우의가 국고 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524) 洛陽. 고대 중국의 수도.
- 525)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 526) 贖罪. (물질적으로나 그밖의 방법으로) 저지른 죄나 과오를 씻음.
- 527) 空林의. 빈 숲의. 낙엽이 진 겨울 숲의.
- 528) 反哺恩. 새 새끼가 자란 후에 늙은 어미 새에게 밥을 물어다 은혜를 갚는 일.
- 529) 飛禽. 날아다니는 새.
- 530) 추운.
- 531)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532) 전부. 모두.
- 533) 바지.
- 534)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 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는 좁다란 끈.
- 535)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
- 536)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의 한 가지.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537) 말기. 치마나 바지 따위의 맨 위, 허리에 둘러댄 부분.
- 538) 치마.
- 539) 옷깃. 저고리나 옷옷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
- 540) 어떤 사물의 윗부분.
- 541) 길버선. '길 갈 때 신는 버선'인 듯.
- 542) 斷髮. 귀밑이나 목덜미 언저리에서 머리털을 가지런히 자름. 또는 그런 머리 모양.
- 543) 淨히. 정성들여 곱게.
- 544) 바가지.
- 545) 遠山. 먼 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 546) 을씨년스럽고 걱정스러운 모양.
- 547) 哀矜히. 불쌍하게.
- 548) 初七.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549) 求患. 어려운 지경에서 구함.
- 550) 밥 따위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551) 十匙一飯. 열 숟가락의 밥이면 한 그릇 밥이 된다는 말.
- 552) 추운.
- 553)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 554) 그릇에 담은 밥, 혹은 그릇에 담은 만큼의 밥.
- 555) 醬. 간장, 된장, 고추장을 통틀어 일컫는 말.
- 556) 厚히. 마음 씩씩이가 너그럽게. 많이.
- 557) 기다리는데.

- 558) 먹사오리카. 먹겠습니까.
 559) 못한지라. 충분한지라.
 560) 半日. 반나절.
 561) 출근들.
 562) 시장하지는. 배가 고프지.
 563) 따뜻한.
 564) 미역을 말려 기름에 튀긴 반찬의 일종.
 565) ①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감. ②나물이나 해산물 같은 것에, 간장이나 참쌀 풀을 발라 말린 다음, 굽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반찬.
 566) 출다.
 567) 國色. 나라에서 제일가는 미인.
 568) 孝行. 효성스런 행동.
 569) 出天. 하늘이 났. 아주 뛰어난.
 570) 遠近에. 멀고 가까운 곳에. 곧 널리 여기저기에.
 571)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572) 丞相夫人. 승상 벼슬을 한 사람의 부인. ‘승상’은 옛 중국의 벼슬로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음.
 573) 侍婢. 시중드는 여자 종.
 574) 父親前. 아버지께.
 575) 여쭙되. 묻되.
 576) 別親. 특별히 친함.
 577) 진작.
 578) 蛾眉. 미인의 눈썹을 이르는 말.
 579) 빨리.
 580) 青松. 푸른 소나무.
 581) 綠竹. 푸른 대나무.
 582) 亭下. 정자 아래.
 583) 盤松.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584) 狂風. 미친 바람. 거센 바람.
 585)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586) 老龍. 늙은 용.
 587) 굽이치며 일어나는 듯.
 588) 자취에.
 589) 날개.
 590) 발을 멀쩡멀쩡 띄어놓으며 걷는 모양.
 591) 戛然聲. 학이 우는 소리.
 592) 奇異하구나. 신기하고 이상하구나.
 593) 階上. 섬돌 위.
 594) 반가와 하여.

- 595) 座. 앉을 자리.
- 596) 武陵에. 무릉촌에. ‘무릉’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뜻하기도 하는데,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를 이름.
- 597) 開花. 꽃이 폼.
- 598) 棄世히시고. 세상을 버리시고. 돌아가시고.
- 599)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 600) 未還하고.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고.
- 601) 대하는 것이.
- 602) 古書. 오래된 책. 옛날 책.
- 603) 收養딸.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딸.
- 604) 女工. 여성들이 하는 일. 길쌈이나 바느질 등.
- 605) 文筆. 글과 글씨.
- 606) 末年. 일생의 마지막 무렵.
- 607) 어떠하냐?
- 608) 大小事. 크고 작은 일. 모든 일.
- 609)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 610) 厚히. 넉넉하게.
- 611) 寂寂한. 조용하고 쓸쓸한.
- 612) 寒氣. 추운 기운. 병적으로 몸에 생기는 추운 기운.
- 613) 수고롭고 고생스런 일.
- 614) 寂寞空山. 나뭇잎이 다 떨어진 고요하고 깊은 산.
- 615) 人跡. 사람의 자취.
- 616) 自盡腹痛. 배에 사무치도록 원통함.
- 617) 아무렇게나 함부로 쥔고.
- 618) 도량 出入. 도량을 드나드는 일. ‘도량’은 (물이 흐르도록 땅을 좁고 길게 판) 작은 개울.
- 619) 한 길이 넘는. ‘길’은 자기 키만한 높이나 깊이.
- 620) 나오려고 하면.
- 621) 無盡無盡. 다함이 없을 만큼 끝없이.
- 622) 一身. 자기 한 몸.
- 623) 手足. 팔과 다리.
- 624) 맑은데. 흐리지 않고 뚜렷한데.
- 625)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626) 重棚. (낡은 건물울) 헐기도 하고 고쳐서 새로 지음.
- 627)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집.
- 628) 비스듬한.
- 629) 急急히. 매우 급하게.
- 630) 豪奢.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런 사치.

- 631) 벉슬한 중이 쓰던 갓. 대로 만들었는데 모자 위가 둥글게 되었음.
- 632)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듦.
- 633) 百八念珠. 실에 작은 구슬 108개를 꿰어서 그 끝을 맞댄 염주. ‘염주’는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으로)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서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듦.
- 634) 團珠. 밤알만한 나무 구슬 여덟 개를 꿰어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635) 龍頭. 용의 머리.
- 636)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짚고 다니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637) 쇠고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
- 638)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릿느릿하고.
- 639) 遠山. 멀리 보이는 산.
- 640) 暗暗. 어두컴컴함.
- 641) 雪月. 눈 위로 뜨는 달.
- 642) 白苧布. 흰 모시베.
- 643)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듦.
- 644) 念佛. 부처의 모습이나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외는 일, 특히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일.
- 645) 俗家. 불교를 믿지 않는 집안을 불가에서 이르는 말.
- 646)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千悉圓滿. 옛부터 닦아온 공덕은 바다처럼 넓으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어, 자타가 공히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길 바랍.
- 647) 願往生. 죽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
- 648) 諸宮宗室各安寧. 임금의 친족과 왕실이 두루 평안하기를 빈다는 말.
- 649) 念佛. 불경을 외는 일.
- 650) 잠깐. 일핏.
- 651) 馬嵬驛. 중국 섬서성에 있는, 당나라 태종이 안록산의 난을 당해 피난을 가면서 양귀비를 죽인 곳.
- 652)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음.
- 653) 楊太眞. 양귀비(楊貴妃. 719-756). 당나라 현종의 비. 이름은 옥환(玉環) 또는 태진. 채주와 미색을 겸비하고 가무음곡에 뛰어나, 현종이 매혹되어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함.
- 654) 둔갑하여.
- 655) 호리려는.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넋을 빼앗으려는.
- 656) 竹杖. 대나무 지팡이.
- 657) 개울. 작은 내.
- 658) 대님.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 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는 좁다란 끈.
- 659) 곧추누비. 위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660) 가랑이.
- 661) 돌돌. 작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둥글게 말리는 모양.

- 662) 작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동글게 말리는 모양. ‘돌돌’보다 센 말.
- 663) 자개미에. ‘자개미’는 거드랑이 또는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 664) 물이 괴어 있는 논.
- 665)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로.
- 666) 발을 멀쩡멀쩡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 667) ‘고드름상투’인 듯. 고드름처럼 가늘고 길게 생긴 상투.
- 668) 에후리쳐. 얼싸안아. 여기서는 ‘감아쥐어’ 정도의 의미.
- 669) 小僧. 중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670) 施主집. 중이나 절에 재물을 내는 사람의 집.
- 671) 活人之佛.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
- 672) 白骨難忘. 죽어 백골이 되어도 잊지 못함. 영원히 잊지 못함.
- 673) 방도. 방법.
- 674) 수일꼬? 방법일꼬?
- 675) 사람의 기원대로 되는 신기한 효과.
- 676) 應하오니.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추어 들어주오니.
- 677) 供養米. 부처님께 바치는 쌀.
- 678)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주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 679) (주로 좋지 않은 성질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몹시’ 또는 ‘아주’의 뜻을 나타내는 말. 여기서는 ‘순’ 다음 말이 생략되었음.
- 680) 음식 맛이나 어떤 사물에 대하여 좋고 언짢음을 느끼는 기분.
- 681) 虛言. 빈 말. 거짓말.
- 682) 丁寧. 틀림없이. 꼭.
- 683) 勸善.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 있는 신자들에게 재물을 내주기를 청함. 여기서는 ‘권선책(勸善冊)’임. ‘권선책’은 시주(施主)의 이름과 시주한 재물의 액수를 기록한 장부.
- 684) 記載. 문서 따위에 기록하여 올림.
- 685)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형편.
- 686) 감추어진 일의 내용.
- 687) 남을 해치려고 칼을 함부로 휘두름. 또는 그런 일.
- 688) 虛言. 실속이 없는 빈말. 거짓말.
- 689) 來月. 다음달.
- 690) (말이나 하는 짓이) 참되고 믿음직하지 못한.
- 691) 邪. 요사스러우며 나쁜 기운.
- 692) 돈의 액수 앞에 붙여 아주 적은 돈임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693) 水中孤魂. 물 속에 빠져 죽은 외로운 영혼.
- 694) 지우고.
- 695)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 696) 於焉間. 어느새.

- 697) 아서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쓰는 말.
 698) 大小事. 크고 작은 모든 일.
 699)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700) 서럽습니다. 슬픉니다.
 701) 아주.
 702) 와야지!
 703) 꺾어내는데.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어내는데.
 704) 後事. 뒷일, 나중 일,
 705) 百計無策.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있는 꺾를 다 써봐도, 해결할 만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음.
 706) 듣주시오. 들어주십시오.
 707) 王祥. 서진(西晉) 시대에 태보(太保) 벼슬을 지낸 효자. 그의 계모가 한겨울에 산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여,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으려 하자, 그 구멍에서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와, 이것을 갖다 드렸다고 함.
 708) 叩水. 얼음을 두드림.
 709) 구멍.
 710) 孟宗.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으로 효자. 그의 늙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 겨울임에도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므로, 구할 길이 없어 대숲에 가서 슬피 울었는데, 밤이 깊어진 뒤에 보니 죽순이 두어 줄기 솟아나와 이를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고 함.
 711) 泣竹. 대숲에서 울.
 712) 竹筍. 대나무의 땅 속 줄기에서 돌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
 713) 事親誠孝. 진실한 효로 아버이를 섬김.
 714) 郭巨. 후한(後漢)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가난하였다.
 715) 해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716) 事親之孝道. 아버이를 섬기는 효도.
 717) 至誠이면 感天.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킴.
 718)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719) 淨히. 맑게. 깨끗이.
 720) 至極. 더할 수 없이 극진하게.
 721) 神供. 신이나 부처님께 소원을 빌.
 722) 壇.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흙이나 돌로 쌓아 올린 터.
 723) 모으고. 쌓아올리고.
 724) 子夜半에. 한밤중에.
 725) 돌우어 켜고.
 726)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727) 小盤. 조그마한 밥상.
 728) 合掌.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 729) 天地之神.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
 730) 日月星辰. 해와 달과 별.
 731) 和爲同心.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732) 日月. 해와 달.
 733) 眼目이라. 눈이라. 눈인데.
 734) 무슨.
 735) 戊子生. 육십갑자의 무자년에 태어난.
 736) 眼盲하여. 눈이 멀어.
 737) 視物. 사물을 봄.
 738)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739) 丁寧. 틀림없이. 꼭.
 740)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741) 외치는.
 742) 船人. 뱃사람.
 743) 印塘水. 가공의 깊은 물 이름.
 744)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745) 사라고 하니.
 746) 있습니까.
 747)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748) 크고 우렁차게.
 749) 天佑神助. 하늘과 신의 도움.
 750) 洞里. 마을.
 751) 都沙工. 뱃사공의 우두머리.
 752) 家勢. 집안의 운수나 살림살이 따위의 형세.
 753) 極貧. 몹시 가난함.
 754)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755)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756) 來月. 다음 달.
 757) 重값. 많은 값. 많은 돈.
 758) 約條. 조건을 정하여 약속함, 또는 약속하여 정한 조항.
 759) 오냐.
 760) 前日. 전 날.
 761)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762) 데려간다.
 763) 정가. 지난 허물이나 결함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764) 來月. 다음 달.
 765) 예전에,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둘이나 넷이 들거나 메딘, 조그만 짐 모양의 탈것. 연(輦),
 덩, 초헌(輶軒), 남여(籃輿), 사인교(四人轎) 따위가 있다.

- 766) 金巡將宅. 김씨 성을 가진 순장 벼슬을 한 집. '순장'은 조선조 때 정3품 문무관으로, 밤에 도성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 여기서는 김씨댁을 높여 이르는 말.
- 767) 검은.
- 768)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 769) 隔한지라. 남은지라.
- 770) 永訣. 영원히 이별함.
- 771) 아득하고 막연하여.
- 772) 끝없는.
- 773) 肝腸. 마음. 애.
- 774) 四時. 사철.
- 775) 籠. 자그마하게 만든 옷을 넣어두는 가구.
- 776) 網巾.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털을 걷어 올려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뒤통수에 눌러 쓰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777) 墳墓. 무덤.
- 778)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사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 779) 焚香四拜. 향불을 피우고 네 번 절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함.
- 780)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 781) 祭需. 제물.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식이나 물건.
- 782) 年年이. 해마다.
- 783) 忌日. 죽은 날. 제삿날.
- 784) 伐草. 무덤의 풀을 베는 일.
- 785) 亡終. 마지막.
- 786) 歆饗. 신령의 제물을 받아서 먹음.
- 787) 四拜. 네 번 절을 함.
- 788) 寂寂. 아주 고요함.
- 789) 三更.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한밤중.
- 790) 울지는.
- 791) 흐느끼는데.
- 792)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 793) 五更時.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해가 뜨는 시각.
- 794) 咸池에. '함지'는 중국 전설에서 해가 진다는 큰 연못.
- 795) 扶桑. 중국 전설에서, 동쪽 바다 속의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나무 이름, 또는 그곳.
- 796) 뭇 양이면. 뭇 것 같으면. 맨다면.
- 797) 半夜. 한밤중.
- 798) 秦關. 진나라의 관. '관'은 국경이나 국내의 요지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을 경비하며, 출입하는 사람이나 화물을 조사하던 곳. 여기서는 맹상군이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쳐 나온 함곡관을 가리킴.

- 799) 孟嘗君. 맹상군은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임. 일찌기 빈객들을 후히 대접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닭울음소리를 잘내는 식객(食客)의 도움으로 함곡관을 빠져나와 무사히 도망친 일이 있었다.
- 800) 河梁落日愁雲起. 하수의 다리 위에 해가 지니, 슬픔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 801) 蘇通國. 한나라 무제(武帝)의 신하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열아홉 해 동안이나 잡혀 있던 소무가 그 곳에서 낳은 아들. 소무(蘇武)가 돌아올 때 어미는 놓아두고, 아들만 데리고 왔음.
- 802) 母子 離別. 어미와 자식 간의 이별. 소통국과 그의 어미의 이별을 말함.
- 803) 征客關山路幾重. 출정한 남편으로부터 고향까지의 길은 얼마나 멀까.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채련곡(採蓮曲)〉의 한 구절.
- 804) 吳姬越女. 오나라와 월나라의 여인들. 여기서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옛 오나라와 월나라 땅의 여인들을 가리킴.
- 805) 遍插茱萸少一人. 수유꽃을 돌려 꽂고 보니 한 사람이 모자란다. 당나라 풍속에 9월 9일이 되면 온 가족이 산에 올라 종일 즐겨 노는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모자란다’는 말은 형제 중 한 사람이 없다는 말. 왕유(王維)의 시 〈구월구일억산동형제(九月九日憶山東兄弟)〉의 마지막 구절.
- 806) 山東. 중국 산둥반도와 황화 하류의 유역을 차지하는 지역.
- 807)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도 없네. ‘양관’은 중국 감숙성 돈황현에 있는 지명으로, 서역으로 통하는 국경의 요지.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의 시 〈송원이사지안서(送元二使之安西)〉의 마지막 구절.
- 808)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의 아침 비. 왕유의 시 〈송원이사지안서〉의 첫 구절인 ‘위성조우읍경진(渭城朝雨浥輕塵. 위성 아침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신다)’의 한 구절. ‘위성’은 중국 협서성 함양의 동쪽에 있는 성.
- 809) 朋友離別. 친구 사이의 이별.
- 810) 相逢. 서로 만남.
- 811) 東方. 동쪽.
- 812) 別로. 특별히.
- 813) 이르구나.
- 814)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
- 815) 夢兆. 꿈에 나타나는 길흉의 징조.
- 816) 끝없는.
- 817) 貴人. 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 818) 壯히. 매우. 씩.
- 819) 아서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해라할 자리에 쓴다.
- 820) 다른 자리로 옮겨 놓아라.
- 821) 散炙. 쇠고기 따위를 길쭉길쭉하게 썰어 갖은 양념을 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 822)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체면.
- 823) 四拜. 네 번 절을 함.

- 824) 舉動. 몸을 움직이는 것이나 태도.
 825)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뱃속에 답답하게 남아 있느냐.
 826) 정가. 지난 허물이나 잘못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827) 지우고.
 828)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829) 亡終. 마지막.
 830) 애비에게. 아버지에게.
 831) 묻지도. 물어보지도.
 832) 말인가?
 833) 살 것인데.
 834) 뜨느냐?
 835)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836) 長成. 자라서 어른이 됨.
 837) 새로 생긴 근심.
 838) 너로 인하여. 네 덕분에.
 839) 아침저녁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
 840) 星火같이. 몹시 급하고 심하게. '성화'는 유성이 떨어질 때의 불빛으로, 몹시 급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41) 엎드리져. 잘못하여 앞으로 넘어져.
 842) 無知한. 미련하고 사나운.
 843) 七年大旱. 중국 은(殷)나라 탕(湯)임금 때에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큰 가뭄.
 844) 湯임금. 중국 전설상의 은나라 왕조의 건설자.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음.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
 845) 剪爪斷髮 身嬰白茅. 손톱 깎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을 흰 띠풀로 묶음.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함.
 846) 桑林 들에서. 상림은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낸 곳.
 847) 大雨方數千里. 사방 수천 리에 큰 비가 내림.
 848)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뒹굴.
 849) 위쪽으로 뒹굴며.
 850) 至重한. 매우 중한. 매우 중요한.
 851) 父女天倫. 아버지와 딸로 태어난 혈연적 관계.
 852) 죽겠습니까?
 853) 大明天地. 밝은 천지.
 854) 七十生男. 나이 칠십에 아들을 낳음.
 855) 侍婢. 몸 가까이서 모시는 여자 종.
 856) 여쭙되. 묻되.
 857) 어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858) 身世自歎. 불행한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한탄함.
 859) 八字. 사람의 한 평생의 운수.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 날과 시간을 간지(干支)로 나타내면 여덟 글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 860) 兩親. 부모.
- 861) 俱存. 모두 다 살아 있음.
- 862) 반가와 하여.
- 863)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 864) 天下.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 865) 壯커니와. 장하거니와. 훌륭하거니와.
- 866) 누구에게.
- 867) 依託.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 868) 解約. 약속을 소멸시킴.
- 869) 여쭙되. 말씀드리되. 말씀드리기를.
- 870) 當初.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
- 871) 言約. 말로 약속함. 말로 하는 약속.
- 872)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짐.
- 873) 無功한. 공이 없는.
- 874) 氣色.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 875) 畫像. 얼굴을 그린 그림.
- 876) 畫工. 화가.
- 877) 愁心겨워. 근심스런 생각이 북받쳐 참기 어려워하면서.
- 878) 모양. 모습.
- 879) 重賞. 큰 상.
- 880) 分付.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림. 또는 그 명령이나 지시.
- 881) 五色丹青.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
- 882) 물끄러미.
- 883) 花容月態. 꽃같이 고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
- 884) 細雨中. 가랑비 속. 이슬비 속.
- 885) 젊고 싱싱한.
- 886) 땅아진. 셋 이상의 가닥으로 넓고 길게 엮어진.
- 887) 綠衣紅裳.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인의 복장.
- 888) 歷歷히. 환히 알 수 있게 또렷이.
- 889) 簇子.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하여 만든 것으로, 기둥이나 벽에 걸기도 하고, 말아두기도 함.
- 890) 書題. 그림 위에 쓰는 시문(詩文).
- 891) 生之死之一夢間에 年長何必淚森森고? 世間催淚斷腸處는 草綠江南人未還이라. 나고 죽는 것이 한 바탕의 꿈인데, 나이 들어 하필 눈물을 흘리는가? 세상에 살며 눈물을 재촉하는 가슴 아픈 일은, 푸른 강남에 한번 가서 오지 않는 사람이라네.
- 892) 人倫.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나 인간관계의 질서.
- 893) 건너가겠나이다. 건너가겠습니다.

- 894) 情狀. 딱하거나 가엾은 상태.
 895) 可矜히. 불쌍하게.
 896) 白米. 흰 쌀.
 897) 麻布. 삼베.
 898) 白木. 무명배.
 899) ‘묶음’을 세는 단위로, 피륙은 50필을 말함.
 900) 洞中. 한 동네 전부.
 901) 치마.
 902) 여러 번 걷는 모양.
 903) 엮드리지며. ‘엮드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엮어지다.
 904)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905) 놀던.
 906) 七月七夕夜에. 칠월칠석날 밤에.
 907) 結交. 친구로 맺음.
 908) 하자고 했더니.
 909) 上針질.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910) 누구와.
 911) 俱存. 부모가 모두 살아계심.
 912) 모두.
 913) 白日. 밝은 해.
 914) 陰雲. 하늘을 덮은 시커먼 구름.
 915) 쩡그리는 듯.
 916) 시들고자. 시들려고 하여.
 917) 春鳥. 봄철의 새.
 918) 百般啼送. 온갖 것이 모두 울면서 보냄.
 919) 喚友聲. 짝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
 920) 歸蜀道.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촉나라로 돌아가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921) 不如歸.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922) 모퉁이.
 923) 狂風. 세차게 부는 바람.
 924) 若道春風不解意면 何因吹送落花來랴? 만약 봄바람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는 꽃을 날려 보내겠는가?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의 시 〈희제반석(戲題盤石)〉의 끝 구절임.
 925) 송(宋)무제(武帝) 수양공주 매화장(梅花粧)은 있지마는. 송나라 무제의 딸 수양공주가 매화로 단장한 일은 있지만은. ‘매화장’은 처마 밑에 누운 공주의 얼굴에 매화꽃이 떨어저, 마치 매화 꽃잎으로 화장한 것과 같이 그윽한 향기를 풍겼음을 나타낸 말.

- 926)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리오?
 927) 江邊. 강가.
 928) 船頭. 뱃머리. 배의 맨 앞부분.
 929) 足板. 배에 오르기 쉽도록 배와 물을 이어대는 판자.
 930) 나무로 만든 배의 안쪽 바닥.
 931) 行船. 배가 떠날.
 932)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흠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933) 棹질. 노질. 노를 젓는 일.
 934) 어떤 물건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모양.
 935)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936) 茫茫한. 아득하게 넓은.
 937) 滄海. 넓고 큰 바다.
 938)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939)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940)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941) 三江. 오나라의 송강·전당강·포양강의 세 강.
 942)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943)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944)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 혹은 그 소리.
 945) ‘그언마는’의 잘못. 그것이건마는.
 946) 당나라 때 시인 전기(錢起)의 〈상영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임. 원문은 〈(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青 (노래 소리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물 위에 두어 개 산봉우리만 푸르다))〉임.
 947)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948) 나로. 나를.
 949) 長沙. 중국 화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950)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 사람으로, 굴원의 닛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951)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으로 들어감.
 952)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를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953)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954) 무양(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955)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창현의 서쪽 황학산에 있는 누각.
 956)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 오르는 물안개는 시름만 더해준다. 당나라 때 시인 최효의 〈황학루〉의 끝 구절.
 957) 崔灝.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하남성 개봉 사람으로, 벼슬은 보잘 것이 없었으나,

노후의 시가 좋았다.

958) 遺蹟. 옛 자취.

959)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960)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이수'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961) 李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青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 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 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962) 놀던.

963)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964)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965) 一去後에. 한 번 간 후에. 한 번 죽은 후에.

966)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967) 赤壁江.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를 짓고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968) 蘇東坡. 이름은 식(軾)이고, 호가 동파인 북송의 문인. <적벽부(赤壁賦)>를 지어 널리 알려짐.

969) 風月. 청풍명월. 자연 경치, 또는 그것을 노래한 시.

970) 依舊하여. 옛과 같이.

971)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호임.

972) 一世之雄. 한 때의 영웅.

973) 而今에 安在哉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974)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975) 姑蘇城.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976)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977) 종소리.

978)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979)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시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탄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魚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달은 지고 까마귀 우는데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줄며 바라본다.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 탄 배까지 들린다.)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980)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

- 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981) 隔江의. 강 건너편의.
- 982) 商女. 술파는 여인.
- 983)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 984)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 985)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986)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라는 시를 그대로 딴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망국한’은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후정화’는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987)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이름난 누대.
- 988) 湖上에. 호수 위에.
- 989) 巫山. 중국 사천성 무산현의 동쪽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된 명산.
- 990) 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종류에 있음.
- 991) 上下天光. 위와 아래(곧 호수에 비친 하늘과 하늘에 있는)의 하늘빛.
- 992) 여기서는 맑은 동정호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993) 蒼梧山.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구의(九疑)라고도 함. 순임금이 이곳에서 죽었음.
- 994)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모신 사당.
- 995) 三峽. 중국 사천, 호북 두 성의 경계에 있는 양자강 종류의 좁은 골짜기. 무산(巫山) 산지(山地)의 침식으로 세 협곡이 이어져, 예로부터 유명한 경승지임.
- 996) 원승이.
- 997) 遷客.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귀양 간 사람.
- 998) 騷人. 시인 또는 문사(文士).
- 999)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000) 竹林. 대나무 숲.
- 1001) 玉佩. (여자들이 지니는) 옥으로 만든 패물.
- 1002) 仙冠. 신선이 쓰는 모자.
- 1003) 沈小姐. 심씨 성을 지닌 아가씨.
- 1004) 나의.
- 1005) 蒼梧山崩湘水絕이라야 竹上之淚乃可滅이라. 이태백이 쓴 시 〈원별리(遠別離)〉의 한 구절.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수 강물이 끊어져야, 대나무 위에 흘린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 순임금이 죽자, 그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다가 따라 죽었는데, 그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 소상반죽(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1006) 千秋. 아주 오랜 세월.
- 1007)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 1008) 말이나 행동이 곱고 점잖으랴?
- 1009) 堯舜 後 幾千年에. 요순 임금 후 수천 년이 흐른 뒤에.
- 1010) 누구이며.
- 1011) 五絃琴. 순임금이 타던 다섯 줄로 된 악기.
- 1012) 南風詩. 순임금이 지었다는 시로, 순임금은 오현금을 타며 이 시를 노래불렀다고 한다.
- 1013) 水路. 물길. 바닷길.
- 1014) 이는 누구인고 하니.
- 1015) 堯女舜妻 萬古烈女 二妃로다.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인 만고의 열녀인 두 왕비 (곧 아황과 여영)로다.
- 1016) 胥山.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 사람으로 오나라에서 장군으로 있다가 모함으로 죽은 오자서의 사당이 있는 곳.
- 1017) 狂風. 사나운 바람. 세차게 부는 바람.
- 1018) 大作하며. 크게 일어나며.
- 1019) 蕭颯하더니. 쓸쓸하더니.
- 1020) 面如巨輪. 얼굴이 큰 수레바퀴와 같이 큼.
- 1021) 眉間이 廣闊하고, 두 눈썹 사이가 넓고.
- 1022) 오나라 왕 부차가 간신 백비의 말을 듣고 오자서를 자결케 한 뒤, 가족부대에 시신을 담아 강물에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음.
- 1023) '백비(伯嚭)여야 할 듯 함. 초나라의 대신이었던 백주리의 손자로, 백주리가 초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에 와서 재상이 되었으나, 오자서를 모함하여 죽게 했다.
- 1024) 屬鏹劍.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자결하라고 내린 칼.
- 1025) 越兵이 滅吳함을 내 눈으로 보려고. 월나라 병사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내 눈으로 보려고.
- 1026) 참소로 죽게 된 오자서가 죽을 때, 월나라에 의해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죽은 뒤에 두 눈을 빼어 동문(東門)에다 걸어놓으라고 한 고사를 이룸.
- 1027) 괴이(怪異)하다. 이상아룻하다.
- 1028) 나에게.
- 1029) 伍子胥. 초나라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오사(伍奢)와 형 오상(伍尚)이 초나라 평왕에게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망명한 후 장군이 되어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간신의 참소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시신은 가족 부대에 담겨져 강물에 버려졌다. 자서는 그의 자(字)이며, 이름은 원(原)이다.
- 1030)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 1031)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무관(武關)에서 만나자는 말에 속아 무관에 갔다가 잡혀 죽은 일을 가리킴.
- 1032) 未歸魂. 돌아오지 못한 혼령.
- 1033) 博浪槌聲. 하남성의 박랑사(博浪沙)에서의 철퇴 소리. 한(漢)나라의 모사가 된 장량

- (張良)이 장사를 얻어,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진시황이 타고 가는 수레를 박랑사에서 철퇴로 내려친 일을 가리킴. 진시황의 살해 계획은 실패했음.
- 1034) 반겨.
- 1035) 洞庭 달. 동정호에 비치는 달빛. ‘동정호’는 중국 호남성 북동쪽, 양자강 중류에 있는 민물 호수.
- 1036) 진시황은 진나라 소왕(昭王)의 후예이기 때문에, 진시황을 죽여 소왕에게 당한 복수를 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음을 표현한 뜻함.
- 1037) 王者. 왕.
- 1038) 憔悴. 고생이나 병으로 인하여 안색이 파리하고 해쓱함.
- 1039) 形容. 생긴 모양.
- 1040) 枯槁. 야위어서 파리함.
- 1041) 屈原. 중국 전후시대 초나라의 선비로 이름은 평(平), 자는 원(原). 회왕을 도와서 공이 컸으나, 참소로 몰려나 멍라수에 빠져 죽었음. <초사(楚辭)>와 <어부사(漁夫辭)>를 지었음.
- 1042) 精魄. 죽은 사람의 영혼.
- 1043) 四五朔. 4~5개월.
- 1044) 金風颯而夕起하고, 玉宇廓而崢嶸이라. 가을 바람이 저녁에 쌀쌀하게 일어나고 넓은 하늘이 말쑥하게 빛난다. 조선 시대 김인후(金仁厚)가 지은 <칠석부(七石賦)>의 한 구절.
- 1045) 落霞與孤鶩齊飛하고, 秋水共長天一色이라. 떨어지는 저녁놀을 따라 외로운 따오기가 날고, 가을의 맑은 물은 높은 하늘과 같은 빛깔이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藤王閣)>의 머리글인 <등왕각서>의 한 구절.
- 1046) 江岸에 橘濃 黃金이 千片. 강 언덕에 귤빛이 질어지니 마치 수많은 황금 조각 같음.
- 1047) 蘆花에 風起하니 白雪이 萬點이라. 갈꽃에 바람이 부니, (갈꽃이 바람에 날려) 흰눈이 가득하게 흩날리는 것과 같다.
- 1048) 深蒲細柳. 냇버들과 가는 버들.
- 1049) 滿江秋風에. 강에 가득한 가을바람에.
- 1050) 玉露清風. 맑은 이슬과 서늘한 바람.
- 1051) 돋우어 켜고.
- 1052) 漁歌. 어부들의 뱃노래.
- 1053) 海畔青山. 바닷가 언덕의 청산.
- 1054) 肝腸이라. ‘간장’은 마음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근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
- 1055) 日落長沙秋色遠하니 不知何處吊湘君고. 장사에 해는 지고 가을은 깊어가는데, 어디 가서 상군을 조문할지 모르겠구나.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의 마지막 두 구절. ‘장사’는 동정호 곁에 있는 지명이며,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가리킴.
- 1056) 宋玉.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굴원(屈原)의 제자. 사(辭)와 부(賦)에 능하여 <구변(九辯)>, <초혼(招魂)>, <풍부(風賦)>, <고당부(高唐賦)> 등의 작품을 남겼다.
- 1057) 悲秋賦. <초사(楚辭)>의 <구변(九辯)>을 가리킴.

- 1058) 이보다.
- 1059) 童女. 여자 아이.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배에 태워 보냈다고 함.
- 1060) 採藥. 땀가. 약을 캐러 가는 배인가.
- 1061) 方士.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
- 1062) 전한(前漢)의 7대 왕.
- 1063) 求仙. 신선을 구함.
- 1064)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1065) 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키.
- 1066) 蒼茫. 넓고 멀어 아득함.
- 1067) 魚龍. 물고기와 용. 모든 물고기.
- 1068) 霹靂. 벼락.
- 1069) 大洋. 큰 바다.
- 1070) 저물어진.
- 1071) '까치놀'인 듯. '까치놀'은 석양에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바다의 수평선에서 희번쩍거리는 물결.
- 1072) 배의 맨 앞부분.
- 1073) 都沙工. 뱃사공 중의 우두머리.
- 1074)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 1075) 遑遑急急.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댐.
- 1076) 告祠器械. 고사를 지내는 데 쓰는 물품.
- 1077) 한 섬이나 되는 쌀.
- 1078) 온전한 소. 한 마리 통째의 소.
- 1079) 둥이.
- 1080) 五色湯需.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다른 탕국.
- 1081) 三色實果. 세 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
- 1082) 멧돼지.
- 1083) 배의 맨 앞부분.
- 1084) 衣冠. 옷과 관을 갖추어 차림.
- 1085) 整齊. 격식에 맞게 한결같이 가지런히 함.
- 1086)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1087) 만들어.
- 1088)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1089) 然後에. 후에.
- 1090)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1091) 爲業. 직업으로 삼음.
- 1092) 夏后氏.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夏)나라를 세운 우(禹)임금. '후'는 우임금이 순(舜)임금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르는 칭호.

- 1093) 九年治水.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일어났던 9년 동안의 큰 홍수를 다스린 일. 우는 이 때의 공로로 왕위를 물려받아 하나라를 세웠음.
- 1094) 다스릴.
- 1095) 五服으로定한 貢收. 오복에 따라 정한 공수. 오복에 따라 정한 세금의 징수. ‘오복’은 서울을 가운데 두고 주위를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상고시대에는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으로 나누었는데, 한 복은 각각 500리임. ‘공’은 하나라 때의 세법(稅法)을 가리키므로, 공수는 세법에 따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물품을 뜻함.
- 1096) 九州. 고대 중국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지방. 곧 온 천하.
- 1097) 伍子胥.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 장수. 이름은 원(員).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평왕에게 파살되었기 때문에 오(吳)나라로 도망가서, 오나라를 도와 초를 쳐서 원수를 갚았음.
- 1098) 奔吳할 제. 오나라로 도망갈 때.
- 1099) 櫓歌로 건너 주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건너 주고.
- 1100) 해하성(垓下城)에서 패한 장수. 곧 항우를 가리킴. 해하는 중국 안휘성 영벽현에 있는 옛 싸움터로, 기원전 202년 한 고조 유방(劉邦)의 군사가 초나라 항우(項羽)의 군사를 무찌른 곳임.
- 1101)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지명. 화현(和縣)의 북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양자강 연안에 있음. 항우가 자결한 곳임.
- 1102) 于先待期. 우선 (다시 반격할) 시기를 기다리기로 하며.
- 1103) 孔明. 삼국시대 촉(蜀)의 모사인 제갈공명(諸葛孔明, 181-234.) 성은 제갈(諸葛), 자는 공명(孔明), 이름은 량(亮). 삼국시대 유비 현덕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으나,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음. 뛰어난 지략과 충의의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인으로 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임.
- 1104) 脫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뛰어난 재간.
- 1105)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명장.
- 1106) 火攻. 불로 하는 공격. 조조의 백만군과 오·촉 연합군이 적벽강에서 접전할 때, 공명이 겨울철에 동남풍을 빌어 화공을 통해 조조의 군사를 대파한 일을 가리킴.
- 1107) 舟搖搖以輕揚. 배는 흔들리며 가볍게 나아간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한 구절.
- 1108) 陶淵明. 중국 진(晉)나라의 시인으로 심양 출신. 이름은 잠(潛). 405년에 팽택(彭澤)의 슈이 되었으나 80여일 후에 〈귀거래사〉를 남겨두고 귀향했음. 문 앞에 버드나무를 심고,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일컬었음.
- 1109) 〈귀거래사(歸去來辭)〉. 도연명이 지은 시.
- 1110) 해환고범지(海闊孤帆遲). 바다는 넓는데, 외로운 돛단배는 느릿느릿 떠간다. 이태백의 시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에 나오는 시구.
- 1111) 장한강동거(張翰江東去). 장한이 강동으로 떠남. 이태백의 시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의 첫 구절.
- 1112) 壬戌之秋七月. 임술년 가을 7월.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의 첫 구절.
- 1113) 蘇東坡. 중국 북송의 문인으로, 이름은 식(軾), 자(字)는 자첨(子瞻). 동파는 그의 호.

- 아버지 순(洵), 동생 철(轍)과 함께 삼소(三蘇)로 일컬어지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임.
- 1114) 배가 떠날 때 배에서 나는 소리의 의성어.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1115) '어기영차'와 같은 의성어.
- 1116) 叩枻乘流無定去. 노를 놓아두고 물결을 타고서 한없이 감.
- 1117) 즐거움.
- 1118) 桂棹蘭桡華亭彪는 吳姬越女採蓮舟요. 화정의 강물에 뜬 계수나무 노와 난목 샅대를 한 배는, 오나라와 월나라 여인들이 연을 캐는 배요. '화정'은 중국 강소성 송강현에 있는 지명.
- 1119) 發船. 배가 떠남. 배를 타고서 떠남.
- 1120) 商賈船. 장사하는 배.
- 1121) 商賈. 장사.
- 1122) 爲業. 직업으로 삼음.
- 1123) 經世又經年. 해가 지나고 또 지남. 곧 여러 해가 지남.
- 1124) 漂泊西南.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님.
- 1125)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 1126) 무속의 신의 이름인 듯.
- 1127) 속의 신의 이름인 듯.) 무속의 신의 이름인 듯.
- 1128) 江漢之將. 큰 강물을 지키는 장수. 여기서는 강물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1129)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을 다스리는 임금. 여기서는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1130) 下瞰. 위에서 내려다봄.
- 1131) 飛廉. 중국에서 바람의 신으로 받드는 신.
- 1132) 和樂. 화평하고 즐거움.
- 1133) 患難. 근심 걱정과 재난.
- 1134) 百千萬金. 수많은 돈.
- 1135) 堆. 이익.
- 1136) 鳳旗. 봉이 그려진 깃발.
- 1137) 蓮花. 연꽃.
- 1138) 무엇이 생기는 것을 미리 지시해 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139) 고수레. 무당이 굿을 할 때, 또는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남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귀신에게 음식을 먼저 바친다하여 음식을 조금씩 떼어 던지면서 하는 소리, 또는 그 짓.
- 1140) 雲縵. 구름이나 안개가 끼어 흐릿한 기운.
- 1141) 焚香四拜. 향불을 피우고 네 번 절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함.
- 1142) 秋毫도. 조금도.
- 1143) 大明天地. 환하게 밝은 세상.
- 1144) 七十生男. 일흔 살에 아들을 낳음.

- 1145) 億十萬金. 수많은 돈.
 1146) 그것일랑은. 그것은.
 1147) 萬頃蒼波. 한없이 넓은 바다.
 1148) 갈매기처럼.
 1149) 香火. 향불이나 그 연기.
 1150) 海門. 두 육지 사이의 바다나 그 사이에 보이는 수평선.
 1151)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1152) 格軍. 조선시대 선원으로 사공의 일을 돕던 사람.
 1153) 火匠. 밥을 짓는 일을 맡은 선원.
 1154) 年年이. 해마다.
 1155) 後嗣. 대를 이을 자식.
 1156) 雨後淸江. 청강. 비 온 후의 맑은 강.
 1157) 景. 경치.
 1158) 白鷗. 갈매기.
 1159) 紅蓼月色. 가을이 되어 잎이 다 떨어져 붉은 대만 남은 여뀌에 비치는 달빛.
 1160) 곳인고?
 1161) 逸江細雨勞平生. 가랑비 내리는 한가한 강에서 힘든 평생.
 1162) 泛彼滄波. 저 넓은 푸른 물결 위에 둥둥 떠서.
 1163) 滔滔滔滔. 넘실넘실.
 1164) 玉皇上帝. 도가(道家)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1165) 下教. 임금이 내리는 명령.
 1166) 卯日. 12간지로 卯에 해당하는 날.
 1167) 卯時. 아침 5~7시 사이.
 1168) 琉璃國. 가상의 나라 이름.
 1169) 四海. 동서남북의 네 바다.
 1170) 卯時初. 묘시(5~7시)의 처음. 곧 다섯 시 무렵.
 1171) 玉轎. 위를 꾸미지 않은, 임금이 타는 가마.
 1172) 禮하여.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이나 인사를 하여.
 1173) 여쭙되. 말씀드리되. 말씀드리기를.
 1174) 轎子.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앞뒤로 2명씩 네 명이 메는 가마.
 1175) 微賤. 보잘 것 없고 천한.
 1176) 大罪. 큰 죄.
 1177) 威儀. 위엄 있는 거동.
 1178) 壯할시고. 대단하고 훌륭하구나.
 1179) 仙官. 신선.
 1180) 太乙眞. 태을진군(太乙眞君).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
 1181) 安期生. 중국 진(秦)나라 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약을 팔다가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

- 1182) 鸞. 봉황의 한 가지인 신령스러운 새.
- 1183) 赤宋子. 중국 신농씨(神農氏) 때의 신선. 비와 바람을 타고 곤륜산에 와서 놀았다고 함.
- 1184) 葛仙翁.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185) 李謫仙. '이씨 성을 가진 귀양 온 신선'이란 뜻으로,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을 가리킴.
- 1186) 青衣童子.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 1187) 紅衣童子.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 1188) 月宮姮娥. '항아'는 달에 산다고 전해 오는 선녀. '월궁'은 항아가 살고 있다는 궁전.
- 1189) 麻姑仙女. 중국의 전설상의 선녀. 한나라 환제 때에 모주의 동남쪽에 있는 고여산에서 수도를 하여 선녀가 되었는데, 바다가 세 번이나 뿔나무밭으로 변화도록 오래 살았으나 늘 젊어 보였다고 한다.
- 1190) 南岳夫人.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인 남악에 있다는 선녀인 위부인(魏夫人).
- 1191) 八仙女들. 여덟 선녀들.
- 1192) 王子 晉. 중국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 1193) 鳳竽. 왕자 진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내었기 때문에 그 피리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 1194) 郭處士. 당나라 무종(武宗) 때의 괘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격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195) 질장구.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 나라 질장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장구라고 한 듯하다. '죽장구'는 '질장구'가 변하여 된 말.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큰 돛처럼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196) 張子房. 이름은 양(良)이며, 자방은 그의 자(字).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음. 특히 해하의 싸움에서 옥통소를 구슬프게 붙여 항우의 군사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긴 것으로 유명함.
- 1197) 狼藉.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1198) 掛龍骨以爲樑하니 靈光이 照日이요, 緝魚鱗以作瓦하니 瑞氣 蟠空이라. 용의 뼈를 걸어 들보를 삼으니 신령한 빛이 햇살에 더욱 빛나고, 고기들의 비늘로 기와를 만들어 덮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을 가렸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1199) 珠宮貝闕은 應天上之三光이요, 袞衣繡裳은 備人間之五福이라. 진주와 보배로운 조개로 만든 궁궐은 하늘의 세 가지 빛 (해·달·별)에 조응하고 곤의(고대 천자가 입던 옷)와 수裳(고대 천자가 입던 수놓은 하의)은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갖추었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1200) 珠簾. 구슬로 만든 발.
- 1201) 案床. 책상.
- 1202) 酒饌. 술과 만찬.
- 1203) 琉璃盞. 유리로 만든 술잔.
- 1204) 琥珀瓶. 호박 구슬로 만든 술병.
- 1205) 千日酒. 담근 지 천 일이나 된 좋은 술.
- 1206)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개씩 연다는 신선 세계의 푸른 복숭아.

- 1207) 높이 우뚝 솟아서 당당하게.
 1208) '괴다'는 '과일이나 음식을 높이 쌓아올리다'라는 뜻.
 1209) 小宴. 작은 잔치
 1210) 大宴하며. 큰 잔치를 벌이며.
 1211) 奉供. 받들어 공양함.
 1212) 玉眞夫人. 달 속에 산다는 선녀.
 1213) 廣寒殿. 달 속의 선녀인 향아(姮娥)가 산다는 전각.
 1214) 相逢次. 서로 만나려고.
 1215) 五色綵緞.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
 1216) 碧桃花. 신선세계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1217) 丹桂花. 달 속에 있다는 붉은 계수나무의 꽃.
 1218) 前陪. 벼슬아치의 행차 때나, 상관을 뵈러 갈 때 앞을 인도하던, 관가에서 부리던 하인.
 1219) 惶怯. 마음이 몹시 급하여 겁먹은 듯이 허둥댐.
 1220) 拜禮. 절을 함.
 1221) 貴히. 귀하게.
 1222)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는.
 1223) 만류(挽留)하는데. 권하여 못하게 하는데.
 1224) 日後. 며칠 후.
 1225) 萬鐘祿. 매우 많은 봉록(俸祿). '봉록'은 나라에서 벼슬아치에게 주던 봉급. '종'은 용량의 단위로 64말(斗).
 1226) 職分. 맡은 바 일의 본분.
 1227) 許多. 몹시 많음.
 1228) 玉佩. 여자들이 차던, 옥으로 만든 패물.
 1229) 琤琤. 옥이 맞부딪쳐 맑게 울리는 소리.
 1230) 五色彩雲.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구름.
 1231) 우두커니.
 1232) 芳年. 한창 젊은 꽃다운 나이. 여기서는 혼인할 나이.
 1233) 人間. 사람 사는 세상.
 1234) 還生. 다시 태어남.
 1235) 貴人. 귀한 사람.
 1236) 人道還生.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갔다가 이승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
 1237) 沈小姐. 심씨 성을 가진 소저. '소저'는 아가씨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
 1238) 봉오리.
 1239) 陽臺 仙女. 양대의 선녀. 무산(巫山)의 선녀가 초나라 회왕에게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산에 내려, 아침이나 저녁이나 양대에 나타난다'고 한 말이 나온다. 양대선녀는 따라서 무산의 선녀이다.
 1240) 寶貝. 보배.
 1241) 堆. 이익.

- 1242) 忽然. 문득. 갑자기.
- 1243) 淨히. 깨끗하게.
- 1244) 五丈原. 중국 섬서성에 있는 옛 전쟁터. 제갈공명이 병사한 곳임.
- 1245) 落傷.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침.
- 1246) 三年 武關의 楚懷王. 옛 중국의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이 진(秦)나라의 소왕(昭王)에게 속아, 무관에서 만나자는 말을 믿고 무관에 갔다가 잡혀서,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죽은 일을 말함.
- 1247) 飲饗. 귀신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 1248) 祭物. 제사에 쓰는 음식물.
- 1249) 世上의 못 본 바라. 세상에서는 못 본 것이다.
- 1250) 當치. 마땅하지.
- 1251) 陣平. 중국 전한(前漢)의 정치가. 한 고조(高祖)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공이 컸음.
- 1252) 范亞父. 이름은 증(增). 거소(居巢) 출신으로, 나이 칠십에 항우의 모사가 되어, 홍문에서 잔치를 벌이고 유방을 죽이려다 실패하였음. '아부(亞父)'란 항우가 아버지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하란 뜻으로 부른 말.
- 1253) 楚陣. 초나라의 진. '진'은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 1254) 火焚崑山. 불이 나서 곤륜산을 태움. 곤륜산은 옥의 명산지.
- 1255) 玉石. 옥과 돌.
- 1256) 明沙十里. 하얀 모래가 10리나 깔려 있는 바닷가.
- 1257) 노를 저을 때 내는 소리. '영차'와 비슷함.
- 1258) 五色彩雲.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
- 1259) 許多히. 매우 많이.
- 1260) 직(職)대로 말은 바 직책에 따라.
- 1261) 財物. 돈이나 그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 1262) 宋天子. 송나라 천자, 곧 임금.
- 1263) 崩. 임금이나 왕후의 죽음.
- 1264) 納妃. 왕비를 맞아들임.
- 1265) 琪花瑤草. 신선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꽃과 풀.
- 1266)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가 앉던 전각.
- 1267) 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늘.
- 1268) 八月芙蓉君子容. 팔월에 피는 연꽃의 군자와 같은 모습.
- 1269) 滿秋水의 紅蓮花. 가을 연못에 가득히 핀 붉은 연꽃.
- 1270)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매화 향기가 희미한 달빛 속에 떠돈다. 송나라 때 시인 임포의 시 〈산원소매(山園小梅)〉의 한 구절.
- 1271) 寒梅花. 추운 가운데 피는 매화.
- 1272) 盡是劉郎去後栽. 이 모두가 유랑이 간 뒤에 심어놓은 것들이다.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모함을 받아 10년을 지낸 뒤에 돌아와, 복숭아꽃이 붉은 것을 보고 지은 시. 〈자랑주지경희중간화제군자(自郎州至京戲贈看花諸君子)〉의 한 구절. 유랑은 유

우석을 가리킴.

1273) 복숭아꽃.

1274) 九月九日龍山吟 笑逐臣 국화꽃. 음력 구월 구일에 용산에 올라기 시를 읊으니, 쫓겨난 신하를 비유했던 국화꽃. 이백의 시 〈구일용산음(九日龍山吟)〉의 ‘구일용산음 황화소축신(九日龍山吟 黃花笑逐臣)’에서 딴 구절.

1275) 三千弟子. 삼천 명이나 되는 제자.

1276) 講論.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함.

1277) 杏壇春風의. 행단의 봄바람에. 행단은 산동성 곡부현 공자묘 앞에 있는, 옛날 공자가 학문을 강의하던 터인데, 복송 때에는 여기에 단을 쌓고 주위에 살구나무를 심었으며, 금나라 때에는 행단비(杏壇碑)를 세웠다.

1278) 梨花滿地不開門하니 長信宮中 배꽃이요. 지는 배꽃 뜰에 가득 쌓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던 장신궁 속의 배꽃이요. ‘이화만지불개문’은 당나라 때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마지막 구절. ‘장신궁’은 한나라 성제(成帝)의 궁녀인 반녀(班女)가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가 있던 태후의 궁. 반녀는 쫓겨가 있던 동안에 〈원가행(怨歌行)〉을 썼음.

1279) 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산.

1280) 兩邊開芍藥. 길 양쪽에 작약이 피어 있음. 한나라 사람인 유신과 완조가 약을 캐러 천태산에 들어갔을 때에 길 양쪽에 작약꽃(합박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는 뜻.

1281) 怨征夫之離別하니 玉窓五見의 櫻桃花. 전쟁터에 나간 낭군과의 이별을 원망하면서, 아름다운 창가에 앵도화를 다섯 번 본다. 곧 이별한 지가 5년이 되었다는 말.

1282) 蜀國恨. 촉나라 망제(望帝)의 한. 망제는 주나라 말기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杜宇)를 가리키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원통하게 죽어, 그 넋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1283) 啼血. 피를 토함.

1284) 진달래꽃.

1285) 李花. 오얏꽃. 자두꽃.

1286) 蘆花. 갈대꽃.

1287) 鷄冠花. 맨드라미.

1288) 黃菊. 노란색 국화.

1289) 白菊. 흰색 국화.

1290) 四季花. 월계화(月季花). 월계꽃.

1291) 東園桃李片時春. 봄동산의 복사꽃 오얏꽃이 잠시 동안의 봄을 누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임고대(臨高臺)〉의 한 구절.

1292) 牧童遙指가 杏花村.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을 가리킴. 당나라 때 시인 두목(杜牧)의 시 〈청명(清明)〉의 ‘차문주가하처재(借問酒家何處在)오 목동요지행화촌(牧童遙指杏花村)(주막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에서 따온 구절.

1293) 月中丹桂無三更. (달은 언제나 밝아서) 달에 있는 계수나무에는 삼경(밤11시에서 1시 사이의 시간. 곧 한밤중)이 없다.

1294) 진달래꽃.

- 1295) 芭蕉. 중국 원산의 잎이 크고 넓은 화초로 여러 품종이 있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관상용으로 가꿈.
- 1296) 梔子.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나무. 높이는 2~3m정도이며, 7월에 크고 흰 꽃이 피.
- 1297) 柑果. 장과(漿果)의 하나. 속 열매껍질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생기고 속에 액즙이 들어 있는 과일을 이른다. 귤, 감자, 유자 따위가 있다.
- 1298) 枇杷. 비파나무. 장미과에 딸린 늘푸른 큰키나무. 높이 10m 가량. 늦가을에 향기롭고 누르스름한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여름에 서양 배, 또는 악기 비파 모양으로 노랗게 익음.
- 1299) 으름. 가을에 열리는 열매인데, 먹을 수 있으며, 잘 익으면 하얀 열매가 딱 벌어진다.
- 1300) 대추.
- 1301) 香果. 향기로운 과일.
- 1302)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303) 슬쩍.
- 1304) 날갯죽지. 날개.
- 1305) 지저귀어 울며.
- 1306) 琪花瑤草. 신선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꽃과 풀.
- 1307) 御殿. 임금의 있는 곳.
- 1308) 進上.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옷사람에게 바침.
- 1309) 船人. 뱃사공.
- 1310) 太守. 중국의 지방 관리의 하나.
- 1311) 除授. 벼슬에 추천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시키던 일.
- 1312) 花階上에. 화단 위에.
- 1313) 大喜하사. 대희하시어. 크게 기뻐하시어.
- 1314) 瑤池 碧桃花.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연못가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고 함.
- 1315) 東方朔.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청(曼淸).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고,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俗說)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1316) 降仙花.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이라는 의미.
- 1317) 一夜는. 하룻밤에는.
- 1318) 怪異히. 괴이하게. 이상야릇하게.
- 1319) 사람인가.
- 1320) 不意에. 뜻하지 않게.
- 1321) 天眼. 임금을 높이어 그 눈을 가리키는 말.
- 1322) 惶恐無地. (몸가짐이나 몸 둘 바를 모르게) 매우 무섭고 두려움.
- 1323) 떨어지자마자.
- 1324) 因忽不見. 인듯 보이다가 바로 없어져 보이지 아니함.
- 1325) 探問. 더듬어 찾아 물음.

- 1326) 別宮. 임금이나 왕세자의 혼인 때 왕비나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궁전.
- 1327) 朝會席上. 조회를 하는 자리. '조회'는 벼슬아치들이 아침 일찍이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 1328) 諸臣等. 여러 신하들.
- 1329) 國母. 왕후.
- 1330) 勿失次機.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 1331) 至當. 지극히 당연함.
- 1332) 옳게.
- 1333) 擇日. 날을 잡음.
- 1334) 入宮. 궁에 들어감.
- 1335) 年年이. 해마다.
- 1336) 家家戶戶. 집집마다.
- 1337)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의 세상. 곧 태평성대.
- 1338) 仙降則居. 신선이 내려와 삶.
- 1339) 一夜는. 어느 날 밤에.
- 1340) 玉欄杆. 옥으로 만든 난간.
- 1341) 비스듬히.
- 1342) 秋月은 滿庭하여. 가을 달빛은 정원에 가득하여.
- 1343) 珠簾. 구슬로 만든 발.
- 1344) 晴天. 맑은 하늘.
- 1345) 月下에. 달 아래.
- 1346) 蘇中郎 北海上의 便紙 傳틴 기러기냐. 흉노 땅 북해에 잡혀 있던 소중량이 편지를 전하던 기러기냐? 소중량은 한무제(漢武帝) 때의 충신으로, 이름은 무(武), 자(字)는 자경(子卿).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으므로 소중량이라고 함. 소무는 흉노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있었는데, 기러기 발에다 편지를 묶어 날려보내,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 19년 만에 돌아왔음.
- 1347) 水墨. 빛이 옅은 먹물. 여기서는 글씨에 물이 번져 뭉개진 것을 이룸.
- 1348) 誤錯. 잘못되어 뒤섞임.
- 1349) 滄茫. 너르고 멀어 아득함.
- 1350) 분명하고 뚜렷하게.
- 1351) 內宮. '왕비가 거처하는 궁'이란 의미로 쓴 듯함.
- 1352) 愁色. 근심스런 기색.
- 1353) 富는. 부유하기는.
- 1354) 天下. 온 세상.
- 1355) 貴는. 귀하게 되기는. 귀함으로 말하면.
- 1356) 皇后읍는데. 황후이운데. 황후이신데.
- 1357) 天下莫非王土. 천하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음. 온 세상이 다 왕의 땅임.
- 1358) 率土之民이 莫非王民. 온 나라 안의 백성이 왕의 백성 아닌 사람이 없음.
- 1359) 行關. 동등한 관청 사이에 공문을 보냄.

- 1360) 大小 盲人間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맹인은 모두.
- 1361)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 1362) 排設. 벌여 베풀어 놓음.
- 1363) 封庫罷職. 어사나 감사가 부정이 많은 관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잠그던 일.
- 1364) 傳令. 명령을 전함.
- 1365) 至於. ~에 이르기까지.
- 1366) 排設. 벌여 베풀어 놓음.
- 1367) 晝夜自歎. 밤낮으로 스스로 탄식함.
- 1368) 僅僅扶持. 겨우 건디어 나감.
- 1369) 江頭. 강가의 나루 근처.
- 1370) 望思臺. 한나라 무제(武帝)가 간신의 모략으로 달아나 목매어 죽은 태자의 무죄함을 뒤에 알게 되자, 사자궁을 짓고, 그 안에다 태자의 넋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누각. 애매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거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누각에 곧잘 붙이는 이름.
- 1371) 春秋로. 봄, 가을로.
- 1372) 곁에.
- 1373) 墮淚碑. 눈물을 흘린 비. 사마염(司馬炎)이 서진(西晉)을 세우고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 명장인 양호(羊祜)가 죽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양양현 현산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울어서 붙은 이름.
- 1374) 至憂老親廢雙眼하여 殺身成孝行船去라. 煙波萬里常深碧허니 芳草年年還不歸라. 늙으신 어버이께서 두 눈이 다 없는 것을 지극히 근심하여, 자신을 죽여 효를 이루고자 배를 타고 떠났네. 멀고 먼 안개 낀 물 늘 깊고 푸른데, 꽃다운 풀은 해마다 다시 피어나지만, (심청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 1375) 碑文. 비석에 새긴 글.
- 1376) 나면.
- 1377) 지팡이.
- 1378)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 1379) 水中孤魂. 물 속의 외로운 혼령.
- 1380) 아래로 내려가면서 덩굴.
- 1381) 위로 올라가며 덩굴.
- 1382) 가슴.
- 1383) 南之西之. '남쪽과 서쪽'인 듯.
- 1384) 가리키는구나.
- 1385) 四顧無親.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 1386) 手足. 팔과 다리. 형제나 자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387) 近村. 가까운 마을.
- 1388) 號. 별호(別號). 달리 부르는 이름.
- 1389) 錢穀間에.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무엇이냐 간에.
- 1390) 洞里. 동네.

- 1391) 自願出家. 자기가 원하여 시집을 감.
 1392) 家産. 집안의 재산.
 1393) 음식을 먹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1394) 亡하는디. 망하게 하는데.
 1395) 밥을 시켜 먹는 일.
 1396) 洞人. 동네 사람.
 1397) 樵軍. 나무꾼.
 1398) 行人에게. 길가는 사람에게.
 1399) 詰難.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
 1400) 가볍게 한 번 훑어보는 모양.
 1401) 가볍게 한 번 눈동자를 옆으로 굴러 조금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모양.
 1402) ‘빼죽’보다 강한 말.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1403) ‘빼죽’보다 센 말.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1404) 害談. 해로운 말. 방해하는 말.
 1405) 託情. 정을 붙임.
 1406) 되었던지.
 1407) 애어가도. 칼 따위로 도려내듯 베어가도.
 1408) 錢穀. 돈과 곡식.
 1409) 돈櫃. 돈을 넣어두는 께. ‘궤’는 나무로 상자처럼 만든 그릇.
 1410) 金巡將宅. 김씨 성을 가진 순장 벼슬을 한 집. ‘순장’은 조선조 때 순청(巡廳)의 벼슬. 정3품 문무관으로, 밤에 서울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아 보았음.
 1411) 家用. 집안 살림살이의 비용.
 1412) 外丁. 어른 남자.
 1413) 살림살이의 형편.
 1414) 임신한다고.
 1415) 除해버렸는데. (계산에서) 빼버렸는데.
 1416) 두 달 전.
 1417) 口味. 입맛.
 1418) 아기서러나보네. 임신하려나보네.
 1419) 부피를 재는 기구로 분량을 헤아려보니.
 1420) 시큰둥하게 건방지지는.
 1421) 앓을는지.
 1422) 皇城. 황제가 있는 궁궐이 있는 성.
 1423) 路資. 먼 길을 가는 데 드는 비용.
 1424) 厚히. 넉넉하게.
 1425) 갈까?
 1426) 女必從夫.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름.
 1427) ‘열녀’의 ‘열’이 10을 뜻하는 말과 음이 같으므로, 그보다 더 나은 ‘백(100)녀’라고 하면 서, ‘백여우’를 암시하는 말임.

- 1428) 조금.
 1429) 등에 지기 위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꾸린 짐.
 1430) 피나리봇짐.
 1431) 이제.
 1432) 어떻게 갈까?
 1433) 越江. 강을 건너 뚝.
 1434) 靑驄馬.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흰 말.
 1435) 지금 이 시각에. 지금 당장에.
 1436) 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
 1437)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노래를 해 주소.
 1438) 경상도 민요의 가락.
 1439) 一色. 뛰어난 미인.
 1440) 서로 마음이 통하여.
 1441) 三伏盛炎. 삼복의 심한 더위. ‘삼복’은 한 해의 가장 더운 기간으로, 초복, 중복, 말복을 이룸.
 1442) 가야.
 1443) 뉘 텐데.
 1444) 才談이지.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하는 말이지.
 1445) 방구석에서.
 1446) 부둥켜안고.
 1447) 왈카다. 갑자기 격한 감정이나 기운 또는 생각이 한꺼번에 치밀거나 떠오르는 모양.
 1448) 새벽길 간다고.
 1449) 이제야.
 1450) 內外間. 부부간. 부부 사이.
 1451) 當初.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
 1452) 하지.
 1453) 그리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1454) 賢哲. 어질고 사리에 밝음.
 1455)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1456)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 자살, 타살, 사고사 따위를 이른다.
 1457)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이 부스러지면서 내는 소리.
 1458) 툭썩. 갑자기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459) 세차게 뿌릴 때..
 1460) 靑山. 푸른 산.
 1461) 골짜기.
 1462) 합수(合水)졌다가. 물이 합쳐졌다가.
 1463)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구비쳐.
 1464) 거품이 일어.

- 1465) 병풍처럼 생긴 바위.
 1466) 景概. 경치.
 1467) 壯히. 매우.
 1468) 덥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1469) 양치질.
 1470) 덥석.
 1471) 三角山. 서울 남산의 옛 이름.
 1472) 이보다.
 1473) 東海流水. 동해의 흐르는 물.
 1474) 이에서. 이보다.
 1475) 크고 묵직한 물건이 깊은 물에 자꾸 떨어져 잠기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476) 종을시고.
 1477) 川邊. 물가.
 1478) 無知한. 하는 것이 어리석고 우악한.
 1479) ‘기억력’을 뜻하는 말인 듯함.
 1480) 먹통에 딸려 목재에 곧은 줄을 긋는 데 쓰는 줄.
 1481) 텅기듯. 먹통을 사용해서 곧은 줄을 그을 때, 먹줄을 늘어 놓은 다음 이것을 잡아당겼
 다 놓음.
 1482) 여기에 가. 여기에.
 1483) 弄한. 희롱한. 장난한.
 1484) 白首風神. 머리가 허연 노인의 풍채
 1485) 완전히. 남김없이 모두.
 1486) 흠쳐가면.
 1487) 나보다는.
 1488) 上八字. 좋은 팔자. 좋은 운수.
 1489) 日月. 해와 달.
 1490) 東西分別.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별하여 가름.
 1491) 돌아서 있거라.
 1492) 물러서 있거라.
 1493) 辟除. 존귀한 사람의 행차 때 하인들이 여러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길을 치던 일로,
 ‘물렀거라’하고 소리침.
 1494) 이제.
 1495) 官은 民之父母. 관리는 백성의 부모임.
 1496) 官長. 시골 백성이 고을 수령을 일컫던 말.
 1497) 옷을 다 벗어 알몸이 된 봉사를 우습게 이른 말.
 1498) 及唱. 옛날 지방 관청에 딸려있던 하인.
 1499) 通人. 지인(知人)이라고도 하며 수령(守令)의 심부름, 행차수행, 명령전달 등의 일을
 하였다. 급료 대신 봉족(국가의 명으로 장정이 동원된 집안에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
 던 일)을 받기도 했으나, 각 지방마다 차이가 많아 일정하지 않았다.

- 1500) 過客. 지나가는 손님.
 1501) 拜謁次로. 뵈겠다고.
 1502) 小盲. 맹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503) 眞所謂畫出之魍魎. 참으로 이른바 대낮에 나온 도깨비임.
 1504) 進退維谷.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이르는 말.
 1505) 別般處分. 보통과 달리 잘 처리해 줌.
 1506)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있다.
 1507) 太守長. 태수 어른.
 1508) 轎軍꾼. 가마를 메는 사람.
 1509)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물건.
 1510) 首奴. 노비 중의 우두머리.
 1511) 여행 경비.
 1512) 白骨難忘. 죽어 흰 뼈가 되어도 잊지 못함.
 1513) 기어이.
 1514) 그런데.
 1515) 불명.
 1516) 담뱃대.
 1517) 百拜謝禮.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함.
 1518) 가상의 다리 이름.
 1519) 가상의 다리 이름.
 1520) 모통이.
 1521) 弄. 희롱. 장난.
 1522) 안 시켜주더라. 봉사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말.
 1523) 실답지 못하게. ‘실답다’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되다.’
 1524) 一飽食도 재수라고. 한 번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것도 재수가 좋아야 한다는 말.
 1525) 忘勞而歌. 수고로움을 잊어가며 노래를 함.
 1526) 주고받아 가며.
 1527) 太古라 天皇氏는 以木德으로 王하였으니. 옛적 천황씨는 목덕으로서 왕노릇을 하였으니. 천황씨는 중국 전설상의 최초의 왕. ‘목덕’은 총명예지와 인·의·예·지의 다섯 가지 덕을 오행으로 형상화한, 우주 만물에 그 힘이 미친다는 임금의 덕.
 1528) 나무.
 1529) 重할쏜가? 중하지 않겠는가?
 1530) 有巢씨 構木爲巢. 유소씨가 나무를 엮어 집을 지었음. 유소씨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보고,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1531) 지으셨나?
 1532) 강태공이 만든 것이로다. 방아의 등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 조작’이라고 썼는데, 이는 경신이 넷 겹치면 이루어진다는 길일과, 주나라의 재상이던 강태공의 힘을 빌어 목신(木神)을 누른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함.

- 1533) 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한 말.
- 1534) 비녀이던가? 비녀인가?
- 1535) 簪. 비녀.
- 1536) 楚王宮人의. 초나라 궁녀의
- 1537) 허리일런가. 허리인가?
- 1538) 滄海 老龍. 넓고 푸른 바다의 늙은 용.
- 1539) 周文王의. 주나라 문왕의. 주나라 문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에 오른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임. 그러나 '돈수'와 관련이 없음.
- 1540) 頓首.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림.
- 1541) 五穀大夫. 춘추시대 사람 백리해(百里奚)를 말함. 백리해가 초나라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오고양피(값비싼 암양의 가죽 다섯 장)를 주고 다시 찾아서 정치를 맡겼으므로 오고대부라 불렀음. 백리해가 정치를 잘하여 진나라는 패자가 되었고 태평했음.
- 1542) 聖上. 자기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1543)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1544)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함.
- 1545) 古今. 옛과 지금.
- 1546) 萬疊青山. 아주 깊은 산.
- 1547) 설치하였는가?
- 1548) 形容. 모양. 생김새
- 1549) 比했든가. 견주었든가. 곧 '사람에 견주어 이를 본따 만들었든가'하는 의미임.
- 1550) 孟浪하다. 가볍게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뚝뚝하고 감쪽하다.
- 1551) 전득전득. 녹진하게 차져 끈적끈적하게 자꾸 달라붙는 모양.
- 1552) 고소하구나.
- 1553) 방아를 찧는 사람.
- 1554) 배充腹. 음식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움. '배'는 불필요한 말임.
- 1555) 一飽食도 재수라고. 한 번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도 재수가 좋아야 한다는 말.
- 1556) 음식의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게.
- 1557) 모퉁이.
- 1558) '자세히'라는 의미인 듯함.
- 1559) 萬無. 결코 없음.
- 1560) 外堂. 바깥채.
- 1561) 夕飯. 저녁밥.
- 1562) 內堂. 안채.
- 1563) 讀經. 경문을 소리 내어 외거나 읽음.
- 1564) 疑端. 의심스러운 일의 실마리. 여기서는 '뭔가 안 좋은 일' 정도의 의미인 듯함.
- 1565) 坐. 자리
- 1566) 棄世. 세상을 버림. 죽음.
- 1567) 卜術. 점치는 법.

- 1568) 平生을 我自知라. 평생을 내 스스로 알다.
- 1569) 吉緣. 운수가 좋은 인연.
- 1570) 일월(日月)은 눈을 상징하므로, 일월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맹인이라는 뜻이고, 잠길 침(沈)은 성으로는 심(沈)으로도 읽히므로 심 씨인 줄 짐작하였다는 뜻.
- 1571) 小妾. 부인이 남편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 1572) 無恥. 염치가 없음.
- 1573) 洞房華燭. 혼례를 치른 뒤에 신랑이 신부 방에 머물러 지는 의식.
- 1574) 胡蝶夢.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즐기며 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음.
- 1575) 만들어.
- 1576) 凶夢. 불길한 꿈.
- 1577) 身入火허니 和樂이요, 去皮作鼓허니 鼓聲이요, 落葉이 歸根허니 子女를 可逢이라. 자신이 불에 들어가니 화평하고 즐거우며(‘火落(불에 떨어짐)과 화락(和樂)이 음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임.), 가족을 벗겨 복을 만드니 복소리가 날 것이요,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 1578) 闕內. 궁궐의 안.
- 1579) 證驗. 증거로 될 만한 경험.
- 1580) 千不當萬不當. 천 번 만 번을 해도 마땅하지 않음. 아주 부당함을 이르는 말.
- 1581) 使令.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 1582) 各邑. 각 고을. 각각의 고을.
- 1583) 亡終. 마지막
- 1584) 參禮. 예식, 제사에 참여함.
- 1585) 외치는.
- 1586)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 1587) 크고 우렁차게.
- 1588) 當年. 그 해의 나이. 올해의 나이.
- 1589) 七十 老患. 연세가 70이나 되어 늙고 병듦.
- 1590) 오시는가?
- 1591) 哀痛하시다가. 몹시 슬퍼하시다가.
- 1592) 靈驗.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신이나 부처가 베풀어주는 신령스런 보람.
- 1593) 宛然히. 분명하고 뚜렷하게.
- 1594) 맹인 속에서. 맹인 중에서.
- 1595) 路中. 길 가는 도중.
- 1596)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 1597)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1598) 居住. 머물러 삶. 여기서는 ‘사는 곳’.
- 1599) 護送. 호위하여 보냄.
- 1600)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 1601) 點考. 장부에다 점을 찍어가며 확인함.
 1602) 末席. 여럿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 맨 끝자리.
 1603) 머리가 허연 노인의 모습.
 1604) 形容. 모습.
 1605) 隱隱하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 하나.
 1606) 눈의 가장자리가.
 1607) 물러지고. 단단한 것이 무르게 되고.
 1608) 皮骨이 相接이라. 가죽과 뼈가 서로 맞닿아 있다. 곧 매우 말랐다는 말.
 1609) 珠簾. 구슬로 만든 발.
 1610) 居住. 사는 곳.
 1611) 妻子. 아내와 자식.
 1612) 小盲. 맹인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613) 故土. 고향의 땅. 고향.
 1614) 產後頗. 출산 후에 일어난 병.
 1615) 喪妻. 아내를 잃음.
 1616) 襁褓. 포대기.
 1617) 出天하여. 하늘이 내서. 아주 뛰어나서.
 1618) 祭需. 제사에 쓰이는 사람이나 물건.
 1619) 于今. 지금까지.
 1620) 나더러.
 1621) 아버지라고 말해?
 1622) 해?
 1623) 버르거나 다짐할 때 쓰는 말.
 1624) ‘깜짝깜짝’의 약한 말. 자꾸 깜짝거리는 모양.
 1625) 道術. 도를 닦아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는 요술이나 술법.
 1626) 어떤 일의 여파, 또는 영향.
 1627) 參禮. 예식, 제사에 참여함.
 1628) 滿座盲人. 좌석에 가득한 맹인.
 1629) ‘갈모’는 ‘갯모’가 변하여 된 말. 비가 올 때에 갯에나 맨머리에 덮어 쓰던 우장의 하나인데,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것으로, 펴면 고깔처럼 되고, 접으면 철부채처럼 훌쩍해진다. 이를 펼 때에는 “찍찍” 하는 소리가 몹시 난다.
 1630) 찢어내는.
 1631) 中途. 중로(中路). 길 가는 중간.
 1632) 실답지 못하게. ‘실답다’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참되다.
 1633) 至於飛禽走獸까지.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
 1634) 光明天地. 밝은 세상.
 1635) 七寶金冠. 칠보로 장식한 금관.
 1636) 前後不見初面이로구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이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1637) 甲子 四月 初八日夜. 갑자년 4월 8일 밤. 광씨부인과 심봉사가 태몽을 꾸던 밤.

- 1638) 人道還生.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갔다가 이승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
- 1639) 꿈인가?
- 1640) 天地. 하늘과 땅. 온 세상.
- 1641) 萬物. 모든 사물.
- 1642) 滄海萬里. 만 리나 되는 멀고 먼 푸른 바다.
- 1643) 還世上. 세상으로 돌아옴.
- 1644) 어둡침침. 어둡고 컴컴함.
- 1645) 山陽水 큰 싸움. <삼국지>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고전 소설 《산양대전》의 싸움터. 여기서 관우와 마초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5일 동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룡이 사천으로부터 달려와 이들을 구해냈음.
- 1646) 子龍. 중국 삼국시대 촉(蜀)의 명장. 성은 조(趙), 이름은 운(雲). 자룡은 그의 자(字)임.
- 1647) 興盡悲來 苦盡甘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돌아오고, 고통이 다하면 기쁜 일이 돌아온다.
- 1648) 나를.
- 1649) 中華. ‘中’은 중앙이나 중심, ‘華’는 문화라는 뜻. 중국의 한족(漢族)이 주위의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민족에 대하여, 자기 민족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문명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컫는 말.
- 1650)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것과 같은 세상, 곧 태평성대.
- 1651) 太古적. 아주 오랜 옛날.
- 1652) 宋天子. 송나라 천자. 송나라 임금.
- 1653) 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만세’를 강조한 말.
- 1654) 府院君. 조선 시대에, 왕비의 친아버지나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655) 千千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천세’와 ‘만세’를 강조한 말.
- 1656)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가 앓던 전각.
- 1657) 至於飛禽走獸까지도.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도.
- 1658) 罪狀.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 1659) 留宿. 머물러 잠.
- 1660) 五更시.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까지.
- 1661) 九泉. ‘땅 밑, 대지의 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 저승.
- 1662)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1663) 天下.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 1664) 匕首劍. 비수. 작고 날카로운 칼.
- 1665) 人誰無過리오? 사람으로 누가 허물이 없으리오?
- 1666) 改則爲善이라. 마음을 고치면 선하게 된다.
- 1667) 알기 때문에.
- 1668) 是以. 이로써. 이 때문에.
- 1669) 御命. 임금의 명령. 따라서 여기서는 잘못 쓴 것임.
- 1670) 쏘기.

- 1671)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요, 積惡之家에 必有餘殃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재앙이 있다.
- 1672) 天理. 천지자연의 이치. 또는 하늘의 바른 도리.
- 1673) 沈生員. 심 씨 성을 가진 선비. ‘생원’은 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
- 1674)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675) 教旨. 임금의 명령.
- 1676) 貞烈夫人. 지조나 절개를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
- 1677) 封하시고. 임금이 작위(爵位)나 작품(爵品)을 내려 주시고.
- 1678) 別給賞賜. 따로 상을 내려줌.
- 1679) 職品. 벼슬의 품계.
- 1680) 올려.
- 1681)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1682)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1683) 堂上. 당상관.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을 일컫는 말.
- 1684) 千金賞. 상으로 내린 많은 재물.
- 1685) 稅役. 세금과 부역.
- 1686) 好歌도 長唱不樂이요. 좋은 노래로 오래 부르면 즐겁지 아니하고.
- 1687) 북소리의 의성어로, 판소리의 맨 끝에 부르는 관용구.